Jeonbuk Institute

기본연구

2022-04

전북 농촌주민의 삶의 질 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조원지 황영모 박로운 정호중

Jthink 전북연구원

Jeonbuk Institute

기본연구

2022-04

전북 농촌주민의 삶의 질 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조원지 황영모 박로운 정호중

jthink 전북연구원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 구 책 임	조원지	부연구위원	연구총괄, 제1장~5장
공 동 연 구	황영모	연구위원	제4장 8절, 제5장 일부 및 검토
	박로운	전문연구원	제2장 1절 일부
	정호중	전문연구원	제2장 2절, 4장 1~7절 일부

자 문 위 원	김기흥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정화	전남대학교 교수
	장미나	더 서로이음 대표
	차승은	수원대학교 교수
	김경민	서울대학교 교수
	이서연	전남대학교 교수

연구관리 코드 : 21GI09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 약
SUMMARY

1. 연구 개요

▌ 연구 배경 및 목적

'삶의 질'은 개인의 욕구, 인간다운 삶 등 개인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이 만들어낸 개인의 삶의 결과를 의미하며, 개인을 둘러싼 객관적인 생활여건과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로 삶의 질을 측정하게 된다. 삶의 질 측정은 매년 다양한 기관 또는 연구자들에 의해 개념, 지역, 대상 등에 따라 다양한 방법과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삶의 질 정의와 측정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공간은 사회적 정체성을 구성,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이는 물질적, 상징적, 은유적인 공간을 만들며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질 밸런타인, 2014) 공간은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의미와 함께 사회적 관계, 문화, 역사 등을 담고 있는 곳으로서 개인의 삶 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 개인의 일상경험과 생활여건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통해 가능하다.

개인의 일상의 공간으로 농촌지역은 도시와 대비되는 지역으로 인식되었으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공존하고 있는 도농복합시가 설치되면서 농촌지역은 지역적 성격의 차이를 가지고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을 이해하는데 세분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북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살펴보기 위한 이 연구는 농촌을 지리 및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농촌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정주여건을 제시하고 있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와 주민이 자신의 일상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전라북도 사회조사' 분석결과를 통해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농촌지역 특성을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공간이 농촌주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북 농촌주민의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삶의 질을 살펴봄으로서 이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정책 발굴 및 시행에 앞서 필요한 정책관점과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전북 농촌주민의 전반적인 삶을 객관적이고 주관적으로 살펴보고자 '2021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와 '2019년과 2020년 전라북도 사회조사'를 활용하였다.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일상공간의 객관적인 부문과 거주환경에서 개인의 경험과 평가의 주관적 부문으로 구분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살펴보았다. 또한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으로 전북 농촌을 세분화하여 각 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탐색하여 지역 특성에 따른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한다.

'2021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결과를 통해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의 농어촌 생활여건을 '보건의료·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활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주관적 측면에서 전북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전라북도 사회조사' 문항을 활용하였다. 농촌서비스기준 항목과 기존 삶의 질 지표들을 고려하여 전라북도 사회조사에서 분석을 위해 추출한 문항들은 6개 영역인 보건의료·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일자리, 공동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로 구분하여 재분석되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농촌사회가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으로 구분되고 있는 현재, 농촌지역의 세분화로 발생되는 생활여건의 차이는 개인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과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여, 이 연구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공간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을 모두 고려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공간적 차원은 삶의 객관적인 측면, 개인적 차원은 주관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입체적으로 농촌주민의 삶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삶의 질 개념 및 지표체계

▌ 삶의 질 개념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은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얻어가는 가치, 의미, 만족의 정도'이며 '개인이나 사회의 일반적인 참살이에 대한 평가'로 사용되고 있다. 삶의 질은 '개인의 정신적 상태, 스트레스 정도, 주관적 건강상태' 등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개념화되어 측정되고 있다.

Veenhoven(2000)은 삶의 질을 '삶의 기회'와 '삶의 결과'로 구분하고, '내면적인 질'과 '외면적인 질'로 다시 구분하여 세분화하였다. 외부적으로 삶의 질은 '환경의 적합성'과 '삶의 효용'이며, 내면적으로는 '개인의 생활능력', '삶에 대한 가치평가'로 분류하였다. 삶의 질을 '개인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평가하는 정도'로 평가하였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서 사회지표 연구가 시작되며 삶의 질이 언급되기 시작하였으나,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객관적 관점 또는 주관적 관점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접근하였다. 끊임없는 논의를 통해, 삶의 질은 개인의 만족과 행복정도는 개인과 공동체에 제공하는 복지, 생활수준 또는 경제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삶의 질 측정은 개인의 생활여건인 객관적 측면과 환경에 대한 개인의 평가, 만족 등의 주관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내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삶의 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삶의 질의 개념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에 주목하였다. 다양한 연구자들은 삶의 질을 개념화하는데 절대적이고 객관적 개념보다 개인이 놓인 환경여건과 변화에 영향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평가에 주목하며, 개인의 행복, 주관적 웰빙 등 포괄적인 주관적 개념으로 개념화하였다.

객관적이고 주관적 개념을 고려한 통합적 관점에서 삶의 질을 정의하는 학자들은 삶의 질을 '한개인의 물리적, 심리적, 정신적 존재의 총합', '개인이 이용가능한 상황과 여건의 객관적 질과 주관적 안녕 및 생활에 대한 평가' 등으로 제시하였으며, 통계청은 삶의 질을 '삶을 가치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객관적 생활조건과 이에 대한 주관적 인지 및 평가'로 정의하였다.

전북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살펴보게 될 이 연구는 삶의 질을 개인을 둘러싼 환경의 질과 환경여건에 대한 개인의 만족도로 정의내리고자 한다.

▌삶의 질 지표체계

1960년대 사회지표운동(Social Indicators Movement)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한 사회 내 구성원의 삶의 질 측정을 위해 일어났다. 한국의 사회지표는 1979년부터 매년 작성되고 있으며, 2020년 한국 사회지표는 사회전반을 11개 부문(인구, 가구·가족, 건강, 교육·훈련, 노동, 소득·소비·자산, 여가, 주거, 생활환경, 범죄·안전, 사회통합·주관적 웰빙)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 세부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OECD는 경제적 측면에서 삶의 질에 대한 이해가 삶의 질과 환경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2009년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BLI)가 개발되어 OECD국가는 삶의 질을 측정하기 시작하였다. OECD BLI는 물리적 삶의 조건과 삶의 질로 구분하여 각각 영역별로 세부 요인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삶의 질을 '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등과 관련하여 인생에서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상대에 대한 지각'으로 정의하였다. 삶의 질 척도는 신체적 측면, 심리학적 측면, 독립성, 사회적 관계, 환경, 정신·종교·개인적 신념으로 구성하였다.

국내는 통계청에서 2014년부터 '국민 삶의 질'을 작성하고 있으며, 2020년 삶의 질 지표는 11개 영역 71개 지표로 구성하고 있다. 11개 영역은 건강, 고용·임금, 소득·소비·자산, 시민참여, 안전, 환경, 여가, 교육, 가족·공동체, 주거, 주관적 웰빙으로 구성하고 있다.

농촌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시기에 농어촌 공공서비스 공급 기준마련을 위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0년~2024년)의 기본방향을 반영한 농어촌서비스 기준은 4개 부문 19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4개 부문은 '보건의료·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활동'이 해당된다.

이 연구는 전북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

해 농어촌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영위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영역과 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객관적인 차원의 삶의 질은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따라 '보건의료·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활동'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을 살펴보고, '공동체', '삶의 만족도'를 추가하여 주관적인 관점의 삶의 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3.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

도시와 농어촌 간 생활여건 격차를 줄이고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제5조와 제6조에 의거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되었다.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시점에 도입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재차 기본계획에서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 4개의 영역으로 재편되었다.

2020년 전라북도 농어촌서비스 이행실태를 점검,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

첫째, 보건·복지영역의 4개 부문 진료, 응급의료, 영유아보육·교육, 노인복지의 목표치 달성을 살펴보았다. 진료 항목의 경우, 전북 농어촌지역 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중요 과목의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의 접근성 목표치인 농어촌 차량이동 평균속도인 32.2km/h로 평균 30분 이내 도착 가능한 지역은 도농복합시인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정읍이었다. 초과지역은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이었다. 30분 이내 응급진료가 가능한 지역은 도농복합시와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이 해당되었으며, 장수군과 순창군은 농어촌서비스기준에 충족하지 못했다. 보육시설 접근성과 관련하여, 평균 20분 이내 보육시설에 도착할 수 없는 지역은 도농복합시, 완주군, 순창군, 부안군을 제외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고창군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유소년인구(0~14세)가 5,000명 미만이었으며, 출생아 수가 200명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시간이 20분 이내인 유치원의 경우, 군산시와 김제시를 제외한 11개 시군은 유치원에 대한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저소득층 노인가구에게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 비율로 측정되는 노인복지는 최소 서비스 제공 비율인 6.5%를 13개 시군 모두 초과하며, 서비스기준을 충족하였다.

▌교육·문화

거주지로부터 초등학교까지 도착시간이 평균 10분 이내인 지역은 13개 시군 모두 해당되어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간의 평균 접근시간의 편차가 존재하였다. 중학교의 경우, 도농복합시인 정읍시와 남원시, 군 지역의 장수군과 임실군이 평균 접근시간이 10분을 초과하면서 서비스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평생교육 영역에서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읍면 비율이 최소 70%를 넘지 못한 지역은 군산시와 정읍시로 나타나 평생교육 서비스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내 작은도서관을 포함하여 국공립도서관에 도달할 수 있는 평균 시간이 10분을 초과하는 지역은 도농복합시 중 정읍시와 군 지역 중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이 포함되었다.

▌정주여건

마을 내 영농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처리장을 갖춘 행정리 비율을 측정한 결과, 영농폐기물은 진안군, 무주군, 순창군, 생활폐기물은 김제시를 제외하고 서비스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고 어디에서나 하수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하수도 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살펴보면, 상수도는 도농복합시 중 남원시, 군 지역 중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하수도는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이 이행하지 못했다. 마을 내 대중교통 운행 횟수,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을 위한 방범설치, 경찰순찰, 소방출동을 살펴보았다. 마을 내에서 하루 3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데 서비스기준(100%)을 충족한 시군은 없었다. 마을의 범죄예방을 위해 마을의 주요지점과 진입로에 방법용 CCTV를 설치한 행정리 비율을 살펴보면, 방범설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지역은 군산시와 정읍시가 해당된다. 탄력순찰 제공 여부를 통해 경찰순찰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시군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행실태 정도가 시군 간

차이를 보여 긴급 신고나 순찰 소요시간이 길어지는 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목표시간 내에 소방차가 도착하는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목표치를 달성한 지역은 없었다.

▌경제·일자리

시군 내 창업 및 사업체 운영, 취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여부 파악을 통해 진행되었다. 시군 내 창업보육지원센터 등 창업 및 사업체 운영을 위한 지원센터 유무를 살펴보면, 도농복합시와 완주군에 지원센터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시군 내 취업상담을 위한 지원센터를 임실군과 고창군을 제외한 11개 시군이 보유하고 있었다. 시군 내 취·창업 상담을 위한 전문인력 또는 전담인력은 임실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 고용·배치되었으며, 지역 간 고용 인력의 규모에는 차이가 있었다. 연간 창업 및 사업체 운영, 취업 관련 전문프로그램이 1회 이상 운영되는 지역은 정읍시, 임실군, 고창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을 포함하였다.

4. 전북 농촌주민의 삶의 질 실태

전라북도 농촌주민의 삶의 질 파악을 위해 2019년부터 2020년에 걸쳐 수행한 '전라북도 사회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14개 시군의 910개 조사구 13,513가구의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사회조사의 원자료에서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재분석하였다(2019년 13,793명, 2020년 13,444명). 지역적 특성에 따른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살펴보기 위하여 도농복합시(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와 군 지역(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으로 구분하여 특성을 분석하였다.

▌삶의 만족도

2019년에 측정된 건강상태, 재정상태, 사회적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이에 대한 낮은 만족 수준을 보였으며,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을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정생활 분야에서 군 지역 농촌주민이 도농복합시 농

촌주민에 비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70세 이상 농촌노인은 자신의 건강, 재정, 사회적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타 연령대 주민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건강상태에 불만족을 보였다.

2020년에 측정된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지역생활 만족도, 행복감의 경우,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농촌주민은 현재 삶 만족도와 지역생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삶과 일상에 대한 감정에 있어 70세 이상 농촌주민들은 타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감을 보였다.

▌보건·복지

농촌주민 절반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운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 관심 없음과 시간 부족으로 응답하였으며, 특히 70세 이상 농촌주민은 관심이 없어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주민의 현재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 지역 농촌주민의 만족도가 도농복합시 주민보다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이하 주민의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출산·육아·임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전북 농촌주민의 절반가량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농복합시 30~40대 주민은 출산·육아·임신 사회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40대 농촌주민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65세 이상 농촌노인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와 정책욕구를 살펴보면, 노인문제로 건강, 경제적 소외, 외로움 등을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전북 농촌노인이 가장 희망하는 복지서비스는 의료서비스 확대로 나타났다.

▌교육·문화

평생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는 농촌주민은 주로 공공기관의 평생교육원 강좌를 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농촌주민들은 건강 또는 나이, 관심 없음, 시간 없음 등을 이유로 언급하였다. 농촌주민이 희망하는 평생교육은 건강, 스포츠·레포

츠. 컴퓨터 등 관련 교육으로 나타났다. 농촌주민의 절반가량이 문화예술 관람, 여행, 휴식 등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군 지역 주민이 도동복합시 주민에 비해 여가생활 만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주기반

농촌지역의 녹지공간에 대한 농촌주민의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도농복합시 농촌주민은 편의시설 접근성, 문화여가시설, 교통편리성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과 관련하여,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모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공간인 집에 대한 질에 대해 농촌주민 절반이상이 자신의 주택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주민 절반이상은 자신의 지역사회에 대해 안전하다고 평가하였으며, 특히 자연재해, 건축물 및 시설물, 교통사고, 화재 먹거리, 범죄위험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신종 전염병에 대해 도농복합시 농촌주민의 절반이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농촌주민의 환경체감도를 통해 지역환경의 질을 살펴본 결과, 지역 내 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경제·일자리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농촌주민이 제시한 취업이 어려운 이유로 도농복합시 농촌주민은 일자리 부족, 군 지역 주민은 희망직종과 고용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으로 응답하였다. 전북 농촌지역에서 종사상 임금근로자의 근로여건은 도농복합시의 절반이상이 현재 일자리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반면, 군 지역 주민은 보통 이상의 만족 수준을 보였다. 도농복합시 주민은 임금, 복지후생, 고용안정성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으며, 군 지역 주민은 고용안정성에 대해 주로 불만족스럽다고 언급하였다. 소득이 있는 농촌주민의 절반가량은 현재 소득에 대해 불만족스러워 하였으며, 농촌주민의 소비생활을 살펴보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농복합시 주민의 절반가량이 불만족스러워 한다고 응답하였다.

▌공동체

농촌주민의 대다수가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주민

절반 이상이 지역주민과 친밀하며 상호작용을 자주하고, 상호도움을 제공하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다. 다문화가족에 관심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5. 전북 농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방안

농촌주민을 위한 지역 단위의 삶의 질 정책이 발굴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측정 지표가 필요하다(정해식 외, 2020). 삶의 질 관련 정책 집행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주민 개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독자적인 지역 단위 정책을 설계하는데 한계가 있다. 전북 기초자치단체가 농촌지역의 자원을 연계, 통합하여 농촌주민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을 객관적, 주관적인 측면에서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전북 농촌지역의 중요과목 진료 가능한 의료여건의 열악함 또는 의료기관의 부재로 인해 낮아지고 있는 서비스의 질과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농촌중심의 의료·건강안전망 체계 확대가 필요하다. 건강실천에 소홀한 농촌주민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심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보건·의료정책과 의료 취약지역·계층을 위한 의료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전북의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교육 및 생활돌봄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면서 지역 내 관련 시설의 용도와 교육·돌봄 서비스의 변화가 필요하다. 교육·문화와 생활돌봄의 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에서 감소하는 유소년인구와 증가하는 고령인구를 위한 보육·돌봄과 교육·문화 여건 개선을 위하여 공동체 내에서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

사회적, 법적 지위가 미약한 여성노인, 여성농업인, 청년, 다문화가구 등을 위한 전북 농촌형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계층별 차별 완화를 위한 교육과 정책이 운용되고 있으나 농촌지역의 성인지 감수성, 다문화 감수성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인식 교육과 이들의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인구밀도가 낮고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을 가진 전북 농촌주민의 이동권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경우, 교통 취약계층이 경험할 수 있는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농촌형 교통모델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권 보장 및 확대가 필요하다.(충청남도·충남연구원, 2021)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전북 농촌지역에서 이동권과 함께 교통안전 확보가 필요하다.(충청남도·충남연구원, 2021). 안전을 위한 교육과 함께 다양한 혁신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교통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기후위기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더욱더 저하시키기도 하지만 새로운 이슈를 야기할 수 있다. 사회재난에 따른 취약계층의 낮아지는 문화·교육의 접근성과 함께, 자연재해로 인한 위협적이고 어려운 작업환경에서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는 전북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 환경변화에 적응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농업생산에 영향을 미치며 농가소득의 변화로, 환경문제는 먹거리, 주거, 인권 등 삶 전반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농촌 주민의 일터와 삶터의 안전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생, 공동체, 생태 등 가치를 둔 정책이 필요하다.

삶의 질 정책은 중앙-지방-지역 순의 하달식 정책전달체계이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이슈를 결정하고 지역 내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사업이 발굴, 추진될 수 있는 정책 순환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차 례

CONTENTS

요 약 ····· i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삶의 질 개념 및 선행연구 고찰 ····· 5
3. 연구내용 및 방법 ····· 11

제2장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정책 및 삶의 질 지표체계

1. 전북 인구현황 ····· 15
2. 농촌주민 삶의 질 정책 현황 ····· 41
3. 삶의 질 지표체계 ····· 52

제3장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

1. 보건의료·복지 ····· 57
2. 교육·문화 ····· 63
3. 정주기반 ····· 67
4. 경제활동 ····· 73
5. 소결 ····· 75

제4장 전북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

1. 조사개요 ····· 83
2. 농촌주민의 삶의 만족도 ····· 87
3. 보건의료·복지 ····· 96
4. 교육·문화 ····· 125
5. 정주기반 ····· 139
6. 경제·일자리 ····· 165
7. 공동체 ····· 178
8. 소결 및 시사점 ····· 196

제5장 전북 농촌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1. 주요결과 및 논의 ····· 207
2. 개선방안 ····· 209

참 고 문 헌 ····· 215

표 차 례

LIST OF TABLES

〈표 1-1〉 Veenhoven의 삶의 질 정의 ····· 6

〈표 2-1〉 전북 시군별 인구규모 ····· 16
〈표 2-2〉 전북 시군 연령별·성별 인구구성 ····· 21
〈표 2-3〉 전북 도농복합시의 연령별 인구구성 ····· 25
〈표 2-4〉 전북 시군 출산 현황(합계 출산율, 출생아수, 모의 연령별 출산율) ·· 27
〈표 2-5〉 전북 시군별 사망 현황(사망자, 사망률) ····· 28
〈표 2-6〉 전북 시군별 유소년, 생산가능, 고령인구 ····· 29
〈표 2-7〉 전북 시군별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 32
〈표 2-8〉 전북 시군별 인구이동 현황 ····· 35
〈표 2-9〉 전북 시군별 인구밀도 ····· 36
〈표 2-10〉 전북 시군별 가족원수별 가구분포 ····· 38
〈표 2-11〉 전북 읍면동 및 시군별 세대구성별 가구분포 ····· 40

〈표 3-1〉 전라북도 시군별 의료기관 평균접근시간 ····· 58
〈표 3-2〉 응급의료 항목 이행실태 ····· 59
〈표 3-3〉 시군별 어린이집·유치원 접근거리 및 개소 ····· 60
〈표 3-4〉 노인복지 항목 이행실태 및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현황 ····· 62
〈표 3-5〉 초·중학교 현황 및 평균 접근시간 ····· 64
〈표 3-6〉 평생교육·문화·도서관·체육시설 현황 및 이행실태 ····· 66
〈표 3-7〉 생활폐기물 및 주택 이행실태 ····· 68
〈표 3-8〉 상하수도 및 난방 이행실태 ····· 70
〈표 3-9〉 대중교통 및 안전 이행실태 ····· 72
〈표 3-10〉 경제활동 부문 이행실태 ····· 74

〈표 4-1〉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 85
〈표 4-2〉 응답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86
〈표 4-3〉 2019년 삶의 만족도 ····· 87
〈표 4-4〉 성별 삶의 만족도 ····· 89

〈표 4-5〉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 90
〈표 4-6〉 2020년 삶의 만족도 ····· 92
〈표 4-7〉 성별 삶의 만족도 ····· 92
〈표 4-8〉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 94
〈표 4-9〉 농촌주민의 운동실천 횟수 ····· 96
〈표 4-10〉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 97
〈표 4-11〉 지역별 성별 운동실천 횟수 ····· 98
〈표 4-12〉 지역별 성별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 99
〈표 4-13〉 지역별 연령대별 운동실천 횟수 ····· 101
〈표 4-14〉 지역별 연령대별 운동하지 않는 이유 ····· 102
〈표 4-15〉 의료여건 만족도 ····· 103
〈표 4-16〉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의 성별 의료서비스 만족도 ····· 104
〈표 4-17〉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의료서비스 만족도 ····· 106
〈표 4-18〉 기본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 108
〈표 4-19〉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임신·출산·육아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 109
〈표 4-20〉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 111
〈표 4-21〉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임신·출산·육아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 113
〈표 4-22〉 도동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 115
〈표 4-23〉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노인이 인식하는 노인문제 ····· 116
〈표 4-24〉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노인이 인식하는 노인문제 ····· 117
〈표 4-25〉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노인이 인식하는 노인문제 ····· 118
〈표 4-26〉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노인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 ····· 119
〈표 4-27〉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노인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 ····· 120
〈표 4-28〉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노인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 ··· 121
〈표 4-29〉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확충이 필요한 노인복지시설 ····· 122
〈표 4-30〉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확충이 필요한 노인복지시설 ····· 123
〈표 4-31〉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확충이 필요한 노인복지시설 ··· 124
〈표 4-32〉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평생교육 이용실태 ····· 125
〈표 4-33〉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평생교육 이용실태 ····· 126

표 차 례

LIST OF TABLES

〈표 4-34〉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평생교육 이용실태 ····· 127
〈표 4-35〉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 138
〈표 4-36〉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 129
〈표 4-37〉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의 연령대별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 130
〈표 4-38〉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희망교육 ····· 131
〈표 4-39〉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희망교육 ····· 132
〈표 4-40〉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희망교육 ····· 133
〈표 4-41〉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여가생활 만족도 ····· 134
〈표 4-42〉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여가생활 만족도 ····· 135
〈표 4-43〉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여가생활 만족도 ····· 137
〈표 4-44〉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주거환경 만족도(분포) ····· 140
〈표 4-45〉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주거환경 만족도 ····· 141
〈표 4-46〉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녹지공간 만족도 ····· 142
〈표 4-47〉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편의시설 접근성 만족도 ····· 144
〈표 4-48〉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 146
〈표 4-49〉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교통편리성 만족도 ····· 148
〈표 4-50〉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대중교통(버스) 만족도(분포) ····· 150
〈표 4-51〉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대중교통(버스) 만족도 ····· 150
〈표 4-52〉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주택만족도 ····· 151
〈표 4-53〉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분포) ····· 152
〈표 4-54〉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 153
〈표 4-55〉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안전인식도 ····· 154
〈표 4-56〉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안전인식도 ···· 156
〈표 4-57〉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범죄위험에 대한 안전인식도 ····· 158
〈표 4-58〉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범죄위험에 대한 안전인식도 ··· 160
〈표 4-59〉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환경체감도(분포) ····· 162
〈표 4-60〉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환경체감도 ····· 164
〈표 4-61〉 구직활동의 어려움 ····· 165
〈표 4-62〉 농촌 임금근로자의 근로여건 만족도(분포) ····· 166

〈표 4-63〉 농촌 임금근로자의 근로여건 만족도 ····· 168
〈표 4-64〉 농촌 임금근로자의 성별 근로여건 만족도 ····· 169
〈표 4-65〉 남녀 성차별 인지도 ····· 170
〈표 4-66〉 연령대별 남녀 성차별 인지도 ····· 171
〈표 4-67〉 소득만족도 ····· 172
〈표 4-68〉 연령대별 소득만족도 ····· 173
〈표 4-69〉 소비만족도 ····· 175
〈표 4-70〉 연령대별 소비만족도 ····· 176
〈표 4-71〉 지역정체성 ····· 178
〈표 4-72〉 연령대별 지역정체성 ····· 179
〈표 4-73〉 공동체 의식(분포) ····· 181
〈표 4-74〉 공동체 의식 ····· 181
〈표 4-75〉 연령대별 공동체 의식(친밀감) ····· 182
〈표 4-76〉 연령대별 공동체 의식(대화) ····· 184
〈표 4-77〉 연령대별 공동체 의식(상호도움제공) ····· 186
〈표 4-78〉 연령대별 공동체 의식(공동체 참여) ····· 188
〈표 4-79〉 다문화가구 관심도 ····· 189
〈표 4-80〉 연령대별 다문화가구 관심도 ····· 191
〈표 4-81〉 다문화가구 증가에 대한 인식 ····· 192
〈표 4-82〉 연령대별 다문화가구 증가에 대한 인식 ····· 194

그 림 차 례

LIST OF FIGURES

〈그림 2-1〉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 46
〈그림 2-2〉 제4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 49
〈그림 2-3〉 OECD웰빙 프레임웍 ····· 53

〈그림 4-1〉 2019년 삶의 만족도 ····· 88
〈그림 4-2〉 도농복합시 성별 삶의 만족도 ····· 89
〈그림 4-3〉 군 지역의 설별 삶의 만족도 ····· 89
〈그림 4-4〉 도농복합시의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 91
〈그림 4-5〉 군 지역의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 91
〈그림 4-6〉 군 지역의 성별 삶의 만족도 ····· 93
〈그림 4-7〉 도농복합시의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 94
〈그림 4-8〉 군 지역의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 95
〈그림 4-9〉 농촌주민의 운동실천 횟수 ····· 96
〈그림 4-10〉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 97
〈그림 4-11〉 지역별 성별 운동실천 횟수 ····· 98
〈그림 4-12〉 지역별 성별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 100
〈그림 4-13〉 지역별 연령대별 운동실천 횟수 ····· 101
〈그림 4-14〉 지역별 연령대별 운동하지 않는 이유 ····· 103
〈그림 4-15〉 지역별 의료여건 만족도 ····· 104
〈그림 4-16〉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의료서비스 만족도 분포 ····· 105
〈그림 4-17〉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의료서비스 만족도 평균 ····· 105
〈그림 4-18〉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의료서비스 만족도 분포 ····· 106
〈그림 4-19〉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의료서비스 만족도 평균 ····· 107
〈그림 4-20〉 임신·출산·육아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 108
〈그림 4-21〉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 108
〈그림 4-22〉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임신·출산·육아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분포 ··· 110
〈그림 4-23〉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임신·출산·육아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평균 ··· 110
〈그림 4-24〉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분포 ··· 111
〈그림 4-25〉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평균 ··· 112

〈그림 4-26〉 연령대별 임신·출산·육아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분포 ····· 113
〈그림 4-27〉 연령대별 임신·출산·육아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평균 ····· 114
〈그림 4-28〉 연령대별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분포 ····· 115
〈그림 4-29〉 연령대별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분포 ····· 116
〈그림 4-30〉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노인이 인식하는 노인문제 ····· 117
〈그림 4-31〉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노인이 인식하는 노인문제 ····· 118
〈그림 4-32〉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노인이 인식하는 노인문제 ··· 119
〈그림 4-33〉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노인이 희망하는 노인서비스 ····· 120
〈그림 4-34〉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노인이 희망하는 노인서비스 ····· 121
〈그림 4-35〉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노인이 희망하는 노인서비스 ··· 122
〈그림 4-36〉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확충이 필요한 노인복지시설 ····· 123
〈그림 4-37〉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평생교육 이용실태 ····· 125
〈그림 4-38〉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평생교육 이용실태 ····· 126
〈그림 4-39〉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평생교육 이용실태 ····· 128
〈그림 4-40〉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 129
〈그림 4-41〉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 130
〈그림 4-42〉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 131
〈그림 4-43〉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여가생활 만족도 ····· 134
〈그림 4-44〉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여가생활 만족도 분포 ····· 136
〈그림 4-45〉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여가생활 만족도 ····· 136
〈그림 4-46〉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여가생활 만족도 분포 ····· 137
〈그림 4-47〉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여가생활 만족도 ····· 138
〈그림 4-48〉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주거환경 만족도(분포) ····· 140
〈그림 4-49〉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주거환경 만족도 ····· 141
〈그림 4-50〉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녹지공간 만족도(분포) ····· 142
〈그림 4-51〉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녹지공간 만족도 ····· 143
(그림 4-52〉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편의시설 접근성 만족도(분포) ··· 144
〈그림 4-53〉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편의시설 접근성 만족도 ····· 145
〈그림 4-54〉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문화여가시설 만족도(분포) ··· 146

그 림 차 례

LIST OF FIGURES

〈그림 4-55〉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 147
〈그림 4-56〉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교통 편리성 만족도(분포) ···· 148
〈그림 4-57〉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교통편리성 만족도 ····· 149
〈그림 4-58〉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주택만족도 ····· 151
〈그림 4-59〉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153
〈그림 4-60〉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신종 바이러스 등에 대한 안전인식도(분포) ··· 154
〈그림 4-61〉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신종 바이러스 등에 대한 안전인식도 ··· 155
〈그림 4-62〉 연령대별 신종 바이러스 등에 대한 안전인식도(분포) ····· 156
〈그림 4-63〉 연령대별 신종 바이러스 등에 대한 안전인식도 ····· 157
〈그림 4-64〉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범죄위험에 대한 안전인식도 분포 ···· 158
〈그림 4-65〉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범죄위험에 대한 안전인식도 ····· 159
〈그림 4-66〉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범죄위험에 대한 안전인식도 분포 ···· 161
〈그림 4-67〉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범죄위험에 대한 안전인식도 ··· 161
〈그림 4-68〉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환경체감도(분포) ····· 163
〈그림 4-69〉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환경체감도 ····· 164
〈그림 4-70〉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근로여건 만족도 ····· 167
〈그림 4-71〉 농촌 임금근로자의 근로여건 만족도 ····· 168
〈그림 4-72〉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근로여건 만족도(분포) ····· 169
〈그림 4-73〉 성별 근로여건 만족도 ····· 170
〈그림 4-74〉 소득만족도 ····· 172
〈그림 4-75〉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소득만족도 ····· 174
〈그림 4-76〉 연령대별 소득만족도 ····· 174
〈그림 4-77〉 소비만족도 ····· 175
〈그림 4-78〉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소비만족도 ····· 176
〈그림 4-79〉 연령대별 소비만족도 ····· 177
〈그림 4-80〉 지역정체성 ····· 178
〈그림 4-81〉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지역정체성 ····· 179
〈그림 4-82〉 연령대별 지역정체성 ····· 179
〈그림 4-83〉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공동체 의식(친밀감) ····· 183

〈그림 4-84〉 연령대별 공동체 의식(친밀감) ····· 183
〈그림 4-85〉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공동체 의식(대화) ····· 185
〈그림 4-86〉 연령대별 공동체 의식(대화) ····· 185
〈그림 4-87〉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공동체 의식(상호 도움제공) ···· 186
〈그림 4-88〉 연령대별 공동체 의식(상호 도움제공) ····· 187
〈그림 4-89〉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공동체 의식(공동체 활동 참여) ··· 188
〈그림 4-90〉 연령대별 공동체 의식(공동체 활동 참여) ····· 189
〈그림 4-91〉 다문화가구 관심도 ····· 190
〈그림 4-92〉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다문화가구 관심도 ····· 191
〈그림 4-93〉 연령대별 다문화가구 관심도 ····· 192
〈그림 4-94〉 다문화가구 증가현상에 대한 인식 ····· 193
〈그림 4-95〉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다문화가구 증가에 대한 인식 ··· 194
〈그림 4-96〉 연령대별 다문화가구 증가에 대한 인식 ····· 195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삶의 질 개념 및 선행연구 고찰
3. 연구내용 및 방법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삶의 질’은 개인의 욕구, 인간다운 삶 등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이 만들어 낸 개인의 삶의 결과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객관적인 생활여건과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로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한다. 삶의 질은 ‘복지’, ‘주관적 웰빙’, ‘행복’, ‘주관적 만족도’ 등으로 혼용해 사용되고 있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지표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특성, 생활환경 여건, 교육환경, 문화 서비스 및 인프라 등으로 구성된 반면, 주관적 지표는 개인 자신이 전반적인 삶 또는 영역별 자신의 기대가 얼마나 충족되었는지 개인의 평가가 활용되었다.

○ 삶의 질 측정은 매년 다양한 기관 또는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주제, 지역, 대상 등에 따라 다양한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삶에 대한 개인의 전반적인 평가를 살펴보기 위해 ‘국민 삶의 질’, ‘사회조사’, ‘사회통합실태조사’ 등이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 국민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개인의 연령 또는 생애주기 상 사회경제적, 역사적 여건에 따라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시대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주기적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삶의 질 조사는 ‘아동종합실태조사’,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노인실태조사’ 등이 있다. 한국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등 변화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거나 변화하는 한국사회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는 변화하는 가족의 삶의 실태와 질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 그 예로 ‘가족실태조사’,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패널조사’, ‘다문화청소년조사’, ‘한부모가족실태조사’ 등이 있다.

○ 공간은 사회적 정체성을 구성,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이는 물질적, 상징적, 은유적인 공간을 만들며, 끊임없이 진화한다.(질 밸런타인, 2014) 공간은 지리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단순하게 물리적인 곳이 아니라 사회적 요인이 함께 관계를 맺으며 공간은 유·무형의 사적 공간, 역사, 공동체, 제도, 철학, 산

업, 민족 등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공간은 개인에게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와 함께 일상이 되어, 공간을 이해하는데 다층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공간은 개개인의 삶을 영향을 미치지만, 동일한 공간적 특성을 가지고 지역은 개인뿐만 아니라 주민의 일상경험과 정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산업화와 도시화는 도시와 농촌 간 생활 여건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도시와 농촌 간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과 함께 농어촌주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2004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2020년부터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다양한 과제를 수립·추진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어업인삶의질법」제46조에 의거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관련 연구인 '농어촌주민 삶의 질과 주민만족도 조사'가 수행되고 있다. 농촌지역은 도시와 대비되는 지역으로 인식되었으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공존하고 있는 도농복합시가 설치되면서 농촌지역은 지역적 성격의 차이를 가지는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살펴보기 위하여 지역 단위뿐만 아니라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실태를 세분화하여 보고자 한다.

○ 전국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 주민 삶의 질과 주민 정주만족도 조사', '사회조사', '국민의 삶의 질',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등은 표본조사로서 전북 농촌주민의 삶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전북 농촌 조사대상자의 응답을 추출하여 분석하기에는 표본 크기의 한계가 있다. '전라북도 사회조사'는 전북 도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특성을 크게 반영하고 있지 못해 문항 상 농촌주민의 삶의 실태를 살펴보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전북 농촌주민의 생활환경을 살펴볼 수 있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은 객관적인 삶의 질을 측정하고 있으나, 농어촌주민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 제공과 인프라 구축 정도를 확인가능하나, 이에 대한 농어촌주민의 경험과 평가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다.

○ 이 연구에서는 전북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다차원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을 제시하며 다층적으로 농촌주민의 객관적인 생활 여건 파악을 위해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

태', 다양한 환경여건에서 농촌주민의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 삶의 질의 한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전라북도 사회조사'를 두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함께 활용하였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살펴보는데, 지역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지역단위, 도농복합시·군 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농촌주민의 삶의 경험과 주관적인 평가는 개인이 상호작용하며 삶의 특성을 만들어갈 공간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의 특성에 따른 생활여건 구성과 이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이해하는데, 고령화·여성화되고 있는 농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령과 성별'로 농촌주민을 계층화하여 지역 내에서 삶의 질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결과를 근거로 전북 농촌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정책을 발굴·시행하는데있어 필요한 정책관점과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삶의 질 개념 및 선행연구 고찰

가. 삶의 질 개념

○ 사전적 정의[1]에 따르면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은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얻어가는 가치, 의미, 만족의 정도'이며, '개인이나 사회의 일반적인 참살이에 대한 평가'로 사용되고 있다. 삶의 질은 '정신적 상태, 스트레스 정도, 주관적 건강상태' 등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면서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개념화되어 왔다.

○ Veenhoven(2000)은 삶의 질을 '삶의 기회'와 '삶의 결과'로 구분하고, '내면적인 질'과 '외면적인 질'로 다시 구분하여 세분화하였다.(한준 외, 2011) 외부적으로 삶의 질은 '환경의 적합성'과 '삶의 효용'이며, 내면적으로는 '개인의 생활능력', '삶에 대한 가치평가'로 분류하였다. 삶의 질을 '개인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평가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1) 국립국어원 우리말 샘
https://opendic.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821392&viewType=confirm

[표1-1] Veenhoven의 삶의 질 정의

구분	삶의 기회	삶의 결과
외부적인 질	환경의 적합성	삶의 효용
내부적인 질	개인의 생활능력	삶에 대한 가치평가

○ 196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서 사회지표 연구가 시작되며 삶의 질이 언급되기 시작하였다.(한준 외, 2011) 경제적 성장과 함께 발생하는 경제적 양극화, 환경문제, 안전문제 등으로 소득 및 자산 증대와 같은 생활의 양적이고 객관적인 조건은 삶의 질에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개인과 사회의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였다.

○ Bauer(1996)의 '사회적 척도(social indicator)'는 '지향하는 가치와 목표에 개인의 위치와 방향'에 대한 개인의 평가와 만족도를 통해 삶의 질을 측정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 Campbell(1981)은 개인이 놓인 사회적 여건에 생활의 질이 크게 좌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회지표의 한계를 강조하였다. Milbrath(1979)는 개인의 생활은 개인의 삶의 목표와 가치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객관적 관점이 아닌 주관적 관점에서 삶의 질 개념과 측정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장봉규, 1996) Campbell(1972)은 삶의 질을 가치와 목표 성취에 따른 심리적 상태로 하였으며, 이외에도 행복한 생활(McCall, 1975), 만족감(Atkinson, 1978; Campbell et al., 1976), 삶의 목표와 충족 정도(Milbrath, 1982),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자아존중감(Schuessler & Fisher, 1985), 개인의 가치와 이상 실현 정도와 전반적 만족에서 경험하는 행복(Ryff, 1989; Ferrans & Powers, 1985)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삶의 질은 주관적이고 가치판단의 개념으로 인식되었다.(박대식·마상진, 2007; 오세일 외, 2019; 장봉규, 1996)

○ 주관적 개념의 삶의 질은 개인의 만족과 행복 정도는 외부 요인,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 또는 사회조직에 제공하는 복지(Scbneider, 1976)', '생활수준 또는 경제여건(Inkeles, 1993)' 등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삶의 질 측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객관적 지표는 지역, 영역, 시대별 비교가능하며 지역사회 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하재구, 1986), 특히, 지역의 특수성은 내부적으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등 고유한 특성과 성격을 갖고 있어 개인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 가치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Steur와 Marks(2008)는 지역차원의 삶의 질 측정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보편적, 영역적, 목표적인 수준으로 나누어 삶의 질을 설명하였다. 보편적 수준은 개인의 삶의 경험의 전반적이고 교차적 분류, 영역적 수준은 건강, 공동체 안전, 경제적 여건 등, 목표적인 수준은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의 영향요인을 측정하였다. 특히, 영역적 수준에서 개인-사회-장소 구조에서 개인의 삶의 질을 살펴보는데, 지역사회의 특수성이 개인의 삶의 질에 반영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이정윤·김주현, 2020)

○ 국내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삶의 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에 주목하였다.(오세일 외, 2019) 김상균 외(1996) 연구에서 '삶의 질'은 절대적인 개념보다 개인이 놓인 환경적 여건과 변화에 영향을 받는 주관적 개념을 강조하며 '자기인식 또는 평가'로 정의하였다.(박대식·마상진, 2007, 재인용) 또한, '행복, 주관적 웰빙 등' 포괄적인 주관적 개념으로 삶의 질을 개념화하였다.(최예나, 2016)

○ 객관적 그리고 주관적 개념을 고려한 통합적 관점에서 삶의 질을 정의하는 학자들은 삶의 질을 '한 개인의 물리적, 심리적, 정신적 존재의 총합(한상덕, 1998)',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경제적, 물리적 생활여건과 주관적 생활만족 정도를 포괄하는 개념(오영희 외, 2005)', '개인이 이용가능한 상황과 여건의 객관적 질과 주관적 안녕 및 생활에 대한 평가 등(김성희·장순희, 2013)', '안녕감, 생활만족 등 주관적 감정과 함께 의식주, 소득 등 객관적 삶의 여건을 모두 고려한 개념(김창진·허훈, 2018)'으로 정의하였다. 매년 국민의 삶의 질을 조사하고 있는 통계청은 삶의 질을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객관적 생활조건과 이에 대한 주관적 인지 및 평가'로 정의하였다.

○ 이 연구에서는 전북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살펴보는데 있어, '삶의 질'을 '개인을 둘러싼 환경의 질과 환경여건에 따른 개인의 만족도'로 정의내리고자 한다. 개인의 환경은 개인적, 사회적, 공간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개인적 영역은 개인이 속해 있는 환경에 대한 경험, 태도, 평가 등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영역은 가족, 사회적 관계, 공동체 참여, 소속감 등을 포함하고, 마지막으로 공간적 영역은 지역의 환경, 안전, 경제, 질 등으로 구분하였다.

나. 농촌 주민 삶의 질 관련 선행연구

○ 국내 삶의 질 연구들은 사회학, 복지학, 행정학, 경제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어 왔으며, 개인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요인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 개인 특성과 삶의 질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성별, 나이, 학력, 배우자유무, 고용상 지위, 소득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삶의 질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살펴보았다.(김민석·김태완, 2020; 김윤영 외, 2020; 김정현, 2019; 김창진·허훈, 2018, 오승환·윤동성, 2006; 최예나, 2016; 황금희 외, 2018)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함께 개인의 건강, 가족·가구 특성 및 사회적 관계를 포함한 개인적 요인 또한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상민, 2020; 김정현, 2019; 김창진·허훈, 2018; 박대식·마상진, 2007; 신수정, 2019; 전라북도, 2019, 2020; 최민호 외, 2019; 통계청, 2021; 한국사회보건연구원, 2007; 황금희 외, 2018) 이들 연구에 따르면, 가족, 이웃, 친구 등과의 신뢰와 지원은 개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사회자본으로, 사회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기본적인 생활환경, 교육환경, 복지환경 등 비물리적 요인과 물리적·제도적 요인들과 개인의 삶의 질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권영덕 외, 2013; 김민석·김태완, 2020; 김상민 외, 2020; 김성희·장순희, 2013; 이지은·이재완, 2014; 전라북도, 2019, 2020; 최예나, 2016; 통계청, 2021; 황금희 외, 2018) 이들 연구들은 다양한 부문의 환경적 요인으로 구성된 지표체계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질을 측정하여 개인의 삶에서 물리적 공간과 공간 내 유무형의 자원의 갖는 가치와 의미를 제시하였다.

○ 공간이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제시되면서, 도시 및 농촌, 농촌, 지역사회의 개인 삶의 질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권영덕 외, 2013; 김민식·김태완, 2020; 김성희·장순희, 2013; 김주원, 2006; 류기덕, 2007; 마상진·박대식, 2007; 송미령 외, 2021; 오승환·윤동성, 2006; 이정윤·김주현, 2020; 최민호 외, 2019; 충청남도·충남연구원, 2021)

○ 권영덕 외(2013) 연구는 '농어촌서비스기본 이행실태 점검·평가'를 통해 경남 농촌지역의 삶의 질을 살펴보았다. 2011년 농림식품에서 고시한 '농어촌서비스기준 8대 부

문과 31개 기준'의 점검·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관련 시설 실태에서 교육시설, 의료시설, 문화·복지시설이 도시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어 도농 간 큰 격차를 제시하였다. 김민식과 김태완(2020)은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통해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농어촌 주민의 행복감과 거주 지역에 대한 만족감은 도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거주 지역 발전 전망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았다. 농어촌의 주관적 웰빙지수와 공동체 및 지역사회 지수 또한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여건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만족감은 도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졌으며, 특히 보건의료 여건. 대중교통, 문화여가프로그램, 교육 등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읍면, 연령, 농어촌 지역 유형 등에 따른 만족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김성희와 장순희(2013)의 연구의 경우, 도농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여건', '사회문화적 여건', '물리·환경적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도시에 비해 군지역이 낮은 수준을 보였다. 강원도 농촌주민의 삶의 질 실태를 살펴본 김주원(2006)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소득, 교육요인이 농촌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전반적으로 삶의 질의 만족도가 낮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와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북 농촌여성은 농촌과 경북지역의 남성보수적인 특성으로 인해 삶의 질이 낮은 편이지만, 자신의 경제적 능력 또는 역량과 쾌적한 환경이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류기덕(2007)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마상진과 박대식(2008)의 연구는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의 질적, 양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 격차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구성하였으며, 지표의 지수화를 통해 측정된 삶의 질 수준은 농촌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의 발전정도와 잠재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지역발전지수를 통해 도농 삶의 여건을 살펴본 송미령 외(2021) 연구는 쉼터로서 삶의 여유 공간 지수가 농촌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생활서비스 지수 상위권 지역은 수도권과 대도시권 시군과 함께 지방 중심도시가 차지한 결과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삶의 질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시, 농촌, 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의 삶의 질을 살펴본 연구(오승환·윤동성, 2006)에 따르면, 농촌지역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주관적 건강상태, 도시노인은 독거노인유무, 자녀만남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개인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역적 요인에 따라 삶의 질이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정윤과 김주현(2020)의 연구는 대전지역 시민을 대상으

로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대전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따른 세 가지 유형인 '개인만족집중·사회문제 소홀형', '개인 만족 중시·사회문제 직시형', '사회, 환경 중시형'을 통해 사회적 관계, 자기결정력 등 요소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간 커뮤니티웰빙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연구한 최민호 외(2019) 연구는 인적자본, 경제자본, 자연자본, 인프라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웰빙' 중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영역은 '지역건강상태, 의료서비스, 노인서비스, 보육서비스, 장애인서비스, 평생교육서비스, 교육환경 등' 인적자본과 '대기오염도, 녹지공간, 재활용 및 쓰레기수거 서비스, 소음 등' 자연자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농어업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한 연구(충청남도·충남연구원, 2021)는 복지서비스, 기초생활, 안전, 환경 및 경관, 이웃 간의 만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보건의료, 교육여건, 문화여가, 경제활동 등에서는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농어촌서비스 이행실태를 통해 삶의 양적 질을 살펴보았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 이 연구는 전북 농촌주민의 삶 전반을 객관적이고 주관적으로 살펴보고자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와 '2019년과 2020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일상공간의 지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정책적, 환경적 여건을 통해 구성된 객관적인 차원의 삶의 질과 개인에게 주어진 생활여건에 대한 경험과 평가를 통해 주관적인 차원의 삶의 질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개인의 생활여건은 지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적 등 다양한 요인들의 통합과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된 공간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은 보편적이고 획일화된 특성을 가진 하나의 공간이 아닌 유사하면서도 이질적인 특성을 지닌 지역들의 합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전북 농촌주민의 삶의 객관적인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적으로 구획된 기초자치단체의 각 부문별(보건의료·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일자리) 서비스 공급과 인프라 구축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농촌의 특성이 짙은 군 지역과 달리, 도시와 농촌의 요소가 공존한 여건과 이에 따른 다양한 수요가 있을 도농복합시로 구분하여 두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의해 변경된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따라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의 농어촌 생활여건 실태를 살펴보았다.[2] 전북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복지'여건을 위해 중요 진료과목 의료, 응급 의료, 보육시설 등 접근성,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등, '교육·문화'는 초·중학교 접근성, 평생교육과 문화활동 경험, 문화여가 기반시설 등, '정주여건'은 주거여건, 주거환경 등, '경제활동'은 취·창업을 위한 교육 및 지원센터 등의 서비스와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측정되었다.

○ 다음은, 농촌주민이 평가하는 삶의 질을 살펴보기 위하여 '전라북도 사회조사' 문항 중 농촌서비스기준 항목과 기존 삶의 질 지표들을 고려하여 6개 영역으로 구분된 '보건의료·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일자리, 공동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관련 문항을 중심으로 재분석하였다. 삶의 질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지역 특성과 개인 특성을 모두 고려하고자 하였다. 지역 특성은 농촌지역을 농촌의 특색이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0). 2020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농림축산식품부.'를 재정리하였다.

살아있는 군 지역과 도시와 농촌의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도농복합시로 구분하여 두 지역의 농촌주민의 자신의 생활과 지역 환경에 대한 평가 비교를 통해 농촌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음은 개인의 특성이 농촌주민의 삶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고령화·여성화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과 연령으로 농촌주민을 계층화하여 살펴보았다. 동일한 공간에 거주하더라도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지하고 평가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연령은 생애주기 상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고려하여 그룹화(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하였다.

○ 이 연구에서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공간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 모두 고려하여 접근하고자 한다. 공간적 차원은 삶의 객관적인 측면, 개인적 차원은 주관적인 측면으로 구분·통합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정책 및 삶의 질 지표체계

1. 전북 인구현황
2. 농촌주민 삶의 질 정책 현황
3. 삶의 질 지표체계

제2장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정책 및 삶의 질 지표체계

1. 전북 인구현황

○ 2019년 전라북도 인구는 1,851,991명이며, 남성은 922,410명(49.8%), 여성은 929,581명(50.2%)으로 집계되었다. 전북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전체 중 30.0%를 차지하는 556,080명이었으며, 동에 거주하는 주민은 1,295,911명(70.0%)으로 나타났다. 읍면 주민 중 남성은 여성 275,739명(49.6%)보다 4,602명이 많은 280,341명(50.4%)으로 나타났다.

○ 읍면에 거주하는 시·군별 인구의 경우, 완주가 95,881명으로 전북 인구 중 5.2%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익산은 61,599명(3.3%), 고창 56,467명(3.0%), 부안 54,150명(2.9%) 등 순으로 나타났다.

○ 읍·면 남성인구와 여성인구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지역은 완주군으로서 남성이 49,449명으로 여성 46,432명보다 3,017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주군은 남성이 12,163명, 여성은 12,373명으로 적은 차이를 보였다. 남성이 많은 읍면은 완주군으로 49,449명이었으며, 다음으로 익산이 31,279명, 고창 27,929명, 부안 26,962명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읍면 거주 여성인구 중 완주군에 거주하는 여성은 46,4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고창군이 익산시 30,320명, 28,538명, 부안군 27,188명 등 순으로 집계되었다. 남성과 여성인구 모두 가장 적은 지역은 장수군으로 각각 11,346명, 11,472명이었다.

[표 2-1] 전북 시군별 인구규모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구성비	남자	여자	성비
전북	소계	1,851,991	100.0	922,410	929,581	99.2
	읍면	556,080	30.0	280,341	275,739	101.7
	동	1,295,911	70.0	642,069	653,842	98.2
전주		663,098	35.8	326,328	336,770	98.5
군산	소계	276,232	14.9	140,386	135,846	103.3
	읍면	38,899	2.1	20,321	18,578	109.4
	동	237,333	12.8	120,065	117,268	102.4
익산	소계	292,916	15.8	146,071	146,845	99.5
	읍면	61,599	3.3	31,279	30,320	103.2
	동	231,317	12.5	114,792	116,525	98.5
정읍	소계	113,514	6.2	56,556	56,859	99.5
	읍면	41,882	2.3	21,111	20,771	101.6
	동	71,533	3.9	35,445	36,088	98.2
남원	소계	82,463	4.5	40,330	42,133	95.7
	읍면	33,284	1.8	16,361	16,923	96.7
	동	49,179	2.7	23,969	25,210	95.1
김제	소계	85,924	4.6	43,041	42,883	100.4
	읍면	42,473	2.3	21,571	20,902	103.2
	동	43,451	2.3	21,470	21,981	97.7
완주		95,881	5.2	49,449	46,432	106.5
진안		26,070	1.4	13,124	12,946	101.4
무주		24,536	1.3	12,163	12,373	98.3
장수		22,818	1.2	11,346	11,472	98.9
임실		29,244	1.6	14,810	14,434	102.6
순창		28,777	1.6	13,915	14,862	93.6
고창		56,467	3.0	27,929	28,538	97.9
부안		54,150	2.9	26,962	27,188	99.2

출처: 전라북도(2019). 전라북도 기본통계

○ 전라북도의 연령별·성별 인구구성을 살펴본 결과, 2020년 기준 10대 이하가 303,655명으로 전체 인구 1,804,104명 중 16.8%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50대가 299,522명(16.6%), 40대 268,277명(14.9%), 60대 255,829명(14.2%) 등 순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60대 이상 고령인구는 532,174명으로 전체 인구의 29.5%를 차지하였다.

○ 전북 남성인구 896,874명 중 10대 이하가 156,605명(17.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50대가 154,888명(17.3%), 40대 138,330명(15.4%), 60대 126,312명(14.1%) 등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고령인구는 전체 중 26.2%를 차지하는 235,377명으로 집계되었다. 907,230명의 여성인구의 연령별 규모를 살펴보면, 10대 이하가 147,050명(16.2%), 50대 144,634명(15.9%), 40대 129,947명(14.3%), 60대 129,517명(14.3%) 등 순이었으며, 32.7%에 차지하는 296,797명이 60대 이상의 노령인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군산시를 연령집단에 의해 인구구성을 살펴본 결과, 267,859명 중 17.8%인 47,781명이 10대 이하로 나타났으며, 50대가 43,964명(16.4%), 40대 43,433명(16.2%), 60대 35,597명(14.0%)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 노인 72,255명은 전체 인구 중 27.0%를 차지하였다. 남성인구 135,332명 중 18.1%인 24,505명은 10대 이하였으며, 50대는 23,039명으로 17.0%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40대는 22,797명으로 16.8%이었다. 60대 이상 남성 노인은 32,649명으로 24.1%를 차지하였다. 여성인구는 132,527명으로 23,276명은 10대 이하 인구로 17.6%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50대는 20,925명(15.8%), 40대 20,636명(15.6%) 등 순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인구는 39,606명으로 29.9%이었다.

○ 익산시의 경우, 전체 인구 282,276명 중 50대가 48,996명(17.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10대 이하가 47,074명(16.7%), 40대 41,935명(14.9%), 60대 40,484명(14.3%)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 연령그룹은 28.2%인 79,602명으로 집계되었다. 남성 140,673명 중 50대 이하가 17.7%인 24,863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10대 이하가 24,068명(17.1%), 40대 21,414명(15.2%), 60대 20,084명(14.3%) 등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은 35,584명으로 전체 익산 남성인구 중 25.2%로 나타났다. 여성인구의 경우, 141,703명 중 50대 여성이 24,133명(17.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0대 이하가 23,006명

(16.2%), 40대 20,521명(14.5%), 60대 20,400명(14.4%) 등 순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여성 노인은 44,018명으로 전체 익산 여성인구의 30.1%에 해당하였다.

○ 연령별 정읍 인구구성을 살펴보면, 50대가 18,394명으로 전체 정읍 인구 108,508명 중 17.0%를 차지하였으며, 60대가 16,923명(15.6%), 10대 이하 16,034명(14.8%), 40대 14,824명(13.7%), 70대 13,403명(12.4%) 등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중 36.7%인 39,785명으로 집계되었다. 남성의 경우, 전체 인구 53,791명 중 50대가 9,898명으로 18.4%를 차지하였으며, 10대 이하는 15.6%(8,397명), 60대 15.6%(8,394명), 40대 14.5%(7,794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인구는 17,138명으로 전체 중 31.9%를 차지하였다. 여성 54,717명의 연령대에 따른 인구구성을 살펴본 결과, 60대가 8,529명으로 전체 여성인구 중 15.6%이었으며, 50대가 8,496명(15.5%), 10대 이하 7,637명(14.0%), 70대 7,626명(13.9%) 등 순으로 나타났다. 41.4%에 해당하는 22,647명은 60세 이상의 여성인구로 집계되었다.

○ 남원시의 경우, 전체 인구 80,662명 중 17.0%를 차지하는 인구는 50대로 그 수는 13,704명이었다. 다음으로 60대가 12,945명(16.0%), 10대 이하 12,342명(15.3%), 40대 10,747명(13.3%)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60세 이상은 전체 인구 중 37.0%인 29,883명으로 집계되었다. 남성은 전체 39,550명 중 50대가 7,309명(18.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60대가 6,457명(16.3%), 10데 이하 6,432명(16.3%), 40대 5,490명(13.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인구 41,102명을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60대가 6,488명으로 15.8%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50대가 6,395명(15.6%), 10대 이하 5,910명(14.4%), 70대 5,695명(13.9%) 등 순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노인인구는 각각 12,809명(32.4%), 17,074명(41.5%)이었으며, 여성의 경우 이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김제시를 살펴보면, 전체 인구 82,450명 중 60대가 14,562명으로 17.7%를 차지하였으며, 50대가 13,704명(16.6%), 60대 11,402명(13.8%), 10대 이하 10,473명(12.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김제 인구의 41.7%가 60세 이상으로, 이는 34,406명으로 집계되었다. 남성 40,844명의 경우, 50대가 7,446명으로 전체 남성인구의 18.2%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60대가 7,294명(17.9%), 80세 이상 6,419명(15.7%), 40대 5,609명(13.7%) 등이었으나, 여성은 전체 41,606명 중 17.4%가 60대로 7,26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50대가 6,258명(15.0%), 80세 이상 5,896명(14.2%) 등으로 나타났다. 김제시 인구의 41.7%를 차지하였던 60세 이상 인구는 남녀 각각 18,696명(45.8%), 15,710명(37.8%)이었으며, 남성 노인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완주군을 살펴보면, 전체 인구 91,609명 중 50대가 15,254명(16.7%)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으며, 10대 이하가 15,222명(16.6%), 60대 13,858명(15.1%), 40대 13.548명(14.8%)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중 29,221명(31.9%)이 60세 이상 인구로 집계되었다. 남성은 전체 47,077명 중 50대가 8,490명으로 18.0%를 차지하였으며, 10대 이하는 7,815명(16.6%), 40대 7,514명(16.0%), 60대 7,184명(15.3%) 등으로 나타났으며 60대가 13,418명으로 전체 인구 중 28.5%에 차지하였다. 반면, 여성의 경우, 10대 이하가 7,407명으로 전체의 16.6%를 차지하였으며 50대 여성이 6,764명(15.2%), 60대 여성 6,674명(15.0%), 40대 6,034명(13.6%) 등 순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은 남녀 각각 13,418명(28.5%), 15,803명(35.5%)이었다.

○ 진안군의 연령대별 인구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인구 25,394명 중 4,855명이 60대로 19.1%를 차지하였다. 50대는 4,516명, 70대 3,829명(15.1%), 10대 이하 2,956명(11.6%)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60대 이상 인구는 11,570명으로 45.6%였다. 전체 인구 중 12,832명인 남성의 경우, 60대 남성이 2,573명으로 20.1%의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50대가 1,965명(19.9%), 40대 1,601명(12.5%), 10대 이하 1,514명(11.8%) 등 순으로 집계되었다. 60세 이상 남성은 전체 인구 중 40.9%로 5,248명이었다. 여성의 경우, 60대가 2,282명(18.2%)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70대 2,067명(16.5%), 50대 1,965명(15.6%), 10대 이하 1,442명(11.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50.3%)가 60세 이상 여성이었다.

○ 무주군은 전체 인구 24,036명 중 18.3%에 해당하는 연령대는 60대였으며, 다음으로 50대가 4,205명(17.5%), 70대 3,380명(14.1%), 10대 이하 3,032명(12.6%) 등이었다. 전체 중 43.4%를 60세 이상이 차지하였다. 남성의 경우, 50대가 2,320명(19.4%)으로 가장 많았으며, 60대가 2,253명(18.8%), 40대 1,598명(13.4%), 10대 이하 1,572명(13.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전체 인구 중 12,077명으로, 60대 여성이 2,139명(1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70대가 1,963명(16.3%), 50대 1,885명(15.6%), 10대 이하 1,460명(12.1%) 등이었다. 60세 이상 남성인구는 4,549

명으로 남성인구의 38.0%를 차지하였으며 여성은 5,893명으로 절반가량(48.8%)의 비율을 보였다.

○ 장수군의 인구구성을 살펴본 결과, 전체 인구는 22,085명이었으며 60대는 4,216명(19.1%), 50대 3,682명(16.7%), 70대 3,136명(14.2%), 10대 이하 2,814명(12.7)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60대 이상 노인은 9,785명으로 44.3%에 해당하였다. 남녀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남성 11,000명은 60대가 2,143명(19.5%), 50대 2,067명(18.8%), 40대 1,464명(13.3%), 10대 이하 1,446명(13.1%) 등, 여성은 60대가 2,073명(18.7%), 70대 1,770명(16.0%), 80세 이상 1,665명(15.0%), 10대 이하 1,368명(13.1%) 등으로 구성되었다. 60세 이상의 남녀인구는 남녀 각각 4,277명(38.9%), 5,508명(49.7%)으로 집계되었다.

○ 임실군의 전체 인구는 27,314명으로 60대 인구는 4,994명으로 18.3%이었으며, 50대는 4,688명(17.2%), 70대 4,298명(15.7%), 80세 이상 3,425명(12.5%) 등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50대와 60대는 각각 2,669명(19.1%)이었으며, 70대가 1,899명(13.6%), 40대 1,736명(12.4%) 등, 여성은 70대가 2,399명(18.0%), 80세 이상 2,334명(17.5%), 60대 2,325명(17.4%), 50대 2,019명(15.1%) 등으로 인구가 구성되었다. 60세 이상 인구는 12,717명으로 전체 인구의 46.6%이었으며, 남녀는 각각 5,659명(40.5%), 7,058명(52.9%)으로 집계되었다.

○ 순창군의 인구는 27,81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60대는 4,832명(17.4%), 50대 4,505명(16.2%), 70대 4,184명(15.0%), 10대 이하 3,740명(13.4%) 등으로 집계되었다. 60대 이상은 12,164명(43.7%)이었다. 남성의 인구구성을 살펴보면, 50대와 60대가 각각 2,454명으로 18.2%로 나타났으며, 10대 이하는 1,927명(14.3%), 40대 1,882명(13.9%) 등 순이었다. 여성은 70대가 2,476명(17.3%), 60대 2,378명(16.6%), 80세 이상 2,161명(15.1%), 50대 2,051명(14.4%) 등으로 집계되었다. 60세 이상 인구는 남녀 각각 5,149명(38.1%), 7,015명(49.1%)이었다.

○ 고창군의 인구는 54,529명으로,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60대가 9,689명(17.8%), 50대 9,068명(16.6%), 70대 8,387명(15.4%), 10대 이상 6,927명(12.7%) 등으로 집계되었다. 60대 이상 노인인구는 24,202명으로 전체 인구의 44.4%이었다. 남녀의 연령

대별 인구구성을 살펴보면, 남성 26,964명 중 50대가 4,935명(18.3%)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60대 4,803명(17.8%), 10대 이하 3,185명(13.9%), 70대 3,609명(13.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60대가 4,886명(17.7%), 70대 4,778명(17.3%), 80세 이상 4,290명(15.6%), 50대 4,133명(15.0%) 등 순으로 집계되었다. 60세 이상 인구는 남녀 각각 10,248명(38.0%), 13,954명(50.6%)이었다.

○ 52,140명으로 집계된 부안군 인구 중 50대가 8,845명(18.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대가 8,845명(17.0%), 70대 7,708명(14.8%), 10대 이하 6,284명(12.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의 43.5%가 60대 인구로 22,658명으로 집계되었다. 남성의 경우, 50대가 18.6%에 해당하는 4,827명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60대가 4,820명(18.6%), 40대 3,443명(13.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60대가 4,809명(18.3%), 70대 4,364명(16.6%), 50대 4,018명(15.3%), 80세 이상 3,672명(14.0%) 등이었다. 남녀의 60대 이상 인구는 각각 9,813명(37.9%), 12,845명(49.0%)으로 나타났다.

[표 2-2] 전북 시·군 연령별·성별 인구구성

(단위: 명)

구분		소계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전북	총인구	1,804,104	303,655	211,464	189,012	268,277	299,522	255,829	170,340	106,005
	남자	896,874	156,605	114,209	97,465	138,330	154,888	126,312	75,155	33,910
	여자	907,230	147,050	97,255	91,547	129,947	144,634	129,517	95,185	72,095
전주	총인구	657,432	125,953	92,971	81,910	107,117	105,997	76,853	44,098	22,533
	남자	323,542	64,891	48,769	41,374	52,475	52,020	36,663	19,611	7,739
	여자	333,890	61,062	44,202	40,536	54,642	53,977	40,190	24,487	14,794
군산	총인구	267,859	47,781	29,721	30,705	43,433	43,964	37,597	22,900	11,758
	남자	135,332	24,505	16,311	16,031	22,797	23,039	18,521	10,316	3,812
	여자	132,527	23,276	13,410	14,674	20,636	20,925	19,076	12,584	7,946
익산	총인구	282,276	47,074	36,202	28,467	41,935	48,996	40,484	24,521	14,597
	남자	140,573	24,068	19,713	14,931	21,414	24,863	20,084	10,945	4,555
	여자	141,703	23,006	16,489	13,536	20,521	24,133	20,400	13,576	10,042
정읍	총인구	108,508	16,034	10,604	8,867	14,824	18,394	16,923	13,403	9,459
	남자	53,791	8,397	5,848	4,716	7,794	9,898	8,394	5,777	2,967

구분		소계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여자	54,717	7,637	4,756	4,151	7,030	8,496	8,529	7,626	6,492
남원	총인구	80,662	12,342	7,569	6,417	10,747	13,704	12,945	9,827	7,111
	남자	39,560	6,432	4,240	3,280	5,490	7,309	6,457	4,132	2,220
	여자	41,102	5,910	3,329	3,137	5,257	6,395	6,488	5,695	4,891
김제	총인구	82,450	10,473	7,231	6,645	9,991	13,704	14,562	11,402	8,442
	남자	40,844	5,393	4,034	3,539	5,609	7,446	7,294	4,983	6,419
	여자	41,606	5,080	3,197	3,106	4,382	6,258	7,268	2,546	5,896
완주	총인구	91,609	15,222	8,956	9,408	13,548	15,254	13,858	9,267	6,096
	남자	47,077	7,815	4,999	4,841	7,514	8,490	7,184	4,286	1,948
	여자	44,532	7,407	3,957	4,567	6,034	6,764	6,674	4,981	4,148
진안	총인구	25,394	2,956	1,969	1,635	2,748	4,516	4,855	3,829	2,886
	남자	12,832	1,514	1,127	791	1,601	2,551	2,573	1,762	913
	여자	12,562	1,442	842	844	1,147	1,965	2,282	2,067	1,973
무주	총인구	24,036	3,032	1,782	1,700	2,875	4,205	4,392	3,380	2,670
	남자	11,959	1,572	986	934	1,598	2,320	2,253	1,417	879
	여자	12,077	1,460	796	766	1,277	1,885	2,139	1,963	1,791
장수	총인구	22,085	2,814	1,669	1,553	2,582	3,682	4,216	3,136	2,433
	남자	11,000	1,446	938	808	1,464	2,067	2,143	1,366	768
	여자	11,085	1,368	731	745	1,118	1,615	2,073	1,770	1,665
임실	총인구	27,314	3,023	2,101	1,941	2,844	4,688	4,994	4,298	3,425
	남자	13,966	1,601	1,235	1,066	1,736	2,669	2,669	1,899	1,091
	여자	13,348	1,422	866	875	1,108	2,019	2,325	2,399	2,334
순창	총인구	27,810	3,740	2,076	2,001	3,324	4,505	4,832	4,184	3,148
	남자	13,520	1,927	1,142	966	1,882	2,454	2,454	1,708	987
	여자	14,290	1,813	934	1,035	1,442	2,051	2,378	2,476	2,161
고창	총인구	54,529	6,927	4,308	3,860	6,164	9,068	9,689	8,387	6,126
	남자	26,964	3,742	2,447	2,079	3,513	4,935	4,803	3,609	1,836
	여자	27,565	3,185	1,861	1,781	2,651	4,133	4,886	4,778	4,290
부안	총인구	52,140	6,284	4,305	3,903	6,145	8,845	9,629	7,708	5,321
	남자	25,914	3,302	2,420	2,109	3,443	4,827	4,820	3,344	1,649
	여자	26,226	2,982	1,885	1,794	2,702	4,018	4,809	4,364	3,672

출처: 행정안전부(2020). 주민등록인구현황

○ 전라북도 읍면동부의 연령대별 인구구성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전북 인구 1,804,140명 중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531,639명으로 29.5%를 차지하고 있다. 동부 거주 인구 1,272,465명(70.5%)의 연령대별 구성을 살펴보면, 10대 이하 인구는 240,835명으로 전체 18.9%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50대가 208,888명(16.4%), 40대 206,890명(16.3%), 20대 169,093명(13.3%), 60대 156,930명(12.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읍면인구는 531,639명 중 18.6%인 98,899명이 60대였으며, 50대가 90,634명(17.0%), 70대 74,866명(14.1%), 10대 이하 62,820명(11.8%), 40대 61,387명(11.5%), 80세 이상 57,555명(10.8) 등 순이었다.

○ 도시와 농촌이 혼재되어 있는 도농복합시인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군산의 경우, 읍면인구는 군산 인구 267,859명 중 13.5%인 36,248명으로, 60대가 7,432명(20.5%), 50대 6,308명(17.4%), 70대 5,416명(14.9%), 40대 4,197명(11.6%) 등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도시인구는 231,611명으로 군산인구의 86.5%이었으며, 10대 이하가 44,209명으로 19.1%를 차지하였으며, 40대가 39,656명(16.9%), 50대 37.656명(16.3%), 60대 30,165명(13.0%) 등 순으로 나타났다.

○ 익산의 인구는 287,276명 중 농촌인구 58,513명(20.7%)과 도시인구 223,763명(79.2%)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촌의 경우, 60대가 12,017명(20.5%), 50대 48,996명(17.5%), 80세 이상 6,313명(10.8%), 40대 6,241명(10.7%), 10대 이하 6,051명(10.3%) 등으로 집계되었다. 도시인구 233,763명 중 18.3%을 차지하고 있는 41,023명은 10대 이하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50대가 38,765명(17.3%), 40대 35,694명(16.0%), 20대 31,300명(14.0%) 등 순이었다.

○ 정읍시의 읍면동부의 인구구성을 살펴본 결과, 전체 인구 108,508명 중 36.4%인 39,531명은 농촌, 63.6%인 68,977명은 도시로 나타났다. 농촌인구 39,531명 중 20.1%인 16,923명은 60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70대는 7,193명(18.2%), 50대 6,837명(17.3%), 80세 이상 5,776명(14.6%) 등 순으로 비중을 보였다. 반면, 도시인구 68,977명 중 10대 이하가 12,910명으로 18.7%의 비율을 보여주었으며, 50대가 11,557명(16.8%), 40대 11,038명(16.0%), 60대 8,994명(13.0%) 등 순으로 나타났다.

○ 남원시의 인구는 80,662명으로 39.7%에 해당하는 32,026명은 농촌인구로서 이 중 20.0%인 6,417명은 60대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50대가 5,723명(17.9%), 70대 5,419명(16.9%), 80세 이상 4,627명(14.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경우, 48,636명(60.3%) 중 10대 이하가 19.2%인 9,32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다음으로 50대가 7,981명(16.4%), 40대 7,712명(15.9%), 60대 6,528명(13.4%) 등 순이었다.

○ 김제시 인구 82,450명 중 농촌인구가 40,404명으로 49.0%를 차지하였으며, 도시인구는 51.0%에 해당하는 42,046명이었다. 농촌인구는 전체의 21.4%가 60대 인구 8,639명이었으며, 70대가 7,233명(18.0%), 50대 6,772명(16.8%), 80세 이상 5,624명(13.9%) 등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인구의 경우, 42,046명 중 17.6%인 7,412명이 10대 이하였으며, 다음으로 50대가 6,932명(16.5%), 40대 6,093명(14.5%), 60대 5,923명(14.1%) 등으로 집계되었다.

[표 2-3] 전북 도농복합시의 연령별 인구구성

(단위: 명)

구분		계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세 이상
전북	계	1,804,104	303,655	211,464	188,438	268,277	299,522	255,829	167,155	105,414
	읍면	531,639	62,820	42,371	38,757	61,387	90,634	98,899	74,866	57,555
	동	1,272,465	240,835	169,093	149,681	206,890	208,888	156,930	92,289	47,859
군산	계	267,859	47,781	29,721	30,705	43,433	43,964	37,597	22,900	11,167
	읍면	36,248	3,572	2,851	2,771	4,197	6,308	7,432	5,416	3,110
	동	231,611	44,209	26,870	27,934	39,236	37,656	30,165	17,484	8,057
익산	계	282,276	47,074	36,202	28,467	41,935	48,996	40,484	21,336	14,597
	읍면	58,513	6,051	4,902	4,157	6,241	10,231	12,017	5,416	6,313
	동	223,763	41,023	31,300	24,310	35,694	38,765	28,467	15,920	8,284
정읍	계	108,508	16,034	10,604	8,867	14,824	18,394	16,923	13,403	9,459
	읍면	39,531	3,124	2,621	2,265	3,786	6,837	7,929	7,193	5,776
	동	68,977	12,910	7,983	6,602	11,038	11,557	8,994	6,210	3,683
남원	계	80,662	12,342	7,569	6,417	10,747	13,704	12,945	9,827	7,111
	읍면	32,026	3,014	2,146	1,645	3,035	5,723	6,417	5,419	4,627
	동	48,636	9,328	5,423	4,772	7,712	7,981	6,528	4,408	2,484
김제	계	82,450	10,473	7,231	6,645	9,991	13,704	14,562	11,402	8,442
	읍면	40,404	3,061	2,685	2,492	3,898	6,772	8,639	7,233	5,624
	동	42,046	7,412	4,546	4,153	6,093	6,932	5,923	4,169	2,818

출처: 행정안전부(2020). 주민등록인구현황

○ 2020년 기준 전북의 합계출산율[3]은 0.909명으로 나타났으며, 출생아 수는 8,165명으로 집계되었다. 모의 연령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20~24세는 8.1명, 25~29세 40.3명, 30~34세 82.4, 35~39세 40.3, 40~44세 6.9명으로 나타났다.

○ 시·군별 합계출산율을 살펴본 결과, 임실이 1.749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순창군이 1.660명, 진안군 1.637명, 장수군 1.279명, 남원군 1.215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보인 지역은 전주시로 0.811명으로 나타났다.

3)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활용되는 지표'이다.(통계청 사전)

○ 출생아 수의 경우, 전주시가 3,207명으로 전체 8,165명 중 39.3%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군산시가 1,296명(15.9%), 익산 1,199명(14.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가 300명 이상인 지역은 정읍시(368명), 남원시(381명), 완주군(396)으로 나타났으며, 200명~300명 미만 지역은 김제시(293명)와 고창군(203명)이 해당한다. 진안군(138명), 임실군(165명), 순창군(166명), 부안군(169명)은 100명~200명 미만이 태어났으며, 무주(89명)와 장수군(95명)은 100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 모의 연령별 출산율을 살펴보면, 시·군 모두 30~34세 출산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 중에서 임실(163.9), 순창(151.3), 진안군(145.8), 남원시(103.0), 장수군(101.4)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지역은 익산으로 72.1이었다.

○ 20~24세의 경우, 가장 높은 지역은 진안군(17.0), 장수군(16.2), 임실군(14.4)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25~29세는 순창군(69.9), 진안군(65.6), 무주군(60.2) 등 순이었다. 가장 낮은 지역은 20~24세의 경우 전주시(5.5), 김제시(5.9), 군산시(9.4), 순창군(9.4) 등이었으며, 25~29세는 전주시(33.3), 정읍시(37.6), 완주군(37.7), 김제시(38.2) 등으로 나타났다.

○ 35~39세는 가장 높은 지역이 임실군(97.3), 순창군(85.6), 진안군(75.5), 무주군(64.7) 등 순이었으며, 낮은 지역은 익산시(36.3), 전주(36.6), 군산시(37.1) 등이 해당한다.

[표 2-4] 전북 시군 출산 현황(합계 출산율, 출생아수, 모의 연령별 출산율)

(단위: 명)

구분	합계 출산율	출생아수	모의 연령별 출산율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전북	0.909	8,165	1.1	8.1	40.3	82.4	40.3	6.9	0.2
전주	0.811	3,207	0.7	5.5	33.3	78.0	36.6	5.7	0.2
군산	0.954	1,296	1.0	9.4	49.2	83.7	37.1	7.4	0.1
익산	0.851	1,199	1.2	8.8	42.3	72.1	36.3	7.1	0.2
정읍	0.866	368	1.6	13.6	37.5	73.2	38.1	7.3	0.0
남원	1.215	381	1.0	13.3	57.8	103.0	57.5	7.4	0.3
김제	0.969	293	1.8	5.7	38.2	90.9	45.8	8.2	0.0
완주	0.923	396	1.5	10.2	37.7	84.3	41.2	7.0	0.0
진안	1.637	138	4.7	17.0	65.6	145.8	75.5	16.6	0.0
무주	1.111	89	4.4	9.5	60.2	81.2	64.7	3.6	0.0
장수	1.279	95	4.7	16.2	59.7	101.4	55.1	12.8	1.6
임실	1.749	165	0.0	14.4	58.4	163.9	97.3	16.0	0.0
순창	1.660	166	0.0	9.4	69.9	151.3	85.6	9.6	0.0
고창	1.145	203	2.7	13.2	52.2	94.4	51.0	11.6	0.6
부안	0.953	169	0.0	11.7	48.5	75.2	43.5	7.8	1.3

출처: 통계청(2020). 인구동향조사

○ 2019년 전라북도 사망자 수는 14,525명이었으며, 인구십만명당 사망률은 799.8명으로 나타났다. 각 시군별로 사망률을 살펴본 결과, 순창군이 1,526.3명으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임실군이 1,446.8명, 무주군 1,400.7명, 진안군 1,365.0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지역은 전주시로 사망률은 519.4명이었다.

[표 2-5] 전북 시군별 사망 현황(사망자, 사망률)

(단위: 명)

구분	사망자	사망률 (십만명당)
전북	14,525	799.8
전주	3,374	519.4
군산	1,925	715.5
익산	2,169	750.5
정읍	1,132	1,026.5
남원	853	1,045.5
김제	996	1,188.4
완주	793	854.7
진안	350	1,365.0
무주	341	1,400.7
장수	299	1,316.0
임실	424	1,446.8
순창	437	1,526.3
고창	730	1,307.6
부안	702	1,314.7

출처: 통계청(2019). 인구동향조사

○ 전라북도 연령별 인구구조(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를 살펴본 결과, 2021년 유소년인구(0~14세)는 205,537명에서 2025년 181,088명, 2030년 157,905명, 2035년 153,367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15~64세) 또한 2021년 1,194,309명에서 2025년 1,125,124명, 2030년 1,004,211명, 2035년 950,173명으로 감소세를 예측하고 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경우, 2021년 381,084명에서 2025년 441,117명, 2030년 516,342명, 2035년 587,264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각 시군별로 살펴보면,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 모두 꾸준히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37년 유소년인구가 10,000명 미만으로 예측되고 있는 지역은 정읍시(7,017명), 남원(5,320명), 김제(4,825명), 완주군(9,305명), 진안군

(1,303명), 무주군(1,332명), 장수군(1,392명), 임실군(1,634명), 순창군(1,909명), 고창군(3,113명), 부안군(2,621명)이었다. 10,000명~50,000명 미만 지역은 군산시(25,018명)와 익산시(22,703명)이었으며, 50,000명이 넘는 지역은 전주시(66,868명)로 나타났다.

○ 생산가능인구의 경우, 2037년 기준 생산가능인구가 10,000명 미만으로 예측되는 지역은 장수군(9,790명)이었으며, 50,000명 미만은 정읍시(47,466명), 남원시(34,916명), 김제시(33,688명), 진안군(10,269명), 무주군(10,172명), 장수군(9,790명), 임실군(11,848명), 순창군(12,314명), 고창군(23,089명), 부안군(20,916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50,000명 이상 지역은 전주시(361,956명), 군산시(140,735명), 익산시(138,223명)로 나타났다.

○ 2037년 각 시군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규모를 예측한 결과, 50,000명 미만 지역은 정읍시(42,497명), 남원시(33,688명), 김제시(34,318명), 완주군(37,790명), 진안군(12,564명), 무주군(11,888명), 장수군(9,790명), 임실군(11,848명), 순창군(12,852명), 고창군(25,220명), 부안군(22,819명)이었으며, 50,000명 이상은 전주시(177,250명), 군산시(86,066명), 익산시(94,374명)로 예상하고 있다.

[표 2-6] 전북 시군별 유소년, 생산가능, 고령인구

(단위: 명)

구분		2021	2025	2030	2035	2037
전북	유소년인구[4]	205,537	181,088	157,905	153,367	154,360
	생산가능인구	1,194,309	1,125,124	1,044,211	950,173	906,698
	고령인구	381,084	441,117	516,342	587,264	616,470
전주	유소년인구	85,996	76,940	67,835	66,198	66,868
	생산가능인구	469,989	445,171	414,744	378,641	361,956
	고령인구	101,186	121,446	146,016	168,371	177,250
군산	유소년인구	33,717	29,680	25,578	24,901	25,018
	생산가능인구	184,553	173,747	162,078	147,667	140,735
	고령인구	49,835	59,542	70,980	81,523	86,066

구분		2021	2025	2030	2035	2037
익산	유소년인구	31,198	26,835	23,287	22,608	22,703
	생산가능인구	195,733	179,494	162,267	145,299	138,223
	고령인구	55,669	65,965	78,646	90,035	94,374
정읍	유소년인구	10,395	8,862	7,295	6,958	7,017
	생산가능인구	65,039	60,608	55,472	49,944	47,466
	고령인구	29,042	32,031	36,356	40,668	42,497
남원	유소년인구	7,750	6,616	5,589	5,309	5,320
	생산가능인구	47,179	44,276	40,702	36,722	34,916
	고령인구	22,272	24,979	28,499	32,131	33,688
김제	유소년인구	6,931	5,910	4,997	4,803	4,825
	생산가능인구	46,023	42,633	38,927	35,156	33,487
	고령인구	25,076	27,310	30,307	33,136	34,318
완주	유소년인구	11,137	10,238	9,512	9,331	9,305
	생산가능인구	61,784	60,500	58,137	53,827	51,517
	고령인구	21,469	25,277	30,522	35,650	37,790
진안	유소년인구	1,826	1,600	1,399	1,317	1,303
	생산가능인구	12,668	12,342	11,690	10,751	10,269
	고령인구	8,192	9,193	10,570	11,974	12,564
무주	유소년인구	1,954	1,668	1,394	1,329	1,332
	생산가능인구	13,030	12,427	11,610	10,628	10,172
	고령인구	7,879	8,824	10,080	11,338	11,888
장수	유소년인구	1,989	1,720	1,422	1,385	1,392
	생산가능인구	12,552	12,055	11,251	10,250	9,790
	고령인구	7,168	8,028	9,142	10,295	10,800
임실	유소년인구	2,255	1,987	1,738	1,647	1,634
	생산가능인구	15,197	14,661	13,587	12,402	11,848
	고령인구	9,516	10,641	12,110	13,674	14,344
순창	유소년인구	2,421	2,138	1,979	1,901	1,909
	생산가능인구	14,394	14,217	13,735	12,827	12,314
	고령인구	9,126	9,867	10,984	12,274	12,852

구분		2021	2025	2030	2035	2037
고창	유소년인구	4,211	3,708	3,181	3,077	3,113
	생산가능인구	28,649	27,330	26,144	24,149	23,089
	고령인구	18,145	19,852	21,982	24,204	25,220
부안	유소년인구	3,757	3,186	2,699	2,603	2,621
	생산가능인구	27,519	25,663	23,867	21,910	20,916
	고령인구	16,509	18,162	20,148	21,991	22,819

출처: 전라북도시군장래인구추계

○ 2021년 전라북도 생산가능인구 1백명당 부양할 인구인 총부양비는 49.1명에서 2037년 85.0명으로 증가를 전망하고 있다. 각 시군별 총부양비의 변화를 예측해본 결과, 전주는 2021년 67.5명에서 39.8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한편, 13개 시군은 총부양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읍시의 경우, 2021년 60.7명에서 2037년 104.3명으로 43.6명 증가하고, 남원은 2021년 63.6명에서 48.1명이 증가한 111,7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제시 69.6명에서 116.9명으로, 진안군 79.1명에서 135.0명으로 각각 47.4명, 55.9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주군은 75.5명, 장수군은 72.8명, 임실군은 77.4명, 순창군은 80.2명, 고창군은 78.0명, 부안군은 73.7명에서 각각 130.0명, 124.5명, 134.9명, 119.9명, 122.7명, 121.6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1년 가장 높은 총부양비를 보인 지역은 순창군으로 80.2명이었으며, 다음으로 진안군이 79.1명, 고창군 78.0명, 임실군 77.4명, 부안군 73.7명, 장수군 72.9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37년의 경우, 진안군이 13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실군 134.9명, 무주군 130.0명, 장수군 124.5명, 고창군 122.7명, 부안군 121.6명 등 순이었다.

○ 전라북도의 고령화로 2021년 노년부양비가 49.0명에서 68.0명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은 노년부양비가 2021년에서 203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37년 노년부양비가 100명 미만 지역은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이었으며, 100명 이상은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은 노년부양비가 향후 16년 간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 유소년인구 0~4세, 생산가능인구 15~64세, 고령인구 65세 이상

○ 전북 고령화지수는 2021년 185.4%에서 2037년 399.4%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의 고령화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21년 고령화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진안군으로서 448.6%이었으며, 다음으로 부안군이 439.4%, 고창군 430.9%, 임실군 422.0%,, 무주군 403.2%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37년의 경우, 진안군이 964.2%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무주군이 892.5%, 임실군 877.8%, 부안군 870.6%, 고창군 810.2% 등 순으로 예측하고 있다. 2037년까지 고령화지수가 2021년 지수의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지역은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등이 해당된다.

[표 2-7] 전북 시군별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단위: 생산연령인구 백명당)

구분		2021	2025	2030	2035	2037
전북	총부양비	49.1	55.3	64.5	77.9	85.0
	유소년부양비	17.2	16.1	15.1	16.1	17.0
	노년부양비	31.9	39.2	49.4	61.8	68.0
	노령화지수	185.4	243.6	372.0	382.9	399.4
전주	총부양비	67.5	62.0	51.6	44.6	39.8
	유소년부양비	18.5	17.5	16.4	17.3	18.3
	노년부양비	49.0	44.5	35.2	27.3	21.5
	노령화지수	265.1	254.3	215.3	157.8	117.7
군산	총부양비	45.3	51.4	59.6	72.1	79.0
	유소년부양비	18.3	17.1	15.8	16.9	17.8
	노년부양비	27.0	34.3	43.8	55.2	61.2
	노령화지수	147.8	200.6	277.5	327.4	344.0
익산	총부양비	44.3	51.8	62.9	77.6	84.7
	유소년부양비	15.9	15.0	14.4	15.6	16.4
	노년부양비	28.4	36.8	48.5	62.0	68.3
	노령화지수	178.4	245.8	337.7	398.2	415.7
정읍	총부양비	60.7	67.4	78.7	95.3	104.3
	유소년부양비	16.0	14.6	13.2	13.9	14.8

구분		2021	2025	2030	2035	2037
	노년부양비	44.7	52.8	65.5	81.4	89.5
	노령화지수	279.4	361.4	498.4	584.5	605.6
남원	총부양비	63.6	71.3	83.7	12.0	111.7
	유소년부양비	16.4	14.9	13.7	14.5	15.2
	노년부양비	47.2	56.4	70.0	87.5	96.5
	노령화지수	287.4	377.6	509.9	605.2	633.2
김제	총부양비	69.6	78.0	90.7	108.0	116.9
	유소년부양비	15.1	13.9	12.8	13.7	14.4
	노년부양비	54.5	64.1	77.9	94.3	102.5
	노령화지수	361.8	462.1	606.5	689.9	711.3
완주	총부양비	52.7	58.7	68.9	83.5	91.5
	유소년부양비	18.0	16.9	16.4	17.3	18.1
	노년부양비	34.7	41.8	52.5	66.2	73.4
	노령화지수	192.8	246.9	320.9	382.1	406.1
진안	총부양비	79.1	87.5	102.4	123.7	135.0
	유소년부양비	14.4	13.0	12.0	12.3	12.7
	노년부양비	64.7	74.5	90.4	111.4	122.3
	노령화지수	448.6	574.6	755.5	909.2	964.2
무주	총부양비	75.5	84.4	98.8	119.2	130.0
	유소년부양비	15.0	13.4	12.0	12.5	13.1
	노년부양비	60.5	71.0	86.8	106.7	116.9
	노령화지수	403.2	529.0	723.1	853.1	892.5
장수	총부양비	72.9	80.9	93.9	113.9	124.5
	유소년부양비	15.8	14.3	12.6	13.3	14.2
	노년부양비	57.1	66.6	81.3	110.3	110.3
	노령화지수	360.4	466.7	642.9	830.2	775.9
임실	총부양비	77.4	86.2	101.9	123.6	134.9
	유소년부양비	14.8	13.6	12.8	13.3	13.8
	노년부양비	62.6	72.6	89.1	110.3	121.1
	노령화지수	422.0	535.5	696.8	830.2	877.8
순창	총부양비	80.2	84.4	94.4	110.5	119.9
	유소년부양비	16.8	15.0	14.4	14.8	15.5

구분		2021	2025	2030	2035	2037
	노년부양비	63.4	69.4	80.0	95.7	104.4
	노령화지수	377.0	461.5	555.0	645.7	673.2
고창	총부양비	78.0	86.2	96.3	112.9	122.7
	유소년부양비	14.7	13.6	12.2	12.7	13.5
	노년부양비	63.3	72.6	84.1	100.2	109.2
	노령화지수	430.9	535.4	691.0	786.6	810.2
부안	총부양비	73.7	83.2	95.7	112.3	121.6
	유소년부양비	13.7	12.4	11.3	11.9	12.5
	노년부양비	60.0	70.8	84.4	100.4	109.1
	노령화지수	439.4	570.1	746.5	844.8	870.6

출처: 전라북도시군장래인구추계

○ 2020년 기준 전라북도 총전입자 규모는 249,083명이었으며, 총전출자는 257,577명으로 순이동은 -8,494명으로 집계되었다. 각 시군별 인구이동 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전출인구에 비해 총전입인구가 많은 지역은 전주시(3,146명), 무주군(8명)이었으며, 그 외 12개 시군은 총전출인구가 총전입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전입과 총전출의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은 익산시로 -4,597명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주시가 3,146명, 군산시 -1,768명, 임실군 -1,344명, 정읍시 -1,132명 등 순으로 집계되었다.

[표 2-8] 전북 시군별 인구이동 현황

(단위: 명)

구분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시·군내	시·군·구내		시·도간	
					전입	전출	전입	전출
전북	249,083	257,577	-8,494	132,951	53,507	53,507	62,625	71,119
전주	107,423	104,277	3,146	64,303	22,167	16,765	20,953	23,209
군산	40,013	41,781	-1,768	25,450	4,708	4,550	9,855	11,781
익산	34,814	39,411	-4,597	19,815	5,699	7,778	9,300	11,818
정읍	13,017	14,149	-1,132	6,997	2,339	2,795	3,681	4,357
남원	10,765	10,952	-187	6,059	1,464	1,630	3,242	3,263
김제	9,078	9,722	-644	3,320	3,523	3,917	2,235	2,485
완주	11,482	11,729	-247	1,442	6,870	7,029	3,170	3,258
진안	2,565	2,698	-133	406	1,251	1,416	908	876
무주	2,142	2,134	8	461	325	395	1,356	1,278
장수	1,914	2,096	-182	382	693	890	839	824
임실	2,789	4,133	-1,344	416	1,399	2,548	974	1,169
순창	2,913	3,265	-352	814	650	829	1,449	1,622
고창	5,005	5,451	-446	1,232	937	1,204	2,836	3,015
부안	5,163	5,779	-616	1,854	1,482	1,761	1,827	2,164

출처: 통계청(2020). 국내인구이동통계

○ 2019년 전라북도의 인구밀도는 225.4km^{2}이었으며, 시군별 인구밀도를 살펴본 결과 전주시가 3,167.0km^{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군산시가 681.0km^2, 익산시 568.0km^2, 정읍시 159.5km^2, 김제시 153.5km^2, 완주군 112.3km^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진안군으로 32.6km^{2}이었다. 100km^{2}미만인 지역은 진안군(32.6km^2), 무주군(38.5km^2), 장수군(42.1km^2), 임실군(48.4km^2), 순창군(57.2km^2), 고창군(91.4km^2)이었다.

[표 2-9] 전북 시군별 인구밀도[5)]

(단위: 명, km^2)

구분	총인구	면적	인구밀도
전북	1,818,917	100,401.3	225.4
전주	654,394	296.0	3,176.0
군산	270,131	396.7	681.0
익산	287,771	506.5	568.0
정읍	110,541	693.0	159.5
남원	81,441	752.2	108.3
김제	83,895	545.9	153.5
완주	92,220	821.1	112.3
진안	25,697	789.1	32.6
무주	24,303	631.8	38.5
장수	22,441	533.2	42.1
임실	28,902	597.2	48.4
순창	28,382	495.8	57.2
고창	55,504	607.5	91.4
부안	53,295	493.2	108.1

○ 2020년 전라북도 가구 수는 755,575가구로, 가구원수별 가구분포를 살펴본 결과, 전체 가구 중 33.8%에 해당하는 255,269가구는 1인가구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0.8%는 2인가구로 233,334가구로 집계되었다. 읍면동을 비교한 결과, 전체 가구 중 읍면은 30.1%인 227,689가구, 동은 69.9%인 527,886가구로 나타났다. 읍면의 가구원수별로 가구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의 37.3%인 84,815가구가 2인가구이였으며, 다음으로 1인가구는 79,751가구로 35.0%를 차지하였다. 동부 전체 가구 527,886가구 중 1인가구가 175,518가구(3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2인가구가 148,519가구(28.1%), 3인가구 99,847가구(18.9%) 등 순으로 나타났다.

○ 시군별로 살펴본 결과, 전북 가구의 35.8%를 차지하고 있는 전주시 270,768가구 중 32.9%인 89,038가구가 1인가구였으며, 다음으로 2인가구 72,892가구(26.9%), 3인가

5) 전라북도(2020). 2020 전라북도 사회조사 보고서.

구 52,630가구(19.4%) 등 순으로 집계되었다. 군산시의 경우, 111,817가구 중 33.4%(37,319가구)가 1인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2인가구로 33,761가구였다. 익산시 또한 119,474가구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구원수는 1인으로 41,275가구(34.5%)이었으며, 다음으로 2인가구는 36,014가구로 30.1%를 차지하였다. 남원시의 가구원수별 가구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33,974가구 중 1인가구는 11,404가구(33.6%), 2인가구는 11,932가구(35.1%) 등 순으로 집계되었다. 완주군은 38,551가구 중 34.8%인 13,39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2인가구가 12,108가구로 31.4%이었다. 임실군의 경우, 전체 12,288가구 중 1인가구는 39.1%인 4,800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인가구는 35.3%인 4,338가구이었다.

○ 반면, 2인가구의 분포가 큰 지역은 정읍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이었다. 정읍시의 경우, 전체 45,970가구 중 2인가구가 35.6%인 16,346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15,563가구(33.9%)가 1인가구로 나타났다. 김제시 34,697가구 중 36.9%에 해당하는 12,810가구가 2인가구였으며, 1인가구는 11,679가구로 33.7%를 차지하였다. 진안군은 10,674가구 중 38.4%가 2인가구로 4,099가구이었으며, 1인가구는 35.0%인 3,735가구였다. 무주군의 경우, 10,469가구 중 37.1%가 2인 가구로 3,886가구로 집계되었으며, 1인가구는 28.8%인 3,748가구로 나타났다. 장수군의 2인가구는 전체 9,383가구 중 37.7%인 3,536가구였으며, 1인가구는 3,231가구(34.4%)로 나타났다. 순창군의 경우, 전체 11,647가구의 37.7%인 4,394가구가 2인가구였으며, 1인가구는 33.8%인 3,938가구이었다. 고창군은 23,512가구 중 8,905가구(37.9%)가 2인가구였으며, 1인가구는 8,326가구(35.4%)로 집계되었다. 마지막으로, 부안군은 전체 22,351가구 중 37.2%인 8,313가구가 2인으로 구성된 가구였으며, 1인가구는 7,815가구(35.0%)로 나타났다.

[표 2-10] 전북 시군별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단위: 가구)

구분		소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전북	계	755,575	255,269	233,334	134,414	96,907	35,651
	읍면	227,689	79,751	84,815	34,567	18,767	9,789
	동	527,886	175,518	148,519	99,847	78,140	25,862
전주		270,768	89,038	72,892	52,630	42,417	13,791
군산		111,817	37,319	33,761	20,654	15,217	4,866
익산		119,474	41,275	36,014	21,293	15,440	5,452
정읍		45,970	15,563	16,346	7,541	4,523	1,997
남원		33,974	11,404	11,932	5,532	3,497	1,609
김제		34,697	11,679	12,810	5,451	3,278	1,479
완주		38,551	13,398	12,108	6,441	4,512	2,092
진안		10,674	3,735	4,099	1,574	788	478
무주		10,469	3,748	3,886	1,556	859	420
장수		9,383	3,231	3,536	1,400	729	487
임실		12,288	4,800	4,338	1,754	894	502
순창		11,647	3,938	4,394	1,733	968	614
고창		23,512	8,326	8,905	3,417	1,888	976
부안		22,351	7,815	8,313	3,438	1,897	888

출처: 통계청(2020). 인구총조사

○ 세대별로 가구구성을 살펴본 결과, 전라북도 전체 755,575가구 중 39.9%인 301,729가구가 2세대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1인가구가 255,269가구(33.8%), 1세대가구 159,410가구(21.1%) 등 순으로 집계되었다. 읍면부의 경우, 1인가구가 전체 227,689가구 중 79,751가구(35.0%)로 가장 많았으며, 2세대가구가 72,559가구(31.9%), 1세대가구 61,130가구(26.8%) 등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 527,886가구 중 2세대가구가 229,170가구(43.4%), 1인가구 175,518가구(33.2%), 1세대가구 98,280가구(18.6%) 등 순이었다.

○ 전주시 270,768가구는 2세대가구 121,740가구(45.0%), 1인가구 89,038가구(32.9%), 1세대가구 47,825가구(17.7%)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산시 111,187가구는 2세대

가구가 45,941가구(41.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1인가구가 37,319(33.4%), 1세대가구 22,756가구(20.4%) 등 순이었다. 익산시의 경우, 전체 119,474가구 중 39.9%인 47,653가구가 2세대가구이며, 41,275가구(34.5%)가 1인가구, 24,560가구(20.6%)가 1세대가구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정읍시 세대구성별 가구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45,970가구 중 36.0%인 16,553가구가 2세대가구이었으며, 다음은 33.9%인 1인가구 15,563가구, 1세대가구 26.6%인 11,345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남원시 33,974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대는 2세대가구로 35.5%에 해당하는 12,075가구이었으며, 다음으로 1인가구 12,404가구(33.6%), 1세대가구 8,541가구(25.1%) 등 순으로 나타났다. 김제시 역시, 전체 34,697가구 중 2세대가구가 11,859가구(34.2%)로 가장 많았으며, 1인가구가 11,679가구(33.7%), 1세대가구 9,115가구(26.3%) 등 순으로 집계되었다. 완주군의 가구구성을 보면, 전체 38,551가구 중 2세대가구가 37.4%인 14,430가구로 집계되었으며, 1인가구는 13,398가구(34.8%), 1세대가구 8,563가구(22.2%) 등 순으로 나타났다.

○ 반면, 진안군의 경우, 전체 10,674가구 중 1인가구 3,735가구가 35.0%를 차지하였으며, 2세대가구 3,172가구가 29.7%, 1세대가구 2,953가구 27.7% 등으로 나타났다. 무주군은 1인가구가 3,748가구(35.8%), 2세대가구 3,187가구(30.4%), 1세대가구 2,857가구(27.2%)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수군을 살펴보면, 전체 9,383가구 중 34.4%인 3,231가구가 1인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세대가구가 2,973가구(31.7%), 1세대가구 2,508가구(26.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임실군 1인가구가 4,800가구로 전체 임실군 12,288가구 중 39.1%를 차지하였으며, 2세대가구는 3,664로 29.8%, 1세대가구가 3,005가구로 24.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순창군 11,647가구 중 1인가구는 3,938가구로 33.8%를 차지하였으며, 2세대가구는 3,762가구(32.3%), 1세대가구 3,070가구(26.4%) 등 순으로 집계되었다. 고창군 전체 23,512가구는 1인가구 8,326가구(35.4%), 2세대가구 7,388가구(31.4%), 1세대가구 6,426가구(27.3%) 등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안군 또한 전체 22,351가구 중 1인가구가 7,815가구(35.0%), 2세대가구 7,332가구(32.8%), 1세대가구 5,886가구(26.3%) 등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1] 전북 읍면동 및 시군별 세대구성별 가구분포

(단위: 가구)

구분		일반 가구원	혈연가구				1인가구	비친족 가구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이상		
전북	계	755,575	159,410	301,729	26,164	215	255,269	12,788
	읍면	227,689	61,130	72,559	9,337	112	79,751	4,800
	동	527,886	98,280	229,170	16,827	103	175,518	7,988
전주		270,768	47,825	121,740	8,637	42	89,038	3,486
군산		111,817	22,756	45,941	3,696	25	37,319	2,080
익산		119,474	24,560	47,653	3,995	30	41,275	1,961
정읍		45,970	11,345	16,553	1,547	13	15,563	949
남원		33,974	8,541	12,075	1,323	20	11,404	611
김제		34,697	9,115	11,859	1,344	12	11,679	688
완주		38,551	8,563	14,430	1,456	14	13,398	690
진안		10,674	2,953	3,172	505	14	3,735	295
무주		10,469	2,857	3,187	424	0	3,748	250
장수		9,383	2,508	2,973	434	0	3,231	233
임실		12,288	3,005	3,664	526	5	4,800	288
순창		11,647	3,070	3,762	624	15	3,938	238
고창		23,512	6,426	7,388	836	7	8,326	529
부안		22,351	5,886	7,332	817	11	7,815	490

출처: 통계청(2020). 인구총조사

2. 농촌주민 삶의 질 정책 현황

가. 농촌 및 농업인·농촌주민 개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는 '농촌'을 '읍·면의 지역' 또는 '읍·면 외의 지역 중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농촌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시의 읍면부와 군 지역의 읍면부로 구분할 수 있으며, 도농복합시는 행정구역상 시(동)와 군(읍면)이 통합된 시로 정의 할 수 있다. 1995년부터 등장한 도농복합시는 도시와 농촌의 장점을 활용하여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고 도농균형발전을 위하여 도시와 농촌을 통합시킨 하나의 행정단위이다(손승호, 2015). 도농통합시는 도시와 농촌의 이질적인 특성을 통합하였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고 이에 대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김은설 외, 2018; 조석주·이재기, 2000). 또한, 인구밀도가 낮은 읍면지역은 행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김은설 외, 2018; 조석주·이재기, 2000).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농촌을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있는 도농통합시'의 읍·면과 군지역의 읍·면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농촌 주민의 삶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 '농업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농어촌주민'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서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본 연구는 '농촌'은 일터뿐만 아니라 삶터, 쉼터, 공동체터임을 강조하며, 생산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농촌을 일상공간으로 하고 있는 '농업인'이 아닌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나. 농업인 및 농촌주민 삶의 질 관련 법령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은 농어업인의 복지 제고, 농어촌의 정주여건 개선, 지역개발 등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04년 3월에 제정되었다. 제5조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 기본계획은 삶의 질 제고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을 위해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안정화 및 작업환경', '농어촌 교육여건', '기초생활여건', '의료여건',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 등 개선, '농어촌 산업 육성', '도·농·어 간 교류확대', '거점지역 육성', '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 등 관련 사항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서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교육여건개선 및 지역개발 정책은 국무총리 소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위원회'에서 총괄 및 조정하며, 이를 위해 개발위원회 설립을 명시하고 있다.

○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건강보험료 지원, 질환 예방·치료 등 지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재활·사회복귀 촉진 및 유족지원, 질환 예방, 극민연금보험료 지원, 영유아 보육비, 아동·청소년(역량강화 및 여가)·여성(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등)·다문화가족 복지증진(안정적인 가족생활영위), 고령 농어업인 생활안정 지원,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실시,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개선, 일자리 창출 기여 단체 지원, 자동차손해배상 지급액 보장 등으로 하고 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 유치원 유아의 교육·보호 지원, 교육(입학금, 수업료, 통학 관련 등), 농업 기초인력 양성, 교직원 확보·배치·우대, 학교 시설·설비 등 지원, 평생교육 지원 등이 해당된다. 정주기반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은 기초생활여건 개발(주택공급 및 개량, 빈집철거 및 정비,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 확보, 도로정비, 대중교통체계 확충, 하수도와 마을하수도 개량·정비 및 시설 확충, 생활폐기물 처리, 석면 해체·제거 및 처리, 도시가스 공급 등), 경관 보전,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존·활용, 농어촌산업 육성, 정보화 촉진, 문화예술 진흥, 문화복지 시설 운영, 도시와의 교류 확대, 교통편의 증진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제44조에서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증진되기 위해 정부가 제정·운영하고 있는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달성·점검을 해야 할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2)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2004년 6월에 제정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은 '농어촌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다. 제7조에 따르면, 5개년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1)농어촌보건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농어촌보건복지의 전달체계, 5) 그 밖에 농어촌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간, 보건진료소, 응급의료체계, 민간의료기간 등 보건의료 기반 조성과 함께, 암검진, 정신보건, 구강보건 등 사업 실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선정, 자활지원시책, 사회복지시설 지원과 영유아, 아동, 노인, 저소득층 노인, 한부모가족 등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농어촌특별세 등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라.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 2005년 5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6]에 따라 5년 단위 법정계획인 '제 1차 농어업인의 삶의 질 증진과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있다. 기본계획은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분야인 보건·복지, 의료, 문화, 교육 등에 대한 종합계획이며,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21개 부처·청이 협업하여 수립되는 범부처 계획이다. 삶의 질 기본계획은 1)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 2) 교육여건 및 기초생활 여건 개선,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산업 육성, 3) 도시와의 교류 확대, 4) 거점지역 육성, 5) 농어촌서비스 기준 관련 사항 등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 2020년에 수립·추진 중인 '제4차 기본계획(2020~2024년)'은 정부의 농정 철학인 '전국민의 삶터·일터·쉼터로서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조성'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도시와의 인구·사회·경제적 불균형의 심화에 따른 농촌의 인력부족, 활력 저하 등이 가져오는 국가의 사회적 비효율과 성장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와 상생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함에 있다.

○ 제4차 기본계획은 각종 인프라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등 도시화 지향 개발정책을 중점으로 둔 1차, 기초생활인프라·복지 기반, 농촌자원 발굴과 가치 창출 등 경제활동 다각화 등을 방향으로 한 2차, 체감도가 높은 맞춤형 복지 확충, 자원 활용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하고자 한 3차와는 달리, 지역 및 대상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정책대상은 귀촌자, 다문화가정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포함하고 있다.

○ 제4차 기본계획은 지역 상관없이 삶의 질 균형이 확보되고 농어촌으로 인구 이동을 이끌 수 있도록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차별 없고 취약계

6) 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층과 취약지역을 위한 지원하는 '주민을 포용하는 자립적 지역사회', 두 번째는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는 '어디서나 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되는 3·5·6 생활권', 마지막으로, 힐링의 공간으로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생명의 터전'이 해당된다.

○ 제4차 기본계획은 4가지 전략을 설정하여, 각 추진전략별 4개의 세부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 첫 번째 추진전략인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의 주요 과제는 의료 공공성 강화, 취약지역 지원 확대, 예방적 건강서비스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여건 개선, 통합 돌봄 인프라 조성과 돌봄 개발 및 확산 등 통합 돌봄시스템 구축, 보육시설 확충 및 지역 맞춤 서비스 제공 등의 보육 친화적 지역사회 육성,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 작업안전 보장, 노령 및 여성농어업인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 내실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돌봄 실천 사회적 농장, 국공립 어린이집, 농지연금 가입,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등을 확대·지원하고 있다.

○ 두 번째로,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은 학생 교육 복지 제고, 서비스 제공 등 농어촌 교육서비스 확충, 성인 문해 교육 활성화 및 평생교육의 내실화 등 평생교육 강화,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 소외지역 지원 강화 등 문화·여가 향유여건 향상, 문화공동체 활성화 및 향토 자원 활용한 생활문화 육성 등 주민 주도형 문화·여가 향유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생들을 위한 초·중·고 통학버스, 원격영상 진로 멘토링 등의 서비스를 확충하며, 성인을 위해 평생교육도시와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여가 향유 여건을 위한 공공·작은도서관 건립과 체육공간 지원, 주민주도형 문화·여가를 위해 생활문화공동체 지원 등을 하고 있다.

○ 다음으로,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정주기반 구축' 추진전략은 교통모델 고도화 및 다양화, 교통안전 확보 등 교통여건 개선, 주거환경 및 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빈집 정비 및 활용 등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통합적 지역개발을 통한 정주기반 내실화, 생활안전 사각지대 해소, 임대주택 조성, ICT 활용 등 인구유입을 위한 정주기반 마련, 폐기물 수거 및 처리 개선, 미세먼지 관리 강화, 지역 환경자원 활

용, 어메니티의 체계적 관리 등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환경·경관 보전의 네 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 기·종점 간 연계 시스템, 고령자 교통안전수칙 방문교육, 시군단위 하수도 보급률, 빈집 정비 건수, 농어촌 복합서비스 거점 구축, 고령자 복지주택 및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재활용 마을 마당 시설, 퇴비 유통 전문 조직 육성 등이 진행되고 있다.

○ 마지막으로,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융복합산업 고도화, 푸드플랜 체계화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기반 다각화, 지역자원 콘텐츠 발굴, 관광 인프라 개선 등 관광 활성화, 청년 취·창업 촉진, 귀농어·귀촌인의 창업·정착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취업·창업 촉진, 농어촌·다문화여성 취업 지원, 농어촌 일손 부족 해소 등 농어촌 여성 취업 지원과 일손 부족 해소 4개의 주요과제를 제시하였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수산식품산업 거점 단지 설립, 관광 방문객 수, 귀농어·귀촌인 창업 컨설팅 지원, 스마트팜 청년 전문인력 육성, 농어촌형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및 농업인력중개·어업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림 2-1]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되는 시행계획과 지자체별 5개년 기본계획의 결과를 점검·평가하기 위한 농촌의 의료·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활동 등 농어촌 서비스기준에 의해 측정되고 있다.

○ 의료·복지는 진료, 응급, 영유아, 노인과 관련하여 시·군 내 민관·공공의료기관을 통해 중요 과목 진료, 응급처치 서비스 기반,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유치원, 저소득 노인가구를 위한 재가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문화는 학습, 교육, 초등학교, 평생교육, 문화를 항목으로 읍·면 내 국공립도서관, 체육관, 수영장, 간이운동장, 농어촌학교, 통학수단, 읍·면내 평생교육 거점시설 및 주민자치센터, 시·군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 및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 등을 측정하고 있다. 정주여건은 생활편의, 주택, 상하수도, 난방, 대중교통, 방범설비, 경찰순찰, 소방출동 등에 중점을 두고, 행정리 내 영농·생활폐기물 처리,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 거주권, 석면 슬레이트 소재 주택지붕 철거·개량, 상하수도 서비스, 읍 지역 도시가스보급, 대중교통과 도서지역의 여객선, 범죄예방 CCTV설치, 범죄취약 지역 탄력 순찰, 소방 출동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은 시·군 내 창업 및 취업을 위한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 지원에 의해 측정되고 있다.

마. 제4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추진되고 있다. 기본계획은 농촌의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돌봄 필요와 도·농간 소득, 복지기반, 의료기반의 차이에 따른 보건복지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4차 기본계획'은 '다함께 누리는 건강한 농어촌'을 비전으로 세 가지 실행전략, '함께 누리는 농어촌: 소득보장', '함께 돌보는 농어촌: 돌봄보장', '건강한 농어촌: 의료보장'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 실행전략인 '함께 누리는 농어촌: 소득보장'은 '소득보장 강화', '일자리 지원', '사회보험 지원', 두 번째 '함께 돌보는 농어촌: 돌봄보장'은 영유아 보육지원, 건강한 아동 육성, 장애인 맞춤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돌봄기반 강화, 세 번째 '건강한 농어촌: 의료보장'은 보건의료 공급체계 강화, 건강기반 마련, 응급의료 강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하고 있다.

○ 첫 번째 과제인 '함께 누리는 농어촌: 소득보장'은 농촌 가구 절반이 위기 대비에 경제적 준비가 미흡하며, 농어촌주민은 복지서비스로 소득지원을 우선적으로 희망하고 있어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농어민 특례를 적용·확대 검토, 저소득층 대상 기초연금액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지원은 청년과 중장년을 위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농촌신활력플러스 등 농어촌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지속적 확대와 귀농귀촌을 지원하며, 노인빈곤 완화와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확대, 저소득층 청장년 자립을 위한 일자리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보험 부문에서 농어업인 대상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 접근성 증진을 위해 지역가입자 대상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 두 번째 '함께 하는 농어촌: 돌봄보장'은 우선적으로 농촌의 열악한 영유아 보육 인프라에 대한 지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농번기 아이돌봄방 등 보육기반을 강화하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 보육료,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게 된다. 아동의 경우, 요보호 아동과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와 아동의 비만예방을 위한 영양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고령노인과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돌봄과 부족한 취미여가활동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및 증개축 기능보장, 치매환자 대상 공공후견인제도 이용 등을 통해 요양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농어촌 맞춤형 노인여가복지서비스 모델, 노인복지관 내 문하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여가를 지원한다. 65세 이상 장애인 인구 및 1인 장애인가구 증가와 경제상태,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등으로 장애인 지원은 행복e음 시스템 개편, 농어촌 적합형 장애인복지관 모델 개발 및 확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확대, 시도 단위 장애인보건의료지원센터와 보건소 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주여성과 아동을 위한 지원으로는 농업종사 희망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농업교육, 농어촌 지역단위 '새로여성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지원, 다문화가족 대상 집합·현장·청소년 교육 등이 있다. 서비스 제공모형개발, 기반시설 확보,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농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과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지정 및 운영을 통해 돌봄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 마지막으로, '건강한 농어촌: 의료보장'은 지역우수병원육성, 공공병원 신·증축 및 기능 보강 등을 통한 지역의료 공급체계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분만취약지 산부

인과 등 필수 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의료인력 양성 및 확충으로 보건의료 인프라를 내실화한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확대와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한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 인프라를 강화하고 농어촌 공공보건기관 설치 및 장비의 현대화를 통한 지역의료시설 접근을 높여 건강관리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지역주민의 응급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역응급의료센터 육성, 시군구별 최소 1개 이상 응급실 운영 등 응급의료자원 구축과 취약지 병원과 거점병원 간 원격협진 지원, 지역맞춤형 응급실 운영을 위한 포괄보조금 비율 인상 등 응급의료자원 운영 지원을 통해 응급의료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앰뷸런스 내 AED(자동심장충격기) 등 장비 보강 및 전문인력 배치 확대, 구급차 미배치 지역에 차량 및 인력 배치 등 응급의료취약지 119 구급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비전	다함께 누리는 건강한 농어촌

실행 전략		
1 함께 누리는 농어촌 : 소득보장		
	소득보장 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농어촌 특례 확대 검토) 기초연금
	일자리 지원	청년, 중장년 : 농촌형 자활사업 및 컨설팅, 농어촌형 일자리 확대, 귀농/귀촌 지원 노인일자리
	사회보험 지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특례 적용
2 함께 돌보는 농어촌 : 돌봄보장		
	영유아 보육지원	보육기반 강화,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육료 지원 등
	건강한 아동 육성	아동보호에 대한 지자체 책임 및 가정내 보호 강화 아동건강증진 (비만예방)
	노인돌봄 강화	노인요양서비스 기반 강화 경로당·복지관 등 여가 지원
	장애인 맞춤지원 강화	농어촌 거주 장애인 대상 맞춤형 서비스 지원 장애인 소득활동 지원 장애인 건강관리서비스 인프라 확충
	다문화가족 사회 통합 지원	농업종사회망 이주여성 대상, 농업직업교육 활성화
	돌봄기반 강화	농어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지정, 운영
3 건강한 농어촌 : 의료보장		
	보건의료 공급체계 강화	필수의료 지원 지역의료시설 현대화 및 인력양성·확충
	건강기반 마련	농어촌 맞춤형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속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응급의료 강화	응급의료자원 구축 및 운영지원 응급의료취약지 접근성 강화

[그림 2-2] 제4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

사.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 농어촌과 도시 간 생활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공공서비스는 부족하고 삶의 질이 낮은 편이다.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시기에 '농어촌 공공서비스 공급 기준' 마련을 위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이에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과 '농어촌영향관리가이드라인'을 도입하였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 영위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의미하며, 2009년 말 8개 부문 31개 항목이 마련되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2010년 7월 '농어촌 삶의 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 이후 2011년 8개 부문 31개 항목을 시작으로 2013년 '안전'과 '경찰순찰' 항목이 추가되어 9개 부문 32개 항목으로 변경되었다.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년~2019년)'은 7개 부문 17개 핵심 항목(중앙부처 관리)과 선택 항목(지자체의 자율적 제정 및 운용)으로 구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가 개편·운영하였다.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0년~2024년)'의 기본 방향을 반영하여 도농간 격차 해소를 위해 개선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교통여건을 반영한 기초생활 인프라 접근성' 측정, '도서관, 체육시설, 생활폐기물' 신설, 광대역 통신망 항목 삭제 등이 변경·보완되었다.

○ 개편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은 4개 부문 19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4개 부문은 '보건의료·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활동'이 해당한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 생활기반시설 확충 기조를 반영하여 도서관, 체육시설, 생활폐기물 3개 항목이 신설되었으며, 생활기반시설에 접근성을 측정 방식으로 적용해 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 농어촌서비스기준항목 중 '보건의료·복지'부문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진료과목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접근성,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 응급장비를 갖추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구급차의 도착시간,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유치원 접근성,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에게 제공되는 재가노인복지서

비스를 반영한다. ‘교육·문화’는 지역여건을 반영한 농어촌 초·중학교 육성, 통학지원 등 초·중등교육, 읍·면내 평생교육 거점시설과 주민자치센터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 시·군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 관련 문화, 작은 도서관을 포함한 국공립도서관 접근성, 체육관, 수영장, 간이운동장 등 체육시설 접근성을 측정한다. ‘정주 여건’은 지역의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과 석면 소재 슬레이트 주택지붕 철거 혹은 개량, 상수도, 하수처리 서비스, 읍 지역 도시가스 공급, 마을 내 대중교통과 도서지역 여객선 운항, 행정리 내 영농·생활 폐기물 수거·처리, 방범용 CCTV설치, 1일 1회 이상 탄력순찰, 소방출동 도착 등 항목별 국가최소기준을 점검한다. 마지막, ‘경제활동’은 시·군내 사업체 창업·취업 관련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 제공 등을 살펴본다.

3. 삶의 질 지표체계

○ 학자 및 관련 기관들에 따라 삶의 질이 다양하게 개념화되면서 삶을 측정하는 지표 또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 1960년대 사회지표운동(Social Indicators Movement)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한 사회 내 구성원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일어나게 되었다. 사회지표는 구성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교·평가 가능할 수 있는 수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사회지표는 사회 가치와 목표를 지향하며, 삶의 질 개념을 포함하는 사회 변동을 측정 가능해야 하며, 사회적 관심을 표현하고 정책 관련 성과를 측정하며, 특정 인구집단의 안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화하고, 시계열적 통계로 표현되어야 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한국의 사회지표는 1979년부터 매년 작성되고 있으며, 2020년 한국의 사회지표는 사회전반을 11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 세부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통계청, 2021). 11개 영역은 '인구', '가구·가족', '건강', '교육·훈련', '노동', '소득·소비·자산', '여가', '주거', '생활환경', '범죄·안전', '사회통합·주관적 웰빙'으로 구성되었다. '인구'는 인구성장과 구조, 출산율 및 사망률, 지역별 인구분포, '가구·가족'은 가구, 가족 형성, 가족 규범, '건강'은 건강상태, 건강행태, 의료체계, '교육·훈련'은 교육환경, 평생교육, 교육성과, '노동'은 경제활동, 취업자, 고용의 질, '소득·소비·자산'은 국민계정, 물가, 가구소득·소비·자산, '여가'는 여가생활과 결과, '주거'는 주택보급, 소득 대비 주거지출, 주거의 질, '생활환경'은 환경상태, 환경관리, '범죄·안전'은 사고, 범죄와 사법정의, 안전인식, '사회통합·주관적 웰빙'은 사회 인식, 연대·포용, 주관적 웰빙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성원의 삶의 질을 측정하였다.

○ 1990년대 이후 OECD는 '경제적 측면'에서 삶의 질에 대한 이해가 '삶의 질과 환경'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2004년 OECD 글로벌 프로젝트가 수행되었다. 2009년 스티클리츠(Stiglitz)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 '경제성과와 사회발전의 측정'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BLI)'이 개발되어 OECD국가의 삶의 질은 측정되기 시작하였다. 2011년에 발간된 'How's Life?'가 발간되면서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정책적 관심이 증가하였다. OECD BLI는 물리적 삶의 조건과 삶의 질로 구분하여 물리적 삶의 조건 차원은 '소득·자산', '일자리·자산', '주거', 삶의 질 차원은 '건강

상태', '일과 가정의 양립', '교육과 기술', '사회적 관계',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환경의 질', '개인적 안전', '주관적 웰빙'을 포함하고 있다(김상민·김현호, 2019).

자료: OECD(2017: 22)

[그림 2-3] OECD 웰빙 프레임웍[7)]

○ 세계보건기구(WHO)는 삶의 질을 '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등과 관련하여 인생에서 자신이 차지하고 있는 상대에 대한 지각'으로 정의하였다(WHO, 1992).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WHOQOL)은 100개, 간편척도(WHOQOL-BREF)는 26개의 주관적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삶의 질 척도는 1) 신체적 측면(고통 및 불편, 에너지와 피곤, 수면, 휴식 등), 2) 심리학적 측면(긍정 정서, 부정 감정, 사고·학습·기억·관심, 자아존중감, 신체 이미지 등), 3) 독립성(움직임, 일상생활활동, 의료·치료 독립성, 직업능력 등), 4) 사회적 관계(개인관계, 사회적지지, 성적 활동 등), 5) 환경(신체적 안전, 가정환경, 경제적 자원, 건강, 정보 습득, 레저활동 참여, 물리적 환경, 교통 등), 6) 정신·종교·개인적 신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국내 삶의 질 지표체계를 살펴보면, 통계청은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자료 활용을 위해 2014년부터 '국민 삶의 질'을 작성하고 있으며, 2020년 삶의 질 지표

7) 김상민·김현호(2019).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는 11개 영역 71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11개 영역은 건강, 고용·임금, 소득·소비·자산, 시민참여, 안전, 환경, 여가, 교육, 가족·공동체, 주거, 주관적 웰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강'은 기대수명, 건강수명, 스트레스 인지율, 주관적 건강상태, 비만율, 신체활동실천율, 자살율 등이 해당되며, '고용 및 임금'은 고용률, 실업률, 월 평균 임금, 근로시간, 일자리만족도 등, '소득·소비·자산'은 1인당 국민 총소득, 가구중위소득, 소득만족도, 상대적 빈곤율, 소비생활만족도 등, '시민참여'는 선거투표율, 정치적 역량감, 부패인식지수, 자원봉사참여율, 대인신뢰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은 사망률, 범죄피해율, 야간보행안전도,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등, '환경'은 미세먼지농도, 상수도보급률, 1인당 도시공원면적, 환경만족도(대기, 수질, 토양환경, 소음, 녹지환경), 기후변화불안도 등이 포함된다. '여가'는 문화여가지출률, 여가시간충분도, 여가시간, 여가생활만족도 등, '교육'은 교육비부담도, 학교교육효과, 유아교육취원율, 고등교육이수율 등, '가족·공동체'는 독거노인비율, 가족관계만족도, 지역사회 소속감, 사회적 고립도 등이 해당된다. '주거'는 자가점유가구비율, 1인당 주거면적, 통근시간, 주거환경만족도 등, '주관적 웰빙'은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 부정정서를 포함하고 있다.

제 3 장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

1. 보건의료 · 복지
2. 교육 · 문화
3. 정주기반
4. 경제활동
5. 소결

제 3 장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8)]

1. 보건의료·복지

가. 진료

○ ‘진료’ 항목은 농촌 시·군 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중요 진료 과목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접근성을 측정한다. 이를 위해 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까지 평균 이동시간을 측정하였으며, 농어촌 차량이동 평균속도(32.2km/h)로 평균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면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전북 내 진료과목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하는 중요과목의 평균 접근 시간이 가장 짧았던 지역은 군산시로 13.5분이었으며, 다음은 익산시가 14.5분, 김제시 16.8분, 정읍시 20.3분, 남원시 20.6분, 완주군 20.7분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군의 평균 시간은 20분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의 평균 접근시간이 각각 45.4분, 37.8분, 36.7분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내과의 경우, 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내과까지 걸리는 시간이 가장 짧은 지역은 익산으로 9.8분으로 나타났으며, 내과 진료 과목의 의료기관의 수는 2020년 기준 34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군산시가 13.0분, 김제시가 14.8분, 장수군이 15.4분, 완주군 15.9분 등 순으로 나타났으나, 무주군의 경우, 평균 시간이 31.4분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 시군별 외과 과목의 진료기관과의 접근성을 살펴본 결과, 익산시 내 6개의 의료기관이 있으며, 평균 접근 시간은 11.5분으로 가장 짧은 이동거리를 보였다. 다음은 8개 외과 의료기관이 있는 군산시가 12.4분, 1개 의료기관이 있는 김제시는 17.1분 등 순으

8)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0). 2020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북지역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결과를 재정리함

로 나타났다. 거주지로부터 30분 이상 이동시간이 필요한 지역은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으로 각각 44.5분, 31.2분, 33.2분이었으며, 장수군과 순창군에는 군 내 외과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거주지로부터 산부인과 의료기관까지 접근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군산시로 15.0분이었으며, 다음으로 김제시가 17.9분, 익산시 18.9분 등 순으로 나타났다.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중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은 평균 접근시간이 각각 62.1분, 45.6분, 51.7분, 38.0분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 시군 주민이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가장 짧은 접근 시간인 13.5분인 군산시는 현재 2020년 13개 의료기관이 있다. 다음으로 김제시가 17.3분, 완주군 17.6분, 익산시 17.8분 등 순이었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지역은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으로 평균 접근 시간은 64.4분, 45.5분, 44.5분이었으며, 해당 의료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전라북도 시군별 의료기관 평균접근시간

(단위: 개, 분)

구분	중요과목 평균	내과 (30분)		외과 (30분)		산부인과 (30분)		소아청소년과 (30분)	
군산시	13.5	25	13.0	8	12.4	7	15.0	12(13)	13.5
익산시	14.5	33(34)	9.8	6	11.5	11(10)	18.9	10(8)	17.8
정읍시	20.3	11(12)	16.3	3	21.7	4	21.6	4(3)	21.3
남원시	20.6	10	17.7	2	20.1	2	24.4	3	20.3
김제시	16.8	9	14.8	1	17.1	2	17.9	3	17.3
완주군	20.7	8	15.9	1	23.9	1	25.3	7(6)	17.6
진안군	25.0	1	24.0	2	24.2	0	26.4	0	25.5
무주군	45.4	2	31.4	3	23.6	0	62.1	0	64.4
장수군	37.8	2	15.4	0	44.5	0	45.6	0	45.5
임실군	36.7	3	19.5	1	31.2	0	51.7	0	44.5
순창군	28.1	4	20.0	0	33.2	0	38.0	0	21.3
고창군	22.9	3	23.5	0	21.3	0	23.5	0	23.5
부안군	22.9	4	22.5	1	22.7	1	23.2	1	23.3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2020년 1분기~4분기)

나. 응급의료

○ ‘응급진료’는 ‘응급 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119 구급대 현장 도착 평균 소요시간’으로 목표시간인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한 지역은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으로, 이주에서 가장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지역은 익산이 13.4분이었다. 농어촌서비스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지역은 장수군과 순창으로 평균 소요시간은 각각 33.2분, 31.8분으로 나타났다.

[표 3-2] 응급의료 항목 이행실태

(단위: 분)

구분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응급의료	13.0	12.4	20.1	19.7	21.1	21.1			33.2		31.8	17.3	21.1

다. 영유아 보육·교육

○ ‘영유아 보육·교육’영역은 국공립·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시설 접근성을 측정하여 농촌서비스기준 이행을 점검·평가하였다. 농어촌 차량 이동 평균속도(32.2km/h)로 거주지에서 보육시설까지 평균 20분 이내 도착할 수 있다면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달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보육시설 평균 접근시간을 살펴보면, 군산시와 익산시가 각각 14.4분으로 가장 짧게 측정되었으며, 다음은 순창군이 14.8분, 김제시와 부안군이 각각 16.4분 등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서비스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지역은 진안군(35.2분), 무주군(36.2분), 장수군(21.0분), 임실군(33.6분), 고창군(20.8분)이 해당된다.

○ 어린이집에 대한 평균 접근시간을 살펴본 결과, 임실군(21.7분)을 제외한 12개 시군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목표 시간 20분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익산시가 8.2분으로 가장 짧은 이동시간으로 측정되었으며, 다음은 순창군이 8.0분, 부안군 9.3분, 군산시 9.7분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지역별 어린이집 수를 살펴보면, 군산시가 206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익산시가 201개, 완주군73개, 정읍시 68개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임실군은 10개로 집계되었다.

○ 유치원의 경우, 군산시(19.2분)와 김제시(19.3분)를 제외한 11개 시군의 평균 접근시간이 목표 시간 20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안군(51.7분), 무주군(59.7분), 임실군(45.6분)은 거주지부터 유치원까지 이동하는데 평균적으로 40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에 대한 평균 접근시간은 어린이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군별 유치원 수를 살펴보면,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한 군산시와 김제시는 2020년 기준 각각 67개, 40개였으며, 달성하지 못한 지역 중 유치원을 가장 적게 보유한 지역은 장수군(8개), 무주군(9개), 진안군(12개), 임실군(14분) 등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접근시간이 40분 이상인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은 각각 9개, 8개, 14개로 집계되었다.

[표 3-3] 시군별 어린이집·유치원 접근거리 및 개소

(단위: 분, 개)

구분	전체평균	어린이집		유치원	
		거리(2020년)	개소(2019년)[9]	거리(2020년)	개소(2020년)[10]
군산시	14.4	9.7	206	19.2	67
익산시	14.4	8.2	201	20.6	77
정읍시	18.8	14.5	68	23.0	39
남원시	16.9	12.2	58	21.5	28
김제시	16.4	13.4	46	19.3	40
완주군	17.8	10.8	73	24.8	37
진안군	35.2	18.8	6	51.7	12
무주군	36.2	12.6	9	59.7	9
장수군	21.0	16.3	7	25.8	8
임실군	33.6	21.7	10	45.6	14
순창군	14.8	8.8	11	20.8	15
고창군	20.8	16.3	25	25.4	22
부안군	16.4	9.3	23	23.5	25

9) 전라북도(2019). 전라북도기본통계.
10) 전라북도(2020). 전라북도기본통계.

라. 노인복지

○ ‘노인복지’는 ‘독립적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저소득층 노인가구에게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 비율’로 측정된다. 해당 노인가구를 6.5%[11]로 추정하고, 각 시군이 최소 6.5%이상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을 확인하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지역은 12.1%인 무주군이었으며, 가장 높은 비율은 18.7%인 임실군이었다.

○ 2019년 기준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시설을 살펴보면, 시군별 총 이용자 수는 가장 적은 지역은 119명인 무주군이었으며, 완주군은 8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첫 번째 유형인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자 현황을 살펴보았다. 방문요양서비스 수혜자 규모를 보면, 완주군이 55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익산시가 292명, 김제시 260명, 정읍시 194명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29명인 무주군과 68명 순창군이었다.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자는 392명인 군산시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익산시가 334명, 고창군이 280명, 부안군 210명 등이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진안군 50명, 김제시와 장수군이 각각 51명, 순창군 52명 등 순이었다. 고창군은 164명이 방문목욕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장수군은 109명, 김제시는 101명이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수를 살펴보면, 익산시가 40개로 가장 많았으며, 군산시가 29개, 완주군 19개, 남원시 16개 등 순이었다.

11) 6.5%=16.6%(재가노인 중 IADL제한)×70%(기초연금수급비율)×55.9%(독거 및 부부동거가구비율)(출처: 2017년 노인실태조사 및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 장래가구추계(2000~2045))

[표 3-4] 노인복지 항목 이행실태 및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현황

(단위: %, 명, 개)

구분	노인복지 (6.5%)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및 시설[12]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유형(이용자)			합계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시설	방문목욕	이용자	시설
군산시	12.8	161	392	43	596	29
익산시	15.2	292	334	-	626	40
정읍시	15.9	194	59	60	313	10
남원시	15.0	147	61	58	266	16
김제시	15.1	260	51	101	412	15
완주군	15.9	558	188	65	811	19
진안군	17.8	133	50	46	229	7
무주군	12.1	29	90	-	119	6
장수군	14.2	185	51	109	345	10
임실군	18.7	151	108	66	325	12
순창군	16.6	68	52	11	131	3
고창군	15.4	164	280	164	608	11
부안군	12.5	140	210	-	350	10

12) 전라북도(2019). 전라북도기본통계.

2. 교육·문화

가.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 부문은 시군 내 초·중학교 접근성으로 농어촌 차량 평균속도(32.2km/h)로 초·중학교까지 도착시간이 평균 10분 이내인 경우 농어촌서비스기준에 충족한다. 시군별 초·중학교 평균 접근시간은 모두 10분 이내로 농어촌서비스기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부터 학교까지 걸리는 시간이 가장 짧은 지역은 5.9분인 부안군이었으며, 다음으로 군산시와 익산시가 각각 6.0분, 고창군과 김제시 각각 6.2분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원시는 10분으로 가장 긴 접근시간으로 측정되었다.

○ 초등학교의 경우,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이동시간은 시군 모두 10분 이내로 나타나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였다. 2020년 기준 각 시군의 초등학교 수는 익산시가 60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군산시가 58개, 김제시 36개, 정읍시 34개 등 순이었으며, 장수군은 8개로 가장 적은 지역이었다. 학생 수를 살펴보면, 군산시는 15,5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익산은 14,602명, 정읍시 4,871명, 완주군 4,718명 등 순이었다. 학생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진안군이 843명, 장수군 914명, 무주군 935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 중학교의 평균 접근시간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정읍시(13.2분), 남원시(14.8분), 장수군(10.5분), 임실군(10.5분)을 제외한 9개 시군은 10분 이내로 측정되었다. 가장 이동시간이 짧은 지역은 8.0분인 익산시였다. 2020년 기준 지역별 중학교 수는 익산시가 26개, 군산시와 정읍시가 각각 19개, 남원시와 고창군 14개 등이었다. 중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7,765명인 익산시이었으며, 다음은 군산시가 7,443명, 정읍시 2,757명, 완주군 2,596명 등 순으로 집계되었다.

[표 3-5] 초·중학교 현황 및 평균 접근시간

(단위: 분, 개, 명)

구분	전체 평균	초등학교			중학교		
		접근시간 (10분)	학교 수[13]	학생 수[14]	접근시간 (10분)	학교 수[15]	학생 수[16]
군산시	6.0	3.6	58	15,515	8.5	19	7,443
익산시	6.0	4.0	60	14,602	8.0	26	7,765
정읍시	9.1	4.9	34	4,871	13.2	19	2,757
남원시	10.0	5.2	27	3,696	14.8	14	1,989
김제시	6.2	4.2	36	3,423	8.1	13	1,720
완주군	7.3	5.2	29	4,718	9.4	13	2,596
진안군	7.5	7.4	13	843	7.5	10	393
무주군	7.6	7.3	10	935	7.9	6	528
장수군	8.6	6.6	8	914	10.5	7	441
임실군	8.4	6.3	15	952	10.5	9	409
순창군	6.9	5.5	15	1,025	8.3	7	622
고창군	6.2	5.1	21	2,018	7.2	14	1,322
부안군	5.9	5.0	22	1,828	6.8	13	1,038

나. 평생교육·문화·도서관·체육시설

○ ‘평생교육’ 영역은 ‘주민센터를 포함하여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읍면 비율[17]’을 측정하며, 「평생교육법」제30조부터 제38조까지 학교 부설, 원격형태,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평생학습관 등 평생교육시설과 동법 제21조의3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등 평생학습센터 시설이 비형식 평생교육 거점시설에 해당된다. 읍면 비율이 70% 이상이면 농어촌서비스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

13) 전라북도(2020). 전라북도기본통계.
14) 전라북도(2020). 전라북도기본통계.
15) 전라북도(2020). 전라북도기본통계.
16) 전라북도(2020). 전라북도기본통계.
17)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이 있는 읍·면 수/ 총 읍·면 수)×100

고 있다. 전북 13개 시군의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군산시(27.3%)와 정읍시(13.3%)를 제외한 11개 시군의 평생교육 영역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 부문은 '시군 내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시설 접근성'을 측정하였다. 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문화시설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평균 40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지역은 13개 모든 시군이 해당되어 농어촌서비스기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짧은 접근시간의 지역은 18.3분으로 군산시였으며, 다음은 김제시가 18.8분, 완주군 19.1분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동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지역은 32.3분인 무주군, 임실군 25.7분, 진안군 25.4, 장수군 25.2분 등 순이었다.

○ '도서관'은 시군 내 작은 도서관을 포함한 국공립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한 접근성을 측정하였으며, 거주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설까지 이동시간이 10분 이내인 지역은 군산시(5.9분), 익산시(7.5분), 남원시(7.9분), 김제시(8.4분), 완주군(8.6분), 장수군(8.7분), 부안군(9.7분)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충족하였다. 정읍시(10.5분), 진안군(12.5분), 무주군(18.9분), 임실군(10.5분), 순창군(12.2분), 고창군(11.8분)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지역이었다.

○ '체육시설'은 시군 내 체육관, 수영장, 간이운동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거주지로부터 걸리는 시간을 살펴보면, 13개 시군의 농어촌서비스기순 30분 이내로 측정되었다. 접근거리가 가장 가까운 지역은 10.8분인 장수군이었으며, 상대적으로 거주지부터 먼 거리에 체육시설이 있는 지역은 22.5분인 임실군이었다.

[표 3-6] 평생교육·문화·도서관·체육시설 현황 및 이행실태

(단위: %, 분, 개)

구분	평생교육 (70%)	문화 (40분)	도서관		체육시설	
			접근시간 (10분)	도서관 수[18]	접근시간 (30분)	체육시설 수[19]
군산시	27.3	18.3	5.9	32	13.2	55
익산시	100.0	20.6	7.5	27	17.4	98
정읍시	13.3	22.7	10.5	19	13.1	87
남원시	100.0	21.1	7.9	15	17.4	72
김제시	100.0	18.8	8.4	13	17.3	113
완주군	100.0	19.1	8.6	15	19.3	64
진안군	100.0	25.4	12.5	7	12.5	69
무주군	100.0	32.3	13.9	6	12.2	44
장수군	100.0	25.2	8.7	7	10.8	34
임실군	100.0	25.7	10.5	9	22.5	22
순창군	100.0	20.8	12.2	5	19.6	41
고창군	71.4	24.7	11.8	8	11.8	75
부안군	100.0	22.7	9.7	5	22.0	82

18)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포함(전라북도(2020). 전라북도기본통계; 공공데이터포털 작은도서관 현황(2020))
19) 전라북도(2019). 전라북도기본통계.

3. 정주기반

가. 생활폐기물 및 주택

○ ‘마을 내 생활폐기물’은 ‘영농과 생활폐기물 처리장을 갖추고 있는 행정리’ 비율을 측정하였다. 영농폐기물의 경우, 진안군, 무주군, 순창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은 농어촌서비스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은 0.0%로 측정되었다. 생활폐기물은 김제시를 제외하고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완주군이 0.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 ‘주택’ 영역은 ‘주민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는지, 석면 소재 슬레이트 주택지붕 철거 또는 개량’을 살펴보기 위해 슬레이트 주택 철거 비율[20]을 측정하였다. 시군별 석면 소재 슬레이트 주택 철거 비율을 살펴보면, 시군 모두 농어촌서비스기준 23% 이하를 보이며 달성하지 못하였다.

20) {(2014년 슬레이트 주택 수-2020 슬레이트 주택 수)/ 2014 슬레이트 주택수}×100

[표 3-7] 생활폐기물 및 주택 이행실태

(단위: %)

구분	생활폐기물(마을 내)		주택	
	영농(100%)	생활(100%)	최저가기준	슬레이트(23%)
군산시	0.0	0.3	-	8.7
익산시	33.3	1.5	-	8.5
정읍시	4.0	2.2	-	6.3
남원시	81.3	6.7	-	9.7
김제시	0.0	100.0	-	6.5
완주군	0.0	0.2	-	9.8
진안군	100.0	88.9	-	6.4
무주군	100.0	20.7	-	8.1
장수군	85.7	5.7	-	9.3
임실군	83.3	5.4	-	5.6
순창군	100.0	34.5	-	6.9
고창군	50.0	9.9	-	4.5
부안군	0.0	2.7	-	5.1

나. 상하수도 및 난방

○ ‘상수도’는 ‘상수도를 통해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시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면 지역 전체 인구 중 광역 및 지방 상수도 급수 인구 비율’[21]로 점검·평가하였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85%이상으로, 남원시(79.5%), 완주군(67.6%), 진안군(75.2%), 무주군(70.2%), 순창군(70.1%)이 농어촌서비스기준에 충족하지 못했으며, 달성한 지역은 군산시(91.8%), 익산시(96.4%), 정읍시(96.2%), 김제시(99.9%), 임실군(86.9%), 고창군(99.4%), 부안군(99.8%)이었다.

○ ‘하수도’는 ‘농어촌 지역의 하수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군 지역 전체 인구 중 공공하수처리 인구수 비율[22]’을 측정하였다. 하수도 보급률이 76%를 달성한 지역은 완주군(84.3%), 진안군(77.5%), 장수군(82.9%)이었으나 76%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무주군(75.8%), 임실군(63.5%), 순창군(54.4%), 고창군(67.0%), 부안군(70.9%)이었다.

○ ‘난방’ 영역은 ‘읍 지역 내 도시가스 보급률[23]과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의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 가구비율[24]’을 측정하였다. 도시가스 보급률 68%이상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충족한 지역은 완주군(70.8%), 순창군(72.4%), 고창군(74.6%)이 해당되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70.8%인 완주군에서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마을의 LPG소형저장탱크 공급 가구 비율은 1.35%로 나타났다. 순창군의 경우, 가구 비율이 0.48%이었으며, 고창군은 0.00%로 측정되었다. 30.3%의 도시가스 보급률로 측정된 진안군의 LPG소형저장탱크 공급 가구 비율은 0.00%이었다.

21) (시군별 면지역 광역 및 지방 상수도 급수 인구수/시군별 명 지역 주민등록인구수)×100
22) (군 지역 공공하수처리 인구수/군 지역 총 인구수)×100
23) (읍 지역 내 도시가스 보급 가구 수/읍 지역 전체 가구 수)×100
24) {소형 LPG저장탱크 보급 가구 수/(읍·면 지역 총 가구 수-읍·면 지역 지역 도시가스 보급가구 수)}×100

[표 3-8] 상하수도 및 난방 이행실태

(단위: %)

구분	상수도 (85%)	하수도 (군지역, 76%)	난방	
			도시가스 (68%)	소형 LPG
군산시	91.8	-	3.3	0.0
익산시	96.4	-	0.0	0.21
정읍시	96.2	-	0.0	0.00
남원시	79.5	-	0.0	0.00
김제시	99.9	-	0.0	0.0
완주군	67.6	84.3	70.8	1.35
진안군	75.2	77.5	30.3	0.00
무주군	70.2	75.8	57.1	0.11
장수군	84.1	82.9	0.0	1.90
임실군	86.9	63.5	57.3	0.31
순창군	70.1	54.4	72.4	0.48
고창군	99.4	67.0	74.6	0.00
부안군	99.8	70.9	54.0	0.35

다. 대중교통 및 안전

○ ‘마을 내에서 하루 3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대중교통’영역은 행정리별 버스 운행 횟수와 마을 내 3회 이상 이용가능한 대중교통을 파악한다.[25] 100%를 농어촌서비스기준 목표치에 달성한 것으로 보았다. 시군 전체 법정리 중 1일 3회 이상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마을의 비율이 모두 100%에 미달되었다. 13개 시·군 중 이행률이 높은 지역은 97.8%인 남원시와 부안군, 진안군(96.1%), 무주군(95.8%), 정읍시(95.8%) 등 순이었으며, 완주군은 68.9%로 7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 (하루 버스 운행 3회 이상인 법정리 수/총 법정리수)×100

○ ‘마을의 범죄 예방을 위해 주요지점과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 행정리 비율[26]로 ‘방범설비’를 점검·평가하였으며, 충족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은 60%에 해당한다. 점검한 결과, 군산시(17.8%)와 정읍시(25.2%)를 제외한 11개 시군의 전체 행정리 중 방범용 CCTV 설치 행정리의 비율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인 60%를 달성하였다.

○ ‘경찰순찰’ 영역은 ‘주민이 요청하는 순찰 시간 및 장소에 대해 1일 1회 이상 탄력 순찰’을 실시하는 지역 수의 평균[27]을 계산하여 점검·평가하였다. 13개 시·군 중 경찰순찰 목표치 100%를 달성한 지역이 없었으며, 특히 무주군(40.9%), 순창군(29.1%), 고창군(30.1%)은 50% 미만 지역으로 나타났다.

○ ‘소방출동’은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시·군 행정리별 설정된 목표시간 내 도착하는지[28]’를 통해 점검하였다. 지역별 목표시간은 기준거리 2.5km에 7분 도착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초과 시 0.5km 당 1분씩 추가한다. 농어촌 시·군 내 소방 출동 시 지역별 목표시간 내 도착한 소방출동 비율의 목표치 70%를 13개 시·군 모두 충족하였다.

26) (방법용 CCTV 설치 행정리 수/총 행정리 수)×100
27) (탄력순찰 실시 지역 수/탄력순찰 대상 지역 수)×100
28) (지역별 목표시간 내 도착 건수/총 출동 건수)×100

[표 3-9] 대중교통 및 안전 이행실태

(단위: %)

구분	대중교통(100%)	방범설치(60%)	경찰순찰(100%)	소방출동(70%)
군산시	88.7	17.8	50.8	73.5
익산시	93.3	89.2	60.0	84.7
정읍시	95.8	25.2	60.3	92.3
남원시	97.8	97.1	71.7	81.9
김제시	82.7	100.0	66.3	85.9
완주군	68.9	95.9	55.2	75.2
진안군	96.1	100.0	66.0	78.6
무주군	95.8	100.0	40.9	75.6
장수군	87.7	100.0	51.8	78.3
임실군	86.3	100.0	77.0	82.1
순창군	89.3	100.0	29.1	79.2
고창군	93.1	82.8	30.1	89.2
부안군	97.8	88.5	65.5	77.9

4. 경제활동

○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은 ‘시·군 내 창업과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영역으로, 시·군 내 창업 및 사업체 운영, 취업 관련 전문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파악한다.

○ 시·군 내 창업 및 사업체 운영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지원센터 등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은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반면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은 지원센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

○ 일자리센터 등을 포함한 취업상담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을 살펴보면, 임실군과 고창군을 제외한 11개 시·군이 해당된다.

○ 지역 내 배치된 취업과 창업 관련 전문 상담인력 수를 살펴보면, 임실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은 1명 이상 전문인력(전담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고창군이 7명으로 고용된 전문인력 수가 많은 지역이었으며, 무주군(5명), 장수군(5명), 익산시(4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 창업 및 사업체 운영, 취업 관련 전문프로그램이 연간 운영된 횟수는 무주군이 30회로 나타났으며, 진안군이 10회, 부안군 9회, 김제시 8회 등이 운영되었다. 반면, 정읍시, 임실군, 고창군은 2020년 전문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았다.

[표 3-10] 경제활동 부문 이행실태

(단위: 개, 명, 회)

구분	시·군 내 창업보육지원센터 등 창업 및 사업체 운영을 위한 지원센터 유무	시·군 내 일자리센터 등 취업상담을 위한 지원센터 유무	시·군 내 창업 및 사업체 운영, 취어상담을 위한 전문인력(전담인력) 고용 여부	연1회 이상 시·군 내 창업, 사업체 운영, 취업 관련 전문프로그램 운영 여부
군산시	1	1	2	1
익산시	1	1	4	5
정읍시	1	1	1	0
남원시	1	1	2	3
김제시	1	1	1	8
완주군	1	1	2	1
진안군	0	1	2	10
무주군	0	1	5	30
장수군	0	1	5	7
임실군	0	0	0	0
순창군	0	1	1	5
고창군	0	0	7	0
부안군	0	1	2	9

5. 소결

○ 도시와 농어촌 간 생활여건 격차를 줄이고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5조와 제6조에 근거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면서,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촌 공공서비스 확충에 노력해왔다.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시점에 도입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주민의 일상생활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지정하여 항목별 목표치를 설정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제4차 기본계획으로 전환되면서 4개 영역(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로 구성되었다.

○ 2020년 전라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복지영역의 4개의 부문인 진료, 응급의료, 영유아보육·교육, 노인복지의 목표치 달성을 살펴보았다. 진료 항목의 경우, 전북 농어촌지역 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중요 진료과목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측정한 결과, 농어촌 차량이동 평균속도인 32.2km/h로 목표치인 평균 30분 이내 도착할 수 있는 지역은 동과 읍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도농복합시인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였다. 중요과목 평균 접근 시간이 30분 초과되는 지역은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이었으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로 구분했을 때,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중요과목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의 접근성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세 지역 중 내과를 제외하고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모두 기준에 달성하지 못한 지역은 장수군과 임실군으로 나타났으며, 장수군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임실군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지역 내 존재하지 않았다. 무주군의 경우, 내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모두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이행하지 못했으며,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외과와 산부인과가 없는 순창군은 거주지로부터 이들 의료기관에 접근하는데 30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도농복합시와 달리 8개 군 지역은 외과가 없는 지역이 3개, 산부인과는 6개, 소아청소년과는 6개로 나타나 양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30분 이내 응급진료가 가능한 지역은 도농복합시와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이 해당되었으며, 장수군

과 순창군은 농어촌서비스기준에 충족하지 못했다. 전체 전북 농어촌지역에서 목표시간 내 중요과목과 응급진료가 가능하지 않은 지역은 도농복합시의 농어촌지역을 제외한 군지역의 농어촌이었으며, 이들 지역 중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은 중요과목의 의료기관가 존재하지 않거나 적어 보건·의료 취약지역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은 보육시설 접근성과 관련하여, 평균 20분 이내 보육시설(국공립·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 도착할 수 없는 지역은 도농복합시, 완주군, 순창군, 부안군을 제외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고창군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유소년인구(0~14세)가 5,000명 미만이었으며, 출생아수가 200명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경우, 2020년 기준 어린이집의 접근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지역은 임실군이었으며, 임실군을 제외한 12개 지역은 15분 내외로 거주지로부터 어린이집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시간이 20분 이내인 유치원의 경우, 군산시와 김제시를 제외한 11개 시군은 유치원에 대한 서비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유치원까지 최대 접근 시간은 59.7분으로 나타났으며, 50분이 초과되는 진안군과 무주군은 13개의 시군 중 인구밀도가 40미만인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소년인구 2,000명 이하 지역이었다. 낮은 출산율에 따른 영유아인구의 감소는 보육시설의 감소를 야기하며, 이로 인한 보육서비스의 질 또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인구밀도와 출산율이 낮은 지역의 영유아를 위한 보육과 교육의 질 유지 및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제한이 있는 저소득층 노인가구에게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 비율'로 측정되는 노인복지는 최소 서비스 제공 비율인 6.5%를 13개의 시군 모두 초과하며, 서비스기준을 충족하였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농어촌의 고령인구 규모를 고려해 볼 때, 서비스 대상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어촌 내 노인 재가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할 것으로 보이며, 더욱더 증가할 필요가 있다.

○ 다음으로, 초·중등교육, 평생교육, 문화, 도서관, 체육시설 항목으로 구성된 교육·문화 영역을 살펴보았다. 거주지로부터 초·중등학교까지 도착시간이 평균 10분 이내인 지역은 13개의 시군 모두 해당되어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3개의 시군의 초등학교에 대한 접근시간 모두 10분 이내로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도농복합시의 평균 접근시간은 5분 내외로 나타났으나, 군 지역의 시간은 5분 이상으로 나타나,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간의 편차가 존재하였다. 중학교의 경우, 도농복합시인

정읍시와 남원시, 군 지역의 장수군과 임실군이 중학교 평균 접근시간이 10분을 초과하면서 서비스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교육 취약지역인 이들 지역의 초·중등교육의 질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평생교육 영역은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읍면 비율로서, 농어촌주민인 거주 지역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 읍면 비율이 최소 70%인 서비스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은 군산시와 정읍시로 나타났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읍면 수가 적은 군산시와 정읍시의 농어촌주민을 위해 자기개발 및 여가·문화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 및 센터의 확대를 위한 정책적 요구가 필요하다. 문화프로그램과 전문공연프로그램 운영하는 문화시설까지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40분 이내인 지역은 13개의 시군 모두 해당되어, 전라북도 농어촌은 문화시설의 서비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내 작은도서관을 포함하여 국공립도서관에 도달할 수 있는 평균 시간이 10분을 초과하는 지역은 도농복합시 중 정읍시와 군 지역 중 5개 지역인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이 해당된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수 또는 위치에 따라 도서관의 서비스기준 충족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도농복합시보다 군 지역이 도서관 이용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농어촌주민의 생활 체육 수요 충족을 위한 지역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간이운동장 등)까지 도착시간은 평균 30분 이내로 모든 시군이 체육시설의 접근성에 대한 서비스기준을 달성하였다. 인구밀도가 낮은 군 지역은 도농복합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문화 기회가 부족하며,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다. 교육과 문화시설의 정량적 보급률이 높더라도 질적인 기준 충족은 확보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

○ 셋째, 생활폐기물 및 주택, 상하수도 및 난방, 대중교통 및 안전의 서비스기준 달성 여부 확인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을 살펴보았다. 마을 내 영농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처리장을 갖춘 행정리 비율을 측정했을 때, 영농폐기물은 진안군, 무주군, 순창군, 생활폐기물은 김제시를 제외하고 서비스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택 지붕의 철거 및 개량률 또한 서비스기준을 이행하지 못해 생활폐기물과 주택의 서비스기준 미달은 환경오염 유발, 농촌 경관 훼손, 건강 악화 등의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주민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고 어디에서나 하수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하수도

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살펴보면, 상수도는 도농복합시 중 남원시, 군 지역 중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하수도는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이 이행하지 못했다.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상하수도 서비스 격차가 지속되고 있어 정주환경 기반시설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며, 상하수도시설의 확장을 통해 환경과 주민 건강 보호가 요구된다.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의 차이를 통해 군 지역 내 공공서비스의 취약지역 발생하고 있어 사각지대 발굴과 도농복합시와 차별화된 공급 기준이나 방식이 요구된다. 마을 내 대중교통 운행 횟수,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을 위한 방범설치, 경찰순찰, 소방출동을 살펴보았다. 마을 내에서 하루 3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서비스기준(100%)을 충족한 시군은 없었지만, 68.9%인 완주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은 85%가 넘어 교통여건은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대중교통 서비스 격차가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가 운전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준대중교통 프로그램 등과 같은 보완방안이 필요하다. 마을의 범죄예방을 위해 마을의 주요지점과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 행정리 비율을 살펴보면, 방범설비 목표치인 60%를 달성하지 못한 지역은 도농복합시인 군산시와 정읍시가 해당된다. 군 지역의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설비는 양호한 편이나 도농복합시 내 지역 간 편차가 존재하고 있어 지역별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정책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탄력순찰 제공 여부를 통해 경찰순찰의 서비스기준 100%를 달성한 시군은 존재하지 않았다. 지역 간의 경찰순찰 서비스기준 이행실태가 다양해 지역별로 긴급 신고나 순찰 소요 시간이 길어져 농어촌주민이 불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목표시간 내에 소방차가 도착하는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목표치인 70%를 미달한 지역은 없었다. 서비스기준 달성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은 지역별 소방출동 서비스 질의 격차가 존재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보완방안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경제·일자리 분야는 시군 내 창업 및 사업체 운영, 취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여부 파악을 통해 진행되었다. 시군 내 창업보육지원센터 등 창업 및 사업체 운영을 위한 지원센터 유무를 살펴보면, 도농복합시와 완주군에 지원센터가 설치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시군 내 취업상담을 위한 지원센터는 임실군과 고창군을 제외한 11개의 시군에 있다. 시군 내 취·창업 상담을 위한 전문인력 또는 전담인력은 임실군을 제외

한 모든 시군에 고용·배치되어 있었으며, 지역 간 고용 인력의 규모는 차이가 있었다. 연간 창업 및 사업체 운영, 취업 관련 전문프로그램이 1회 이상 운영되는 지역은 정읍시와 임실군, 고창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해당되며, 운영 횟수는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군의 경우, 연 30회가 운영되었다. 경제·일자리 부문이 취약한 정읍시와 임실군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군 맞춤형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 전라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현황을 통해 각 영역별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주민을 위한 기초생활 서비스 공급 및 방식과 인프라 확충 및 운영을 위하여 지역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 기준이 필요가 있다. 또한,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생활서비스 여건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수준이 미흡한 취약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주민의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목표치 달성은 농어촌주민이 누려야할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객관적 자료로 검토될 수 있다.

제4장

전북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

1. 조사개요
2. 농촌주민의 삶의 만족도
3. 보건의료 · 복지
4. 교육 · 문화
5. 정주기반
6. 경제 · 일자리
7. 공동체
8.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전북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

1. 조사개요

○ 전라북도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9년과 2020년 전라북도에서 수행한 '전라북도 사회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하였다. '2019년 전라북도 사회조사'는 '교육', '보건·의료', '주거·교통', '환경', '여가·문화', '안전' 부문 실태를 조사하였으며, '2020년 전라북도 사회조사'는 '인구', '가구·가족', '소득·소비', '고용·노사', '복지', '사회참여' 부문을 살펴보았다.

○ '2019년 전라북도 사회조사'와 '2020년 전라북도 사회조사'는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의 910개 조사구 13,515가구(조사구당 15가구)의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 대상으로 각각 실시하였다. 2019년 '전라북도 사회조사'는 2019년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2020년 '전라북도 사회조사'는 2020년 8월 19일부터 9월 7일까지 이루어졌다.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시·군별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주민을 표본 추출한 해당 분석대상자는 2019년은 13,793명, 2020년 13,444명이었다.

○ 전라북도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9년 전라북도 사회조사'와 '2020년 전라북도 사회조사'의 조사대상자 중 읍·면이 존재하지 않는 전주시와 그 외 5개의 시 동부를 제외한 13개 시·군의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019년과 2020년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각각 〈표 4-1〉과 〈표 4-2〉와 같다.

○ 전라북도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규모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13,793명, 2020년은 13,444명으로 집계되었다. 2019년과 2020년 도농복합시 중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의 분포를 살펴보면, 군산시는 502명(2.7%), 459명(2.5%)이었으며, 익산시는 574명(3.1%), 562명(3.0%), 정읍시는 743명(3.9%), 711명(3.9%), 남원은 705명(3.7%), 642명(3.5%), 김제는 907명(4.8%), 890명(4.8%)으로 나타났다. 완주군의 경우, 2019년과 2020년은 각각 1,178명(6.3%), 1,176명(6.4%), 진안군은 1,325명

(7.0%), 1,307명(7.1%), 무주군 1,350명(7.2%), 1,307명(7.1%), 장수군 1,361명(7.2%), 1,370명(7.4%), 임실군 1,264명(6.7%), 1,305명(7.1%), 순창군 1,299명(6.9%), 1,256명(6.8%), 고창군 1,294명(6.9%), 1,249명(6.8%), 부안군 1,291명(6.9%), 1,191명(6.5%)으로 집계되었다.

○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2019년 남성은 전체 13,793명 중 6,261명으로 45.4%를 차지하였으며, 여성은 7,532명(54.6%)이었다. 2020년은 13,444명 중 남성은 6,078명(45.2%), 여성은 7,366명(54.8%)으로 전북 농촌 주민의 절반 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연령그룹으로 살펴보면, 39세 이하 주민은 2019년 12,68명(9.2%), 2020년 1,295명(9.6%)으로 나타났으며, 40대는 각각 1,294명(9.4%), 1,378명(10.2%)으로 집계되었다. 50대의 경우, 2019년과 2020년은 2,373명(17.2%), 2,197명(16.3%)이었으며, 60대는 3,205명(23.2%), 3,189명(23.7%), 70대 3,459명(25.1%), 3,220명(24.0%), 80세 이상 2,194명(15.9%), 2,165명(16.1%)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농촌 주민 중 2019년과 2020년 모두 70대(23.2%, 23.7%)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60대, 50대, 80세 이상 등 순으로 나타나,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은 전체 주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혼인상태의 경우, 기혼자(동거 포함)는 2019년과 2020년 전체 인구 중 73.6%(9,039명)와 65.2%(8,759명)를 차지하였으며, 사별은 21.9%인 3,024명, 21.7% 2,920명으로 집계되었다. 농촌주민의 교육수준을 살펴보았다. 초졸이 2019년과 2020년 모두 28.9%(3,988명), 26.9%(3,611명)로 가장 큰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은 고졸이 각각 24.1%(3,324명), 24.9%(3,341명)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소득은 2019년과 2020년 모두 50만원~100만원 미만이 3,318명(24.1%), 2,181명(16.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3,244명(23.5%), 1,768명(13.3%)으로 나타났다. 가구세대 유형을 보면 1세대 가구는 2019년 6,441가구(46.7%), 2020년 3,114가구(23.2%)이었으며, 2세대 가구는 각각 3,450가구(25.0%), 1,734가구(12.9%), 1인 가구는 3,407가구(24.7%), 3,506가구(26.1%)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 4-1]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단위: N, %)

구분			2019년		2020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소계		소계	18,818	100.0	18,457	100.0
		읍면	13,793	73.3	13,444	72.8
		동	5,025	26.7	5,013	27.2
도농복합시	군산	계	1,777	9.4	1,717	3.9
		읍면	502	2.7	459	2.5
		동	1,752	9.3	1,258	6.8
	익산	계	1,763	9.4	1,729	9.4
		읍면	574	3.1	562	3.0
		동	1,189	6.3	1,167	6.3
	정읍	계	1,707	9.1	1,740	9.4
		읍면	743	3.9	711	3.9
		동	964	5.1	1,029	5.6
	남원	계	1,533	8.1	1,458	7.9
		읍면	705	3.7	642	3.5
		동	828	4.4	743	4.0
	김제	계	1,676	8.9	1.633	8.8
		읍면	907	4.8	890	4.8
		동	769	4.1	743	4.0
군	완주		1,178	6.3	1,176	6.4
	진안		1,325	7.0	1,307	7.1
	무주		1,350	7.2	1,326	7.2
	장수		1,361	7.2	1,370	7.4
	임실		1,264	6.7	1,305	7.1
	순창		1,299	6.9	1,256	6.8
	고창		1,294	6.9	1,249	6.8
	부안		1,291	6.9	1,191	6.5

[표 4-2] 응답대상자의 일반적 특성[29)]

(단위: N, %)

항목 구분		2019년		2020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소계		13,793	100.0	13,444	100.0
성별	남성	6,261	45.4	6,078	45.2
	여성	7,532	54.6	7,366	54.8
연령그룹	39세 이하	1,268	9.2	1,295	9.6
	40대	1,294	9.4	1.378	10.2
	50대	2,373	17.2	2.197	16.3
	60대	3,205	23.2	3.189	23.7
	70대	3,459	25.1	3.220	24.0
	80세 이상	2,194	15.9	2.165	16.1
혼인상태	미혼	1,116	8.1	1,117	8.3
	배우자 있음(동거 포함)	9,039	73.6	8,759	65.2
	사별	3,024	21.9	2,920	21.7
	이혼(별거 포함)	614	4.5	648	4.8
교육수준	무학	2,550	18.5	2,270	16.9
	초졸	3,988	28.9	3,611	26.9
	중졸	1,967	14.3	1,930	14.4
	고졸	3,324	24.1	3,341	24.9
	대졸(4년제 미만 포함)	1,964	14.2	2,292	17.1
가구소득 (가구주)	50만원 미만	1,873	13.6	1,604	11.9
	50만원~100만원 미만	3,318	24.1	2,181	16.2
	100만원~200만원 미만	3,244	23.5	1,768	13.3
	200만원~300만원 미만	2,385	17.3	1,290	9.6
	300만원~400만원 미만	1,491	10.8	781	5.8
	400만원~500만원 미만	652	4.7	430	3.2
	500만원 이상	830	6.0	465	3.4
가구세대유형	1세대 가구	6,441	46.7	3,114	23.2
	2세대 가구	3,450	25.0	1,734	12.9
	3세대 이상 가구	477	3.5	166	1.2
	1인 가구	3,407	24.7	3,506	26.1
	비혈연 가구	18	0.1	15	0.1

29)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는 '동'은 제외함

2. 농촌주민의 삶의 만족도

○ 전라북도 사회조사는 전라북도 농촌주민의 삶에 대한 만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각 년도 '삶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다. 2019년 농촌주민의 삶의 만족도 항목은 '개인의 건강, 재정, 사회적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도는 '전반적인 삶, 지역생활, 행복감, 걱정'이었다.

○ 2019년 전북 농촌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도농통합시'와 '군'지역에 거주하는 농촌주민의 '건강, 재정, 친구·이웃·친지와의 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학교, 직장, 종교 등)'에 주관적인 만족정도를 측정하였다. 도농복합시 농촌주민의 건강상태와 재정상태 만족도는 전북 농촌주민의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친구, 이웃, 친지 등과의 관계를 제외하고 건강, 재정, 가정생활, 사회생활에서 도농통합시와 군 지역의 농촌주민의 만족 정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건강, 재정, 가정생활, 사회생활 영역 모두 군 지역의 농촌주민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군 지역 농촌주민의 건강, 재정,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대해 도농통합시 농촌주민보다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2019년 삶의 만족도

(10점 척도)

구분	건강	재정	사회적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전북 읍면	5.78	5.51	6.59	6.65	6.31
도동복합시 읍면 (N=3,431)	5.52	5.19	6.58	6.49	6.25
군 읍면 (N=10,362)	5.87	5.62	6.59	6.71	6.33
도농 - 군 차이	-0.35	-0.43	-0.01	-0.22	-0.08
t	-8.65***	-11.27***	-0.43	-5.84***	-2.00*

* p<0.5, ** p<0.01, *** p<0.001

[그림 4-1] 2019년 삶의 만족도

○ 지역별 각 영역에 대한 남녀의 만족 정도를 살펴보았다. 도농통합시의 경우, 사회적관계를 제외한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정생활, 사회생활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민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남성은 자신의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정생활, 직장·학교·종교·취미·계모임 등을 포함한 사회생활에서 여성에 비해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상태와 사회생활 만족정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 주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5개 분야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만족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관계를 제외하고 성별 만족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신의 건강, 재정, 사회적 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대해 더 행복하다고 인식하였다. 도농통합시와 군 지역 남성 농촌주민은 여성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촌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성별 삶의 만족도

(10점 척도)

구분		건강	재정	사회적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도농	남성(N=1,513)	5.90	5.30	6.59	6.58	6.38
	여성(N=1,918)	5.22	5.11	6.56	6.42	6.15
	t	9.59***	2.90**	0.51	2.49*	3.33***
군	남성(N=4,748)	6.14	5.75	6.65	6.80	6.45
	여성(N=5,614)	5.64	5.50	6.54	6.63	6.23
	t	12.42***	6.59***	3.19**	4.81***	5.68***

* p<0.5, ** p<0.01, *** p<0.001

[그림 4-2] 도농복합시 성별 삶의 만족도

[그림 4-3] 군 지역의 성별 삶의 만족도

○ 각 지역별로 연령집단 간 2019년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두 지역 모두 연령별 삶의 만족도 차이를 보여주었다. 도농복합시의 경우, 건강, 재정, 사회적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모든 영역에서 70세 이상 주민의 만족 수준은 타 연령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 29세 이하는 건강에서, 5,60대는 재정, 사회적관계, 가정생활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군 지역 농촌주민을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70세 이상 주민은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5개 영역(건강, 재정, 사회적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에서 낮은 만족 수준을 보여주었다. 도농통합시와 군 지역 모두 70세 이상의 농촌주민의 2019년 삶의 만족도는 타 연령대 주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10점 척도)

구분		건강	재정	사회적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도농	29세 이하(N=142)	7.34	5.01	6.67	6.82	6.73
	30-40대(N=360)	6.65	5.37	6.41	6.61	6.46
	50-60대(N=1,383)	6.05	5.60	6.87	6.92	6.70
	70세 이상(N=1,546)	4.61	4.80	6.35	6.05	5.75
	F	244.09***	46.49***	20.59***	55.18***	62.17***
군	29세 이하(N=437)	7.15	5.75	6.95	7.38	6.94
	30-40대(N=1,623)	6.74	5.85	6.68	7.03	6.66
	50-60대(N=4,195)	6.30	5.94	6.83	6.97	6.68
	70세 이상(N=4,107)	4.95	5.17	6.28	6.25	5.77
	F	570.86***	127.51***	74.50***	149.20***	192.57***

*** $p<0.001$

[그림 4-4] 도농복합시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그림 4-5] 군 지역의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 2020년 전북 농촌주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 최근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정도,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 일상의 행복 정도를 측정하였다.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농촌주민의 2020년도 삶의 만족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삶과 지역생활에 대해 보통 이상 수준의 만족 정도를 보였으며, 행복정도 역시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4-6] 2020년 삶의 만족도

(10점 척도)

구분	전반적인 삶	지역사회	행복감
전북 농촌	6.25	6.32	6.21
도농복합 시 읍면 (N=3,264)	6.26	6.30	6.18
군 읍면 (N=10,180)	6.25	6.32	6.22
도농 - 군 차이	0.01	-0.02	-0.04
t	0.50	-0.50	-0.12

○ 각 지역별로 남성과 여성의 2020년 삶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도농복합시의 남녀 모두 보통 이상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보였으나 성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군 지역의 경우, 자신의 전반적인 삶과 지역생활에 대한 만족과 행복에서 성별 차이를 보였으며, 남성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성별 삶의 만족도

(10점 척도)

구분		전반적인 삶	지역사회	행복감
도농	남성 (N=1,436)	6.25	6.29	6.24
	여성 (N=1,828)	6.27	6.32	6.21
	t	-0.34	-0.51	-1.19
군	남성 (N=4,642)	6.32	6.39	6.29
	여성 (N=5,538)	6.18	6.27	6.16
	남성 - 여성	0.15	0.12	0.13
	t	4.01***	3.49***	3.61***

*** $p<0.001$

[그림 4-6] 군 지역의 성별 삶의 만족도

○ 연령대별 도농통합시와 군 지역의 농촌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도농복합시의 경우, 최신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과 어제 행복 정도는 연령대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 농촌주민은 최근 자신의 삶에 대해 타 연령집단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행복감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의 연령대별 차이를 살펴보면, 3개 영역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과 행복감에서 70세 이상 농촌주민은 타 연령대 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29세 이하 주민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4-8]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10점 척도)

구분		전반적인 삶	지역사회	행복감
도농	29세 이하 (N=121)	6.98	6.53	6.92
	30-40대 (N=345)	6.54	6.22	6.57
	50-60대 (N=1,347)	6.32	6.32	6.25
	70세 이상 (N=1,451)	6.08	6.29	5.96
	F	14.99***	1.00	21.29***
군	29세 이하 (N=445)	6.61	6.09	6.62
	30-40대 N=1,762)	6.53	6.34	6.63
	50-60대(N=4,039)	6.32	6.39	6.28
	70세 이상 (N=3,934)	6.00	6.27	5.93
	F	47.53***	5.41**	72.08***

** p<0.01, *** p<0.001

[그림 4-7] 도농복합시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그림 4-8] 군 지역의 연령대별 삶의 만족도

3. 보건의료·복지

○ 전북 농촌주민의 보건·복지 부문의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건강실천[30]'과 '보건·복지 서비스[31]' 실태를 살펴보았다. 농촌주민의 건강실천 실태를 살펴보면, 도농통합시와 군 지역 모두 농촌주민의 절반이상이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도농통합도시와 군 지역의 농촌주민은 주 1~2회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5.7%, 16.4%), 다음으로 도농복합시의 농촌주민은 매일, 군 지역의 농촌주민은 주 3~4회로 나타났다.

[표 4-9] 농촌주민의 운동실천 횟수

(단위: 명, %)

구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x2
월 2~3회	190(5.5)	906(8.7)	73.72***
주 1~2회	537(15.7)	1,697(16.4)	
주 3~4회	395(11.5)	1,240(12.0)	
주 5~6회	115(3.4)	360(3.5)	
매일	445(13.0)	941(9.1)	
전혀 안함	1,749(51.0)	5,218(50.4)	
계	3,431(100.0)	10,362(100.0)	

*** p<0.001

[그림 4-9] 농촌주민의 운동실천 횟수

30) '2019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하였다.
31) '2020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하였다.

○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도농복합시의 농촌주민 1,749명과 군 지역의 주민 5,218명을 대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도농복합시의 농촌주민은 '관심이 없기 때문(47.0%)'으로 응답한 반면, 군 지역의 주민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41.3%)'으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도농복합시는 '시간부족(27.8%)', 군 지역은 '관심 없음(36.3%)'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주로 다리나 허리 통증, 건강, 고령 등을 제시하였다.

[표 4-10]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x2
시간부족	486(27.8)	2,157(41.3)	200.65***
경제적 부담	58(3.3)	96(1.8)	
함께 할 사람 없음	64(3.7)	122(2.3)	
운동시설 부족	93(5.3)	105(2.0)	
체육활동 정보 부족	19(1.1)	39(0.7)	
지도자가 없어서	6(0.3)	16(0.3)	
프로그램이 부족	14(0.8)	140(0.3)	
관심 없음	822(47.0)	1,896(36.3)	
기타	187(10.7)	773(14.8)	
계	1,749(100.0)	5,218(100.0)	

*** p<0.001

[그림 4-10]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 지역별로 운동실천 실태를 살펴보았다. 도농복합시의 농촌주민의 성별 운동실천실태의 경우, 남녀 모두 절반이상(51.2%, 40.8%)이 규칙적인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성은 매일(14.3%), 주 1~2회(13.8%) 등, 여성은 주 1~2회(17.1%), 주 3~4회(12.5%), 매일(11.9%)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의 경우, 남녀 모두 규칙적인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48.3%, 52.1%), 주 1~2회(16.4%, 16.4%), 주 3~4회(12.0%, 11.9%) 등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11] 지역별 성별 운동실천 횟수

(단위: 명, %)

구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월 2~3회	96(6.3)	94(4.9)	436(9.2)	470(8.4)
주 1~2회	209(13.8)	328(17.1)	779(16.4)	918(16.4)
주 3~4회	155(10.2)	240(12.5)	572(12.0)	668(11.9)
주 5~6회	62(4.1)	53(2.8)	192(4.0)	168(3.0)
매일	216(14.3)	229(11.9)	478(10.1)	463(8.2)
전혀 안함	775(51.2)	974(50.8)	2,291(48.3)	2,927(52.1)
계	1,513(100.0)	1,918(100.0)	4,748(100.0)	5,614(100.0)
x2	20.89**		27.27***	

** p<0.01, *** p<0.001

도농복합시

군

[그림 4-11] 지역별 성별 운동실천 횟수

○ 각 지역별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남녀를 대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도농복합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촌주민 중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1,749명 중 남녀 모두 '관심이 없기 때문(45.7%, 48.0%)'으로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시간부족(33.3%, 23.4%), 건강·나이 등의 문제를 언급한 기타(9.2%, 11.9%)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의 주민의 경우, 남성은 '시간이 없어서(46.7%)', '관심이 없어서(34.7%)', '건강문제 또는 노화(12.0%)'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관심이 없어서(37.6%)'와 '시간이 없어서(37.1%)', '건강과 나이와 같은 문제(17.0%)' 등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12] 지역별 성별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시간부족	258(33.3)	228(23.4)	1,070(46.7)	1,087(37.1)
경제적 부담	23(3.0)	35(3.6)	44(1.9)	52(1.8)
함께 할 사람 없음	15(1.9)	49(5.0)	40(1.7)	82(2.8)
운동시설 부족	37(4.8)	56(5.7)	41(1.8)	64(2.2)
체육활동 정보 부족	8(1.0)	11(1.1)	18(0.8)	21(0.7)
지도자가 없어서	1(0.1)	5(0.5)	5(0.2)	11(0.4)
프로그램이 부족	8(1.0)	6(0.6)	3(0.1)	11(0.4)
관심 없음	354(45.7)	468(48.0)	794(34.7)	1,102(37.6)
기타	71(9.2)	116(11.9)	276(12.0)	497(17.0)
계	775(100.0)	974(100.0)	2,291(100.0)	2,927(100.0)
$x2$	34.14***		64.00***	

*** $p<0.001$

도농복합시	군

[그림 4-12] 지역별 성별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

○ 다음은 연령대별 운동실천 실태를 지역별로 확인해 보았다. 도동복합시의 운동실천을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연령대 모두 농촌주민의 다수가 규칙적인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40대와 70세 이상의 경우, 절반이상(55.6%, 57.2%)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의 모든 연령대 주민의 다수가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았으며, 70세 이상 주민은 60%가 넘었다.

[표 4-13] 지역별 연령대별 운동실천 횟수

(단위: 명, %)

구분		월 2~3회	주 1~2회	주 3~4회	주 5~6회	매일	전혀 안함	계	x2
도농	29세 이하	12 (8.5)	29 (20.4)	24 (16.9)	10 (7.0)	10 (7.0)	57 (40.1)	142 (100.0)	140.67 ***
	30-40대	36 (10.0)	49 (13.6)	43 (11.9)	13 (3.6)	19 (5.3)	200 (55.6)	360 (100.0)	
	50-60대	93 (6.7)	236 (17.1)	205 (14.8)	55 (4.0)	186 (13.4)	608 (44.0)	1,383 (100.0)	
	70세 이상	49 (3.2)	223 (14.4)	123 (8.0)	37 (2.4)	230 (14.9)	884 (57.2)	1,546 (100.0)	
군	29세 이하	49 (11.2)	91 (20.8)	71 (16.2)	40 (9.2)	29 (6.6)	157 (35.9)	437 (100.0)	511.01 ***
	30-40대	199 (12.3)	358 (22.1)	268 (16.5)	68 (4.2)	76 (4.7)	654 (40.3)	1,623 (100.0)	
	50-60대	426 (10.2)	758 (18.1)	549 (13.1)	149 (3.6)	391 (9.3)	1,922 (45.8)	4,195 (100.0)	
	70세 이상	232 (5.6)	490 (11.9)	352 (8.6)	103 (2.5)	445 (10.8)	2,485 (60.5)	4,107 (100.0)	

*** p<0.001

도농복합시 | 군

[그림 4-13] 지역별 연령대별 운동실천 횟수

○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에 거주하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연령대별로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도농복합시에 거주하고 있는 60대 이하 주민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로 '시간이 부족해서(57.9%, 54.5%, 43.4%)', '관심이 없어서(21.1%, 29.5%, 37.5%)'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70세 이상의 경우, 절반이상이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59.2%), 다음으로 건강문제, 고령 등의 기타 의견을 제시하였다(16.6%). 군 지역의 주민 중 60대 이하의 경우, 절반이상이 '시간이 부족해서(56.1%, 67.9%, 57.3%)'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관심이 없기 때문(28.0%, 20.9%, 31.1%)'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 주민은 '관심이 없어서(45.0%)', '건강, 나이듦 등 기타 의견(26.4%)', '시간이 부족해서(21.1%) 등 순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표 4-14] 지역별 연령대별 운동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시간 부족	경제적 부담	함께 할 사람 없음	운동 시설 부족	체육 활동 정보 부족	지도자가 없어서	프로그램이 부족	관심 없음	기타	계	x2
도농	29세 이하	33 (57.9)	4 (7.0)	2 (3.5)	3 (5.3)	2 (3.5)	0 (0.0)	1 (1.8)	12 (21.1)	0 (0.0)	57 (100.0)	390.31***
	30-40대	109 (54.5)	13 (6.5)	5 (2.5)	3 (1.5)	2 (1.0)	0 (0.0)	1 (0.5)	59 (29.5)	8 (4.0)	200 (100.0)	
	50-60대	264 (43.4)	16 (2.6)	13 (2.1)	38 (6.3)	7 (1.2)	2 (0.3)	8 (1.3)	228 (37.5)	32 (5.3)	608 (100.0)	
	70세 이상	80 (9.0)	25 (2.8)	44 (5.0)	49 (5.5)	8 (0.9)	4 (0.5)	4 (0.5)	523 (59.2)	147 (16.6)	884 (100.0)	
군	29세 이하	88 (56.1)	4 (2.5)	7 (4.5)	7 (4.5)	5 (3.2)	0 (0.0)	0 (0.0)	44 (28.0)	2 (1.3)	157 (100.0)	1037.97***
	30-40대	444 (67.9)	21 (3.2)	8 (1.2)	13 (2.0)	5 (0.8)	1 (0.2)	4 (0.6)	137 (20.9)	21 (3.2)	654 (100.0)	
	50-60대	1,101 (57.3)	36 (1.9)	39 (2.0)	31 (1.6)	16 (0.8)	4 (0.2)	4 (0.2)	596 (31.1)	94 (4.9)	1,922 (100.0)	
	70세 이상	524 (21.1)	35 (1.4)	68 (2.7)	54 (2.2)	13 (0.5)	11 (0.4)	6 (0.2)	1,118 (45.0)	656 (26.4)	2,485 (100.0)	

*** $p<0.001$

도농복합시

군

[그림 4-14] 지역별 연령대별 운동하지 않는 이유

○ 전북 농촌지역의 의료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1년 동안(2019년 8월 19일~2020년 8월 18일) 전라북도에 소재한 병원, 의원, 한방 병·의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이용한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이용한 의료기관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살펴보았다.[32] 도농복합시(3,003명)와 군 지역(9,164명)의 의료여건에 대한 농촌주민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두 지역 모두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4.6%, 64.9%). 특히, 도농복합시의 농촌주민 중 의료여건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군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주민의 의료여건 만족도는 각각 3.86점, 3.75점으로 도농복합시 농촌주민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4-15] 의료여건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x2$
불만족	246(8.2)	696(7.6)	130.24***
보통	516(17.2)	2,524(27.5)	
만족	2,241(74.6)	5,944(64.9)	
계	3,003(100.0)	9,164(100.0)	
만족도(5점 척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t
	3.86	3.75	6.07***

*** p<0.001

32) '2020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하였다.

[그림 4-15] 지역별 의료여건 만족도

○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각각 의료여건을 살펴보면, 만 19세 이상 주민의 성별 의료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도농복합시의 경우, 남녀 모두 전체 중 70% 이상이 현재 지역 의료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이 만족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녀 주민의 만족도는 각각 3.82점, 3.89점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하는 수준이 높았다. 군 지역의 주민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남녀 모두 각각 전체 중 60% 이상이었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의 남녀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모두 보통 이상 수준인 3.73점과 3.77점으로 여성이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의 성별 의료서비스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불만족	119(9.3)	127(7.4)	320(7.9)	376(7.4)
보통	233(18.2)	283(16.4)	1,146(28.2)	1,378(27.0)
만족	926(72.5)	1,315(76.2)	2.592(63.9)	3,352(65.6)
계	1,278(100.0)	1,725(100.0)	4,058(100.0)	5,106(100.0)
x2	6.23*		3.20	
만족도(5점 척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3.82	3.89	3.73	3.77
t	-2.13*		-2.47*	

* p〈0.05

[그림 4-16]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의료서비스 만족도 분포

[그림 4-17]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의료서비스 만족도 평균

○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의료여건을 연령대별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통해 살펴보았다. 도농복합시의 농촌주민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살펴보면, 연령대 모두 절반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대~40대 주민의 만족 응답비율은 62.4%로 타 연령대(70.9%, 70.2%, 80.9%)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주민 중 의료서비스 만족 수준은 30~40대가 3.39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군 지역의 경우, 연령집단 모두 절반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만족 응답비율이 낮아지고 보통 응답비율이 높아졌다. 30~40대 의료서비스 만족 정도는 보통 이상 수준으로 30~40대가 3.47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의료서비스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불만족	6 (7.0)	30 (11.6)	122 (9.8)	88 (6.2)	20 (7.1)	164 (11.3)	299 (8.2)	213 (5.6)
보통	19 (22.1)	67 (26.0)	247 (19.9)	183 (12.9)	116 (41.4)	557 (38.5)	994 (27.4)	857 (22.5)
만족	61 (70.9)	161 (62.4)	870 (70.2)	1,149 (80.9)	144 (51.4)	726 (50.2)	2,336 (64.4)	2,738 (71.9)
계	86 (100.0)	258 (100.0)	1,239 (100.0)	1,420 (100.0)	280 (100.0)	1,447 (100.0)	3,629 (100.0)	3,808 (100.0)
x2	64.50***				251.65***			
만족도 (5점 척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3.92	3.61	3.78	3.97	3.57	3.47	3,73	3.89
t	18.97***				93.50***			

*** p<0.001

[그림 4-18]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의료서비스 만족도 분포

[그림 4-19]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의료서비스 만족도 평균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복지 파악을 위해 임신·출산·육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는지 만 19세 이상 전북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33]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주민이 인식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정도를 살펴보면,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서비스의 경우, 두 지역 모두 절반가량이 사회복지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두 지역의 응답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군 지역(50.2%)이 도농복합시(46.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두 지역의 만족도는 3.91점, 3.92점으로 나왔다.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등을 포함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두 지역 모두 '그렇다(57.4%, 51.6%)'로 응답하였으며, 응답 비율은 50%를 넘었다. 다음으로 '보통(17.1%, 24.0%)'으로 응답하였다. 두 지역 모두 평균적으로 3.95점의 만족도를 보였다.

33) '2020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하였다.

[표 4-18] 기본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임신·출산·육아			저소득 층 취약계층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x2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x2
그렇지 않다	514(15.9)	1,187(11.8)	81.05 ***	474(14.6)	1,097(10.9)	108.39 ***
보통	637(19.7)	2,619(26.1)		554(17.1)	2,405(24.0)	
그렇다	1,628(50.2)	4,685(46.7)		1,860(57.4)	5,179(51.6)	
잘 모르겠다	462(14.3)	1,543(15.4)		353(10.9)	1,353(13.5)	
계	3,241(100.0)	10,034(100.0)		3,241(100.0)	10,034(100.0)	
만족도 (5점 척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t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t
	3.91	3.92	-0.20	3.95	3.95	0.00

*** p<0.001

[그림 4-20] 임신·출산·육아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그림 4-21]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평균

○ 임신·출산·육아 복지서비스에 대한 농촌주민의 만족도를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두 지역 모두 남성과 여성주민은 '서비스 제공이 잘 되고 있다', '보통이다', '모르겠다' 등 순으로 응답하였다. 남녀 간 큰 차이 없이 5점 만점 중 3.9점 가량의 만족도를 보였다.

[표 4-19]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임신·출산·육아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그렇지 않다	230(16.1)	284(15.6)	556(12.1)	631(11.6)
보통	271(19.0)	366(20.2)	1,235(27.0)	1,284(25.4)
그렇다	721(50.6)	907(49.9)	2,105(46.0)	2,580(47.3)
잘 모르겠다	203(14.2)	259(14.3)	681(14.9)	862(15.8)
계	1,425(100.0)	1,816(100.0)	4,577(100.0)	5,457(100.0)
$x2$	0.72		5,47	
만족도 (5점 척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3.90	3.92	3.89	3.94
t	-0.25		-1.77	

[그림 4-22]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임신·출산·육아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분포

[그림 4-23]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임신·출산·육아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평균

○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살펴보면,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촌 주민 모두 성별이 무관하게 절반이상이 '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군지역의 주민의 응답에서 성별 차이가 다소 존재하였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잘 제공되고 있다고'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군 지역 남녀주민의 만족 정도는 남성이 3.90점, 여성이 4.00점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표 4-20]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그렇지 않다	215(15.1)	259(14.3)	528(11.5)	569(10.4)
보통	229(16.1)	325(17.9)	1,166(25.5)	1,239(22.7)
그렇다	827(58.0)	1,033(56.9)	2,315(50.6)	2,864(52.5)
잘 모르겠다	154(10.8)	199(11.0)	568(12.4)	785(14.4)
계	1,425(100.0)	1,816(100.0)	4,577(100.0)	5,457(100.0)
x2	2.13		19.72***	
만족도 (5점 척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3.94	3.96	3.90	4.00
t	-0.37		-3.78***	

*** p<0.001

[그림 4-24]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분포

[그림 4-25]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평균

○ 다음은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의 농촌주민들이 인식하는 임신·출산·육아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를 연령대별로 살펴보았다. 도농복합시의 연령대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생애주기 상 임신·출산·육아가 이루어지는 40대 이하의 농촌주민의 만족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29세 이하의 주민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3.9%였으며, '보통이다'는 29.6%로 나타났다. 30~40대는 '잘 제공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8.3%로 가장 높았으나, '보통이다'는 27.5%, '그렇지 않다' 27.0%로 상대적으로 낮지 않은 비율을 보였다. 임신·출산·육아가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생애단계의 30~40대의 만족도는 3.39점으로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군 지역의 연령대별 살펴보면, 29세 이하의 임신·출산·육아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33.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제공이 잘 되고 있다'는 27.7%, '잘 모르겠다' 26.0% 등 순으로 나타났다. 30~40대의 경우, 절반가량인 47.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7.9%였다. 군 지역 주민의 연령대별 서비스 만족도는 3.66점인 30~40대가 타 연령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군 지역 40대 이하의 농촌주민의 만족정도는 도농복합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21]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임신·출산·육아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그렇지 않다	14 (14.3)	93 (27.0)	238 (17.7)	169 (11.6)	40 (13.3)	290 (16.5)	500 (12.4)	357 (9.1)
보통	29 (29.6)	95 (27.5)	266 (19.7)	247 (17.0)	99 (33.0)	492 (27.9)	1,035 (25.6)	993 (25.2)
그렇다	43 (43.9)	132 (38.3)	702 (52.1)	751 (51.8)	83 (27.7)	838 (47.6)	2,014 (49.9)	1,750 (44.5)
잘 모르겠다	12 (12.2)	25 (7.2)	141 (10.5)	284 (19.6)	78 (26.0)	141 (8.0)	490 (12.1)	834 (21.2)
계	98 (100.0)	345 (100.0)	1,347 (100.0)	1,451 (100.0)	300 (100.0)	1,761 (100.0)	4,039 (100.0)	3,934 (100.0)
x2	133.66***				303.07			
만족도 (5점 척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3.78	3.39	3.81	4.14	3.93	3.66	3.86	4.09
t	40.03***				54.54***			

*** p<0.001

[그림 4-26]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임신·출산·육아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분포

[그림 4-27]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임신·출산·육아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평균

○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 정도를 각 지역별로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연령집단 모두 절반가량이 '잘 제공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9세 이하와 30~40대는 각각 25.5%, 22.3%가 '보통이다'고 인식하였다. 30~40대가 3.7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70세 이상은 4.0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군 지역의 30대 이상 주민 절반가량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0%이상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달리, 전체 29세 이하 주민 중 34.7%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32.0%는 '보통이다', 22.7%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타 연령그룹에 비해 만족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만족 수준을 살펴보면, 3.77점인 30~40대 주민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70세 이상은 4.08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22]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그렇지 않다	11 (11.2)	68 (19.7)	206 (15.3)	189 (13.0)	32 (10.7)	239 (13.6)	430 (10.6)	396 (10.1)
보통	25 (25.5)	77 (22.3)	234 (17.4)	218 (15.0)	96 (32.0)	478 (27.1)	969 (24.0)	862 (21.9)
그렇다	50 (51.0)	165 (47.8)	801 (59.5)	844 (58.2)	104 (34.7)	885 (50.3)	2,237 (55.4)	1,953 (49.6)
잘 모르겠다	12 (12.2)	35 (10.1)	106 (7.9)	200 (13.8)	68 (22.7)	159 (9.0)	403 (10.0)	723 (18.4)
계	98 (100.0)	345 (100.0)	1,347 (100.0)	1,451 (100.0)	300 (100.0)	1,761 (100.0)	4,039 (100.0)	3,934 (100.0)
x2	53.23***				219.47***			
만족도 (5점 척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3.94	3.71	3.89	4.07	3.97	3.77	3.91	4.08
t	10.72***				29.23***			

*** p<0.001

[그림 4-28]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분포

[그림 4-29]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평균

○ 전북 읍면부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현재 노인문제가 무엇인지, 노인들의 정책 욕구를 살펴보았다[34]. 첫 번째로, 전북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내 노인이 인지하고 있는 노인문제는 다음과 같다. 도농복합시의 농촌노인은 건강문제(40.5%), 경제적 소외(29.2%), 외로움(18.0%) 등 순으로 현재 노인들이 느끼는 가장 심한 문제로 제시하였다. 군 지역 농촌노인은 또한 건강문제(42.8%)를 가장 큰 문제로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소외(31.1%), 외로움(14.3%) 등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3]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노인이 인식하는 노인문제

(단위: 명, %)

구분	경제적 소외	건강문제	외로움	복지	구직	계
도농복합시 읍면	883(29.2)	1,222(40.5)	543(18.0)	108(3.6)	77(2.5)	3,020(100.0)
군 읍면	2,345(31.1)	3,227(42.8)	1,082(14.3)	255(3.5)	271(3.6)	7,547(100.0)

34) '2020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하였다.
1순위, 2순위로 응답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1순위와 2순위를 모두 함께 합산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4-30]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노인이 인식하는 노인문제

○ 각 지역 내 농촌노인의 성별 응답분포를 살펴본 결과, 공통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인의 건강문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적 소외, 외로움 등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4]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노인이 인식하는 노인문제

(단위: 명, %)

구분		경제적 소외	건강문제	외로움	구직	여가	복지	계
도농	남성	368(29.9)	488(39.6)	198(16.1)	54(4.4)	47(3.8)	39(3.2)	1,231(100.0)
	여성	515(28.8)	734(41.0)	345(19.3)	54(3.0)	48(2.7)	38(2.1)	1,789(100.0)
군	남성	1,003(31.4)	1,347(42.2)	403(12.6)	140(4.4)	67(2.1)	126(3.9)	3,194(100.0)
	여성	1,256(28.9)	1,736(39.9)	574(13.2)	133(3.1)	94(2.2)	126(2.9)	4,353(100.0)

도농복합시

군

[그림 4-31]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노인이 인식하는 노인문제

○ 노인의 연령을 전기(65세~74세), 중기(75~84세), 후기(85세 이상)로 구분하여 노인문제를 살펴보았다. 노인의 연령그룹 모두 건강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였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소외와 외로움을 꼽았다.

[표 4-25]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노인이 인식하는 노인문제

(단위: 명, %)

구분		경제적 소외	건강문제	외로움	구직	여가	복지	계
도농	전기	425(30.5)	538(38.6)	217(15.6)	39(2.8)	66(4.7)	67(4.8)	1,395(100.0)
	중기	356(29.2)	508(41.7)	226(18.5)	31(2.5)	32(2.6)	25(2.1)	1,219(100.0)
	후기	102(25.1)	176(43.3)	100(24.6)	7(1.7)	10(2.5)	3(0.7)	406(100.0)
군	전기	1,141(32.5)	1,439(41.0)	445(12.7)	116(3.3)	154(4.4)	105(3.0)	3,506(100.0)
	중기	961(30.3)	1,422(44.8)	449(14.1)	112(3.5)	97(3.1)	52(1.6)	3,174(100.0)
	후기	243(28.0)	366(42.2)	188(21.7)	27(3.1)	20(2.3)	24(2.8)	867(100.0)

도농복합시

군

[그림 4-32]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노인이 인식하는 노인문제

○ 다음은 65세 이상 농촌노인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와 확충이 필요한 복지시설을 살펴보았다.[35]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농촌노인의 정책 욕구 중 하나인 복지서비스를 살펴본 결과, 두 지역 모두 '의료서비스 확대(44.5%, 49.6%)'를 가장 희망하였으며, 다음으로 도농복합시는 '소외노인 지원(16.5%)과 여가복지시설 확충(16.4%)', '노인일자리 제공(12.2%)'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군 지역 노인은 '여가복지시설 확충(16.0%)', '노인일자리 제공(14.4%)', '소외노인 지원(10.8)' 등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26]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노인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

(단위: 명, %)

구분	의료서비스 확대	소외노인 지원	여가복지 시설 확충	노인일자리 제공	취미여가 프로그램	계
도농복합시 읍면	1,301(44.5)	481(16.5)	480(16.4)	356(12.2)	139(4.8)	2,922(100.0)
군 읍면	3,549(49.6)	770(10.8)	1,144(16.0)	1,032(14.4)	273(3.8)	7,157(100.0)

35) 1순위, 2순위로 응답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1순위와 2순위를 모두 함께 합산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4-33]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노인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

○ 각 지역 내 농촌주민의 성별 희망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남녀 농촌노인 모두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를 희망하였다. 다음으로, 도농복합시의 남녀 농촌노인은 소외노인 지원(15.3%, 17.3%)을 응답하였다. 군 지역의 남녀 노인의 경우, 복지관, 실버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 확충(15.9%, 16.1%)'으로 나타났다.

[표 4-27]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노인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

(단위: 명, %)

구분		의료서비스 확대	소외노인 지원	여가복지 시설 확충	노인일자리 제공	취미여가 프로그램	계
도농	남성	524(43.5)	184(15.3)	133(11.0)	160(13.3)	78(6.5)	1,205(100.0)
	여성	777(45.3)	297(17.3)	287(16.7)	196(11.4)	61(3.6)	1,717(100.0)
군	남성	1,514(49.9)	273(9.0)	482(15.9)	449(14.8)	112(3.7)	3,036(100.0)
	여성	2,035(49.4)	497(12.1)	662(16.1)	583(14.1)	116(2.8)	4,121(100.0)

도농복합시	군

[그림 4-34]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노인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

○ 연령그룹별 농촌노인의 희망하는 노인복지서비스 응답 비율을 각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각각 절반가량의 농촌노인이 '의료서비스 확대'를 희망하였다. 도농복합시의 경우, 다음으로 노년전기의 농촌주민은 '여가복지시설 확충(16.0%)'을, 노년중기와 후기는 가정도우미, 밑반찬 배달사업 등 '소외노인 지원 확충(18.8%, 24.5%)'을 강조하였다. 반면, 군 지역의 농촌주민의 연령그룹별 희망하는 노인복지서비스는 '의료서비스 확대' 다음으로 노년전기는 '노인일자리 제공(17.1%)'을, 중기와 후기는 '노인 여가복지시설 확충'으로 각각 16.1%, 17.2%로 나타났다.

[표 4-28]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노인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

(단위: 명, %)

구분		의료서비스 확대	소외노인 지원	여가복지 시설 확충	노인일자리 제공	취미여가 프로그램	계
도농	전기	588(42.9)	168(12.2)	220(16.0)	212(15.5)	88(6.4)	1,372(100.0)
	중기	537(45.6)	222(18.8)	195(16.6)	129(11.0)	40(3.4)	1,178(100.0)
	후기	176(47.3)	91(24.5)	65(17.5)	15(4.0)	11(3.0)	372(100.0)
군	전기	1,611(48.0)	253(7.5)	524(15.6)	572(17.1)	154(4.6)	3,354(100.0)
	중기	1,505(50.3)	397(13.3)	481(16.1)	393(13.1)	64(2.1)	2,995(100.0)
	후기	433(53.6)	120(14.9)	139(17.2)	67(8.3)	10(1.2)	808(100.0)

도농복합시	군

[그림 4-35]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노인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

○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농촌주민에게 확충이 필요한 노인복지시설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두 지역 모두 '노인복지관'이 우선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 비율은 각각 24.8%, 25.0%였으며, 다음으로 '치매노인전문시설(22.1%, 19.3%)'을 언급하였다. 그 외 도농복합시의 농촌노인은 '재가복지시설(15.8%)'을, 군 지역의 노인은 '요양병원(18.6%)'을 강조하였다.

[표 4-29]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확충이 필요한 노인복지시설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계	x2
도농복합	노인복지관 465(24.8)	치매노인전문시설 415(22.1)	재가복지시설 296(15.8)	요양병원 250(13.3)	경로당 171(9.1)	1,876 (100.0)	97.78 ***
군	노인복지관 1,270(25.0)	치매노인전문시설 976(19.3)	요양병원 945(18.6)	재가복지시설 616(12.1)	요양원 491(9.7)	5,080 100.0)	

*** p<0.001

[그림 4-36]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확충이 필요한 노인복지시설

○ 성별 농촌노인의 확충을 필요로 하는 노인복지시설은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모두 '노인복지관'이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도동복합시의 남녀 농촌노인과 군 지역 남성노인은 다음으로 '치매노인전문시설'을, 군 지역의 여성노인은 '요양병원'으로 응답하였다.

[표 4-30]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확충이 필요한 노인복지시설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계	x2
도농	남성	노인복지관 201(26.2)	치매노인전문시설 173(22.6)	재가복지시설 1198(15.5)	767(100.0)	10.77
	여성	노인복지관 264(23.8)	치매노인전문시설 242(21.8)	재가복지시설 177(16.0)	1,109(100.0)	
군	남성	노인복지관 564(26.5)	치매노인전문시설 420(19.7)	요양병원 385(18.1)	2,218(100.0)	23.39**
	여성	노인복지관 706(23.9)	요양병원 560(19.0)	치매노인전문시설 559(18.9)	2,952(100.0)	

** p<0.01

○ 노인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여 확충이 필요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각 지역의 농촌노인의 응답을 살펴보면, 도농복합시의 노인전기와 후기는 '노인복지관(27.6%, 23.3%)', '치매노인전문시설(21.2%, 22.5%)', '재가복지시설(14.7%, 17.2%)' 등 순으

로 나타났다. 반면, 노년 중기가 생각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치매노인전문시설(23.1%)', '노인복지관(22.0%)', '제가복지시설(17.2%)' 등이었다. 군 지역 노인의 경우, 노년 전기와 중기는 '노인복지관(27.0%, 23.8%)', '치매노인전문시설(19.9%, 18.7%)', '요양병원(17.2%, 18.6%)' 등 순이었으며, 후기 노인은 '요양병원(24.1%)', '노인복지관(21.2%)', '치매노인전문시설(18.9%)' 등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4-31]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확충이 필요한 노인복지시설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계	x2
도농	전기	노인복지관 240(27.6)	치매노인전문시설 184(21.2)	재가복지시설 128(14.7)	869(100.0)	34.29**
	중기	치매노인전문시설 175(23.1)	노인복지관 167(22.0)	재가복지시설 130(17.2)	758(100.0)	
	후기	노인복지관 58(23.3)	치매노인전문시설 56(22.5)	재가복지시설 38(15.3)	249(100,0)	
군	전기	노인복지관 632(27.0)	치매노인전문시설 465(19.9)	요양병원 402(17.2)	2,339(100.0)	43.40***
	중기	노인복지관 512(23.8)	치매노인전문시설 402(18.7)	요양병원 400(18.6)	2,148(100.0)	
	후기	요양병원 143(24.1)	노인복지관 126(21.2)	치매노인전문시설 112(18.9)	593(100.0)	

** p<0.01, *** p<0.001

4. 교육·문화

○ 자기개발, 취미여가 등을 위한 전북 농촌주민의 평생교육 실태를 살펴보았다.[36] 조사기간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2018년 8월 12일~2019년 8월 11일) 평생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도농복합시 농촌주민 402명과 군 지역 주민 2,033명을 대상으로 교육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도농복합시 농촌주민은 '공공기관의 평생교육원 강좌(30.3%)'를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며, 다음으로 '지역문화센터 또는 백화점 문화센터 강좌(26.1%)', '직장에서 받은 교육, 훈련(24.1%)'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의 농촌주민의 경우, '공공기관의 평생교육원 강좌(29.8%)', '직장에서 받은 교육, 훈련(26.2%)', '지역문화센터, 백화점문화센터 강좌(20.9%)' 등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2]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평생교육 이용실태

(단위: 명, %)

구분	직장 교육, 훈련	공공기관 평생교육원 강좌	지역문화센터, 백화점문화센터 강좌	TV 및 인터넷 학습 강좌 수강	계
도농복합	97(24.1)	122(30.3)	105(26.1)	31(7.7)	402(100.0)
군 읍면	533(26.2)	606(29.8)	424(20.9)	183(9.0)	2,033(100.0)

[그림 4-37]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평생교육 이용실태

36) '2019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하였다.

○ 각 지역 내 농촌주민의 성별 평생교육 이용실태 차이를 살펴본 결과, 도농복합시의 남성 노인은 '직장에서 받은 교육, 훈련(32.1%)'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평생교육원 강좌(29.6%)' 등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 노인은 '지역문화센터, 백화점문화센터 강좌(32.9%)', '공공기관의 평생교육원 강좌(30.8%)'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에서도 농촌 노인의 평생교육 이용경험의 성별 응답 분포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 노인은 '직장에서 받은 교육, 훈련(32.9%)'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공공기관의 평생교육원 강좌(27.2%)'이었다. 반면, 여성노인은 '공공기관의 평생교육원 강좌(31.9%)', '지역문화센터, 백화점문화센터 강좌(25.2%)', '직장에서 받은 교육, 훈련(20.9%)' 등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3]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평생교육 이용실태

(단위: 명, %)

구분		직장 교육, 훈련	공공기관 평생교육원 강좌	지역문화센터, 백화점문화센터 강좌	TV 및 인터넷 학습 강좌 수강	계
도농	남성	52(32.1)	48(29.6)	26(16.0)	13(8.0)	162(100.0)
	여성	45(18.8)	74(30.8)	79(32.9)	18(7.5)	240(100.0)
군	남성	297(32.9)	246(27.2)	139(15.4)	82(9.1)	903(100.0)
	여성	236(20.9)	360(31.9)	385(25.2)	101(8.9)	1,130(100.0)

[그림 4-38]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평생교육 이용실태

○ 다음은 농촌주민의 연령대별 평생교육 이용실태를 각 지역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도농복합시의 29세 이하는 'TV 및 인터넷 학습 강좌 수강(37.9%)'을 통해 평생교육을 받았으며, 30~40대는 '직장에서 교육, 훈련(41.1%)'을, 50~60대는 '공공기관의 평생교육원 강좌(30.5%)'와 '지역문화센터, 백화점문화센터 강좌(30.0%)', 70세 이상 '공공기관의 평생교육원 강좌(42.5%)'를 주로 활용하였다. 군 지역의 경우, 29세 이하 주민 절반가량은 '직장에서 받은 교육, 훈련(25.5%)'과 'TV 및 인터넷 학습 강좌 수강(25.0%)'을 통해 평생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0~40대는 '직장에서 받은 훈련, 교육(37.3%)', 50~60대와 70세 이상은 '공공기관의 평생교육원 강좌(34.7%)'을 통해 자기개발, 취미여가를 위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4]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평생교육 이용실태

(단위: 명, %)

구분		직장 교육, 훈련	공공기관 평생교육원 강좌	지역문화센터, 백화점문화센터 강좌	TV 및 인터넷 강좌	계
도농	29세 이하	5(17.2)	1(3.4)	2(6.9)	11(37.9)	29(100.0)
	30-40대	30(41.1)	20(27.4)	10(13.7)	5(6.8)	73(100.0)
	50-60대	52(23.6)	67(30.5)	66(30.0)	12(5.5)	220(100.0)
	70세 이상	10(12.5)	34(42.5)	27(33.8)	3(3.8)	80(100.0)
군	29세 이하	47(25.5)	21(11.4)	11(6.0)	46(25.0)	184(100.0)
	30-40대	212(37.3)	108(19.0)	85(14.9)	75(13.2)	569(100.0)
	50-60대	228(24.0)	330(34.7)	229(24.1)	55(5.8)	951(100.0)
	70세 이상	46(14.0)	147(44.7)	99(30.1)	7(2.1)	329(100.0)

도농복합시	군

[그림 4-39]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평생교육 이용실태

○ 조사기간 기준으로 지난 1년 간(2018년 8월 12일~2019년 8월 11일)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도농복합시 농촌주민 3,881명과 군 지역의 주민 9,823명을 대상으로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았다.[37] 도농복합시 농촌주민의 경우, '관심이 없어서(33.7%)'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건강 또는 나이(30.4%)', '시간이 없어서(23.1%)' 등 순으로 응답하였다. 군 지역의 주민이 언급한 이유는 '건강 또는 나이(30.3%)'와 '시간이 없어서(30.1%)'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관심이 없어서(29.5%)'로 나타났다.

[표 4-35]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분	건강 또는 나이	관심 없음	시간 없음	교육장소가 멀고 교통 불편	정보부족	계
도농복합	1,179(30.4)	1,309(33.7)	898(23.1)	253(6.5)	156(4.0)	3,881(100.0)
군 읍면	2,972(30.3)	2,893(29.5)	2,960(30.1)	421(4.2)	314(3.2)	9,823(100.0)

37) 1순위, 2순위로 응답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1순위와 2순위를 모두 함께 합산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4-40]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 각 지역 내 농촌주민의 성별 참여하지 않은 이유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도농복합시의 남녀 농촌주민의 경우, 남성은 '관심이 없어서(36.2%)', 여성은 '건강 또는 나이(30.1%)'가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성은 '시간이 없어서(27.2%)', '건강 또는 나이(24.6%)' 등, 여성은 '관심이 없어서(27.2%)', '시간이 없어서(17.1%)' 등 순으로 응답하였다. 군 지역의 주민 중 남성은 '시간이 없어서(34.0%)'가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가장 주요 요인으로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관심이 없어서(32.1%)', '건강 또는 나이(24.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주민은 '건강 또는 나이(35.2%)', '관심이 없어서(27.2%)', '시간이 없어서(26.8%)' 등 순이었다.

[표 4-36]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분		건강 또는 나이	관심 없음	시간 없음	교육장소가 멀고 교통 불편	정보부족	계
도농	남성	426(24.6)	627(36.2)	471(27.2)	104(6.0)	72(4.2)	1,731(100.0)
	여성	753(30.1)	682(27.2)	427(17.1)	149(6.0)	84(3.4)	2,503(100.0)
군	남성	1,120(24.6)	1,463(32.1)	1,549(34.0)	172(3.8)	158(3.5)	4,557(100.0)
	여성	1,852(35.2)	1,430(27.2)	1,411(26.8)	249(4.7)	156(3.0)	5,266(100.0)

도농복합시

군

[그림 4-41]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 연령대별 평생교육 미참여 이유를 각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도농복합시는 29세 이하와 30~40대 주민은 '시간이 없어서'가 가장 큰 이유로, 응답 비율은 각각 38.4%, 47.4%였다. 반면, 50~60대는 '관심이 없어서(37.3%)', 70세 이상은 '건강 또는 나이(51.8%)'로 나타났다. 군 지역의 주민의 경우, 29세 이하, 30~40대, 50~60대의 주요 이유로 '시간이 없어서(41.9%, 51.1%, 42.5%)'를 제시한 반면, 70세 이상의 절반이상인 56.0%는 '건강 또는 나이'를 언급하였다.

[표 4-37]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분		건강 또는 나이	관심 없음	시간 없음	교육장소가 멀고 교통 불편	정보 부족	계
도농	29세 이하	2(1.4)	44(31.9)	53(38.4)	18(13.0)	6(4.3)	138(100.0)
	30-40대	14(3.9)	103(28.5)	171(47.4)	24(6.6)	23(6.4)	361(100.0)
	50-60대	194(12.8)	564(37.3)	507(33.5)	121(8.0)	90(6.0)	1,512(100.0)
	70세 이상	969(51.8)	598(32.0)	167(8.9)	90(4.8)	37(2.0)	1,870(100.0)
군	29세 이하	5(1.5)	112(34.0)	138(41.9)	15(4.6)	31(9.4)	329(100.0)
	30-40대	47(3.4)	342(24.8)	706(51.1)	70(5.1)	74(5.4)	1,381(100.0)
	50-60대	519(13.6)	1,280(33.5)	1,626(42.5)	196(5.1)	137(3.6)	3,823(100.0)
	70세 이상	2,401(56.0)	1,159(27.0)	490(11.4)	140(3.3)	72(1.7)	4,290(100.0)

도농복합시	군

[그림 4-42]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 전북 농촌주민에게 향후 배우고 싶은 교육을 질문한 결과,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농촌주민 각각 41.9%, 37.7%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건강 관련 교육(16.7%, 16.8%)'으로 나타났다.

[표 4-38]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희망교육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계
도농복합	없음 1,673(41.9)	건강 관련 669(16.7)	스포츠, 레저 관련 367(9.2)	컴퓨터(스마트폰) 관련 356(8.9)	직업, 업무 관련 283(7.1)	3,997 (100.0)
군 읍면	없음 4,519(37.7)	건강 관련 2,008(16.8)	컴퓨터(스마트폰) 관련 1,210(10.1)	스포츠, 레저 관련 1,113(9.3)	직업, 업무 관련 1,043(8.7)	12,988 (100.0)

○ 성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지역의 응답 분포를 살펴본 결과, 두 지역 모두 남녀 주민은 '향후 배우고 싶은 교육이 없다', '건강 관련 교육' 등 순서로 응답하였다.

[표 4-39]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희망교육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계
도농	남성	없음 716(40.3)	건강 관련 277(15.6)	스포츠, 레저 관련 218(12.3)	컴퓨터 관련 194(10.9)	직업, 업무 관련 172(9.7)	1,776 (100.0)
	여성	없음 967(43.5)	건강 관련 392(17.6)	문화, 교양 관련 200(9.0)	컴퓨터 관련 162(7.3)	스포츠, 레저 관련 149(6.7)	2,221 (100.0)
군	남성	없음 2,005(36.3)	건강 관련 842(15.2)	스포츠, 레저 관련 676(12.2)	컴퓨터 관련 662(12.0)	직업, 업무 관련 572(10.4)	5,525 (100.0)
	여성	없음 2,514(38.9)	건강 관련 1,166(18.0)	문화, 교양 관련 590(9.1)	컴퓨터 관련 548(8.5)	직업, 업무 관련 471(4.3)	6,463 (100.0)

○ 연령별로 희망하는 교육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도농복합시의 29세 이하와 30~40대 농촌주민은 ‘스포츠, 레저 관련 교육(26.7%, 21.6%)’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50~60대와 70세 이상은 ‘없다(31.6%, 49.0%)’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20세 이하는 ‘직업 및 업무 관련 교육(22.5%)’, 30~40대는 ‘없음(20.5%)’, 50~60대와 70세 이상은 ‘건강 관련 교육(18.6%, 14.6%)’이었다. 군 지역 주민의 경우, 29세 이하는 ‘컴퓨터(스마트폰 포함) 관련 교육(23.2%)’, 30~40대 ‘스포츠, 레저 관련 교육(19.4%)’, 50~60대와 70세 이상 ‘없음(30%, 62.4%)’으로 응답하였다. 29세 이하와 30~40대는 다음으로 ‘직업 및 업무 관련 교육(22.8%, 17.1%)’, 50~60대와 70세 이상(18.9%, 18.9%)은 ‘건강 관련 교육’을 제시하였다.

[표 4-40]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희망교육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계
도농	29세 이하	스포츠, 레저 관련 51(26.7)	직업, 업무 관련 43(22.5)	컴퓨터 관련 34(17.8)	191(100.0)
	30-40대	스포츠, 레저 관련 99(21.6)	없음 94(20.5)	직업, 업무 관련 (80(17.5)	458(100.0)
	50-60대	없음 523(31.6)	건강 관련 308(18.6)	컴퓨터 관련 201(12.2)	1,653(100.0)
	70세 이상	없음 1,034(49.0)	건강 관련 309(14.6)	문화, 교양 관련 92(4.4)	2,112(100.0)
군	29세 이하	컴퓨터 관련 134(23.2)	직업, 업무 관련 132(22.8)	스포츠, 레저 관련 126(21.8)	578(100.0)
	30-40대	스포츠, 레저 관련 416(19.4)	직업, 업무 관련 368(17.1)	컴퓨터 관련 311(14.5)	2,148(100.0)
	50-60대	없음 1,479(30.0)	건강 관련 932(18.9)	컴퓨터 관련 606(12.3)	4,936(100.0)
	70세 이상	없음 2,700(62.4)	건강 관련 819(18.9)	문화, 교양 관련 173(4.0)	4,326(100.0)

○ 전북 농촌주민이 문화예술 관람, 여행, 스포츠 활동, 컴퓨터 게임, 휴식 등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를 살펴보았다.[38]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농촌주민의 여가생활 만족 정도를 살펴보면, 두 지역 모두 절반가량이 '보통' 정도로 응답하였다(48.7%, 48.3%). 두 지역의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불만족' 응답 비율은 지역 내에서 도농복합시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만족'은 군 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두 지역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도농복합시는 3.00점, 군 지역은 3.14점으로 군 지역의 주민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8) '2019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하였다.

[표 4-41]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여가생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x2
불만족	870(25.4)	2,158(20.8)	44.92***
보통	1,670(48.7)	5,007(48.3)	
만족	891(26.0)	3,197(30.9)	
계	3,431(100.0)	10,362(100.0)	
만족도 (5점 척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t
	3.00	3.14	-7.37***

*** p<0.001

[그림 4-43]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여가생활 만족도

○ 각 지역 내 남성과 여성 농촌주민 간 여가생활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농촌 주민 절반가량이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해 보통 수준의 만족을 보였다. 군 지역의 경우, 남녀 농촌주민의 만족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만족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가생활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표 4-42]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여가생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불만족	374(24.7)	496(25.9)	911(19.2)	1,247(22.2)
보통	737(48.7)	933(48.6)	2,306(48.6)	2,701(48.1)
만족	402(26.6)	489(25.5)	1,531(32.2)	1,666(29.7)
계	1,513(100.0)	1,918(100.0)	4,748(100.0)	5,614(100.0)
x2	0.81		16.92***	
만족도 (5점 척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3.03	2.98	3.17	3.11
t	1.39		3.64***	

*** p<0.001

[그림 4-44]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여가생활 만족도 분포

[그림 4-45]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여가생활 만족도

○ 농촌주민의 연령대별 여가생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도농복합시와 군의 지역적 특성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도농복합시 모든 연령대 농촌주민은 여가생활에 대해 '보통' 수준의 만족정도를 보였다. 군 지역의 경우, 연령대별 만족 응답비율 분포의 차이를 보였다. 29세 이하는 44.2%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각각 30~40대, 50~60대, 70세 이상의 44.3%, 46.3%, 53.0%는 '보통'으로 나타났다. 29세 이하 농촌주민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3.37점으로 타 연령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43]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여가생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불만족	39 (27.5)	97 (26.9)	348 (25.2)	386 (25.0)	77 (17.6)	392 (24.2)	843 (20.1)	846 (20.6)
보통	58 (40.8)	165 (45.8)	659 (47.7)	788 (51.0)	167 (38.2)	719 (44.3)	1,944 (46.3)	2,177 (53.0)
만족	45 (31.7)	98 (27.2)	376 (27.2)	372 (24.1)	193 (44.2)	512 (31.5)	1,408 (33.6)	1,084 (26.4)
계	142 (100.0)	360 (100.0)	1,383 (100.0)	1,546 (100.0)	437 (100.0)	1,623 (100.0)	4,195 (100.0)	4,107 (100.0)
χ2	10.04				110.50***			
만족도 (5점 척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3.10	2.99	3.02	2.98	3.37	3.11	3.18	3.07
t	0.94				18.63***			

*** p<0.001

[그림 4-46]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여가생활 만족도 분포

[그림 4-47]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여가생활 만족도

5. 정주기반

○ 전북 농촌주민의 정주 여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주거환경', '거주공간', '지역 환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전북 농촌 주거환경의 질을 살펴보기 위해 농촌주민의 주거환경 만족도를 측정하였다.[39] 농촌 주거 환경 만족도는 '녹지공간', '편의시설 접근성', '문화·여가시설', '교통편리성'으로 구분하여 각각 측정되었다. 각 영역별 도농복합시 농촌주민의 만족 정도를 살펴본 결과, 녹지공간의 경우, 전체 중 절반이상인 57.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주민은 전체 중 32.7%이었다. 편의시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체 중 39.3%가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35.5%)', '만족(25.2%)' 등 순이었다. 도농복합시 농촌지역의 문화여가시설에 대해 주민들은 '불만족(43.3%)', '보통(36.3%)', '만족(20.2%)' 순으로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교통편리성은 전체 중 40.2%가 '보통'으로 평가되었으며, 다음으로 '불만족(31.0%)', '만족(28.8%)' 순으로 나타났다.

○ 군 지역의 주민의 녹지공간, 편의시설 접근성, 문화여가시설, 교통편리성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녹지공간의 경우, 절반 이상인 64.6%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면, 다음으로 '보통(30.9%)'으로 평가하였다. 편의시설 접근성에 대해 주민은 '만족(42.8%)', '보통(35.7%)', '불만족(21.5%)' 순으로 응답하였다. 문화여가시설과 관련하여 '만족'의 응답률은 37.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보통'과 '불만족'은 각각 27.0%, 27.0%이었다. 마지막으로, 군 지역의 교통편리성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42.2%)', '보통(36.0%)', '불만족(21.0%)' 순으로 나타났다.

39) '2019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하였다.

[표 4-44]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주거환경 만족도(분포)

(단위: 명, %)

구분		녹지공간	편의시설 접근성	문화여가시설	교통편리성
도농복합	불만족	339(9.9)	1,347(39.3)	1,490(43.4)	1,063(31.0)
	보통	1,123(32.7)	1,218(35.5)	1,247(36.3)	1,380(40.2)
	만족	1,969(57.4)	866(25.2)	694(20.2)	988(28.8)
	계	3,431(100.0)	3,431(100.0)	3,431(100.0)	3,431(100.0)
군	불만족	470(4.5)	2,230(21.5)	2,800(27.0)	2,265(21.9)
	보통	3,199(30.9)	3,702(35.7)	3,687(27.0)	3,729(36.0)
	만족	6,693(64.6)	4,430(42.8)	3,875(37.4)	4,369(42.2)
	계	10,362(100.0)	10,362(100.0)	10,362(100.0)	10,362(100.0)
$x2$		149.67***	518.65***	452.83***	219.84***

*** p<0.001

[그림 4-48]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주거환경 만족도(분포)

[표 4-45]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주거환경 만족도

(5점 척도)

구분	녹지공간	편의시설 접근성	문화여가시설	교통편리성
도농복합시	3.66	2.82	2.70	2.98
군	3.90	3.32	3.17	3.30
t	-12.80***	-23.56***	-22.28***	-15.43***

*** p<0.001

[그림 4-49]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주거환경 만족도(5점 척도)

○ 녹지공간에 대한 연령대별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도농복합시의 농촌주민의 경우, 모든 연령그룹의 농촌주민은 녹지공간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30~40대의 '보통' 응답 비율은 타 연령집단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만족 수준은 29세 이하(3.49점)와 30~40대(3.49점)가 50~60대(3.70점)와 70세 이상(3.67점)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군 지역의 녹지공간의 연령대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집단의 절반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4-46]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녹지공간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불만족	19 (13.4)	38 (10.6)	143 (10.3)	139 (9.0)	24 (5.5)	110 (6.8)	201 (4.8)	135 (3.3)
보통	50 (35.2)	150 (41.7)	408 (29.5)	515 (33.3)	168 (38.4)	569 (35.1)	1,178 (28.1)	1,284 (31.3)
만족	73 (51.4)	172 (47.8)	832 (60.2)	892 (57.7)	245 (56.1)	944 (58.2)	2,816 (67.1)	2,688 (65.4)
계	142 (100.0)	360 (100.0)	1,383 (100.0)	1,546 (100.0)	437 (100.0)	1,623 (100.0)	4,195 (100.0)	4,107 (100.0)
x2	25.63***				81.65***			
만족도 (5점 척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3.49	3.49	3.70	3.67	3.72	3.74	3.94	3.94
t	6.49***				28.43			

*** p<0.001

[그림 4-50]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녹지공간 만족도(분포)

[그림 4-51]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녹지공간 만족도

○ 편의시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았다. 도농복합시의 농촌주민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29세 이하의 56.3%와 50~60대의 40.6%가 '불만족'을 표했으며, 30~40대와 70세 이상은 '불만족(41.7%, 36.0%)'과 '보통(40.0%, 38.7%)'을 응답하였다. 29세 이상의 편의시설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는 2.51점으로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군 지역의 경우,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모두 군 지역의 편의시설 접근성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율은 각각 38.9%, 40.2%, 45.5%, 41.3%이었다. 29세 이하는 전체 중 26.5%가 '불만족'을 응답하며, 타 연령그룹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29세 이하의 만족도는 3.1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군 지역 농촌주민의 만족 정도는 도농복합시 농촌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47]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편의시설 접근성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불만족	80 (56.3)	150 (41.7)	561 (40.6)	556 (36.0)	116 (26.5)	392 (24.2)	887 (21.1)	835 (20.3)
보통	31 (21.8)	144 (40.0)	445 (32.2)	598 (38.7)	151 (34.6)	578 (35.6)	1,398 (33.3)	1,575 (38.3)
만족	31 (21.8)	66 (18.3)	377 (27.3)	392 (25.4)	170 (38.9)	653 (40.2)	1,910 (45.5)	1,697 (41.3)
계	142 (100.0)	360 1!00.0)	1,383 (100.0)	1,546 (100.0)	437 (100.0)	1,623 (100.0)	4,195 (100.0)	4,107 (100.0)
x2	43.89***				41.65***			
만족도 (5점 척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51	2.71	2.85	2.85	3.17	3.24	3.37	3.32
t	6.21***				14.65***			

*** p<0.001

[그림 4-52]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편의시설 접근성 만족도

[그림 4-53]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편의시설 접근성 만족도

○ 다음은 농촌주민의 연령대별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도농통합시 읍면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29세 이하, 30~40대, 50~60대는 문화여가시설에 대해 '불만족'을 표했다(61.3%, 45.3%, 45.8%). 70세 이상 주민은 '보통(40.6%)'과 '불만족(39.2%)'로 응답하고 있어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보였다. 29세 이하의 만족도는 2.41점으로 타 연령그룹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군 지역 주민의 경우, 29세 이하는 '보통(34.8%)', '불만족(33.2%)', '만족(32.0%)'을 응답한 비율이 비슷하였다. 30~40대 역시 전체 중 35.6%는 '보통', 33.3% '만족', 31.1% '불만족'으로 응답하였다. 50~60대 주민은 전체 중 40.1%가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70세 이상은 '보통(38.5%)', '만족(36.8%)'으로 평가하였다. 2.97점인 29세 이하 주민의 만족도는 타 연령대 주민의 만족도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4-48]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불만족	87 (61.3)	163 (45.3)	634 (45.8)	606 (39.2)	145 (33.2)	504 (31.1)	1,135 (27.1)	1,016 (24.7)
보통	31 (21.8)	140 (38.9)	448 (32.4)	628 (40.6)	152 (34.8)	578 (35.6)	1,377 (32.8)	1,580 (38.5)
만족	24 (16.9)	57 (15.8)	301 (21.8)	312 (20.2)	140 (32.0)	541 (33.3)	1,683 (40.1)	1,511 (36.8)
계	142 (100.0)	360 (100.0)	1,383 (100.0)	1,546 (100.0)	437 (100.0)	1,623 (100.0)	4,195 (100.0)	4,107 (100.0)
x2	47.34***				61.74***			
만족도 (5점 척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41	2.62	2.70	2.75	2.97	3.04	3.21	3.20
t	5.88**				14.65***			

** p<0.01, *** p<0.001

[그림 4-54]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그림 4-55]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문화여가시설 만족도

○ 마지막으로, 전북 농촌지역의 교통 편리성에 대한 연령대별 평가를 살펴보았다. 도농복합시 농촌주민 중 29세 이하 주민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교통에 대해 45.1%가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40대, 50~60대, 70세 이상은 '보통'으로 평가하였으며, 응답 비율은 각각 42.8%, 37.8%, 42.8%이었다. 이 중 29세 이하의 만족도는 2.69점으로 타 연령그룹의 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군 지역의 29세 이하와 30~40대 주민은 '만족(36.2%, 38.8%)', '보통(37.1%, 37.2%)'로 지역 교통 편리를 평가하였으며, 50~60대와 70세 이상은 '만족(44.6%, 41.7%)'으로 응답하였다. 20세 이하의 만족도는 3.12점으로 나타났으며, 타 연령그룹의 만족도에 비교해 다소 낮았다. 도농통합시 농촌주민의 만족도는 군 지역 주민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4-49]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교통편리성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불만족	64 (45.1)	118 (32.8)	427 (30.9)	454 (29.4)	117 (26.8)	390 (24.0)	896 (21.4)	862 (21.0)
보통	42 (29.6)	154 (42.8)	523 (37.8)	661 (42.8)	162 (37.1)	604 (37.2)	1,429 (34.1)	1,534 (37.4)
만족	36 (25.4)	88 (24.4)	433 (31.3)	431 (27.9)	158 (36.2)	629 (38.8)	1,870 (44.6)	1,711 (41.7)
계	142 (100.0)	360 (100.0)	1,383 (100.0)	1,546 (100.0)	437 (100.0)	1,623 (100.0)	4,195 (100.0)	4,107 (100.0)
$x2$	25.26***				31.74***			
만족도 (5점 척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69	2.86	3.03	2.98	3.12	3.19	3.35	3.30
t	6.19***				11.72***			

*** p<0.001

[그림 4-56]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교통 편리성 만족도

[그림 4-57]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교통 편리성 만족도

○ 주거환경의 질을 확인하기 위해 녹지공간, 편의시설 접근성, 문화여가시설, 교통 편리성에 대한 농촌주민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다음은 농촌주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버스)에 대한 만족과 불편 사항을 확인해 보았다.[40]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대중교통을 이용한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과 각 세부 영역(쾌적성, 정시성, 친절성, 편리성)별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도농통합시와 군 지역 농촌주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두 지역 모두 농촌주민의 절반 이상이 대중교통의 쾌적성(63.4%, 60.0%), 정시성(55.1%, 55.8%), 친절성(57.2%, 54.0%), 편리성(49.7%, 53.4%)에 대해 '만족'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대중교통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52.3%, 52.1%).

40) '2019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하였다.

[표 4-50]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대중교통(버스) 만족도(분포)

(단위: 명, %)

구분		전반적	쾌적성	정시성	친절성	편리성
도농복합	불만족	222(10.7)	87(4.2)	194(9.4)	209(10.1)	331(16.0)
	보통	766(37.0)	671(32.4)	736(35.5)	679(32.8)	711(34.3)
	만족	1,085(52.3)	1,315(63.4)	1,143(55.1)	1,185(57.2)	1,031(49.7)
	계	2,073(100.0)	2,073(100.0)	2,073(100.0)	2,073(100.0)	2,073(100.0)
군 읍면	불만족	329(5.8)	240(4.2)	336(5.9)	529(9.3)	568(9.9)
	보통	2,412(42.2)	2,048(35.8)	2,192(38.3)	2,103(36.8)	2,098(36.7)
	만족	2,976(52.1)	3,429(60.0)	3,189(55.8)	3,085(54.0)	3,051(53.4)
	계	5,717(100.0)	5,717(100.0)	5,717(100.0)	5,717(100.0)	5,717(100.0)
χ^2		63.05***	8.18*	30.47***	10.87**	54.22***

* p〈0.05, ** p〈0.01, *** p〈0.001

○ 도농통합시와 군 지역 농촌주민의 만족도는 모든 영역에서 보통 이상의 만족 수준을 보여주었다.

[표 4-51]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대중교통(버스) 만족도

(5점 척도)

구분	전반적	쾌적성	정시성	친절성	편리성
도농복합	3.57	3.72	3.63	3.59	3.54
군 읍면	3.60	3.76	3.67	3.63	3.55
t	-1.51	-1.85	-2.20*	-1.81	-0.65

* p〈0.05

○ 전북 농촌주민의 거주공간의 질을 살펴보기 위하여 도시통합시와 군 지역 내 읍면부 주민에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질문하였다.[41] 두 지역의 농촌주민의 절반 이상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41) '2019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하였다.

며, '만족' 응답 비율은 각각 51.2%, 56.0%이었다. 도농통합시와 군 지역 주민의 주택만족도는 각각 3.53점, 3.69점으로 군 지역 농촌주민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상대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2]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주택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x2$
불만족	437(12.7)	1,022(9.9)	33.82***
보통	1,238(36.1)	3,3538(34.1)	
만족	1,756(51.2)	5,802(56.0)	
계	3,431(100.0)	10,362(100.0)	
만족도 (5점 척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t
	3.53	3.69	-8.20***

*** p<0.001

[그림 4-58]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주택만족도

○ 전북 농촌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환경의 질을 살펴보기 위하여 농촌주민의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평가를 확인해 보았다.[42] 농촌주민이 평가할 지역사회 안전 분야는 전반적인 사회안전 인식과 함께, 자연재해(태풍, 홍수, 지진 등), 건축물 및 시설물(붕

42) '2020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하였다.

괴, 폭발 등), 교통사고, 산불 포함 화재, 먹거리(불량식품, 식중독 등), 신종전염병(신종바이러스 등), 범죄위험이었다. 도농통합시 농촌주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식하였다(53.1%). 분야별 안전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자연재해(60.1%), 건축물 및 시설물(63.4%), 교통사고(47.6%), 화재(56.8%), 먹거리(65.8%), 범죄위험(47.0%)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하였으나 신종전염병에 대해서는 전체 중 63.8%가 안전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군 지역 주민이 인식하는 지역사회 안전 정도를 살펴보면, 전라북도 군 지역은 주민 전체 중 절반 이상인 57.6%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신종전염병을 제외하고 응답자 절반 이상이 자연재해(57.1%), 건축물 및 시설물(60.0%), 교통사고(53.6%), 화재(55.3%), 먹거리(63.6%), 범죄위험(55.1%)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하였다. 신종전염병의 경우, 군 지역 주민 중 42.2%는 '안전'하다고 인식하였으나 41.4%는 안전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표 4-53]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단위: 명, %)

구분		전반적	자연재해	건축물 및 시설물	교통사고	화재	먹거리	신종전염병	범죄위험
도농복합	불안	75 (23.1)	798 (24.4)	503 (15.4)	873 (26.7)	623 (19.1)	383 (11.7)	2,083 (63.8)	935 (28.6)
	보통	776 (23.8)	503 (15.4)	693 (21.2)	837 (25.6)	788 (24.1)	733 (22.5)	377 (11.6)	794 (24.3)
	안전	1,734 (53.1)	1,963 (60.1)	2,068 (63.4)	1,554 (47.6)	1,853 (56.8)	2,148 (65.8)	804 (24.6)	1,535 (47.0)
	계	3,264 (100.0)	3,264 (100.0)	3,264 (100.0)	3,264 (100.0)	3,264 (100.0)	3,264 (100.0)	3,264 (100.0)	3,264 (100.0)
군 읍면	불안	1,460 (14.3)	2,048 (20.1)	1,340 (13.2)	1,786 (17.5)	1,669 (16.4)	1,126 (11.1)	4,213 (41.4)	1,760 (17.3)
	보통	2,859 (28.1)	2,323 (22.8)	2,734 (26.9)	2,933 (28.8)	2,884 (28.3)	2,582 (25.4)	1,673 (16.4)	2,815 (27.7)
	안전	5,861 (57.6)	5,809 (57.1)	6,106 (60.0)	5,461 (53.6)	5,627 (55.3)	6,472 (63.6)	4,293 (42.2)	5,605 (55.1)
	계	10,180 (100.0)	10,180 (100.0)	10,180 (100.0)	10,180 (100.0)	10,180 (100.0)	10,180 (100,0)	10,180 (100,0)	10,180 (100.0)
x2		140.77 ***	9048 ***	44.42 ***	131.91 ***	23.37 ***	11.39**	504.90 ***	199.23 ***

** p<0.01, *** p<0.001

○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농촌주민이 인식하고 있는 지역사회 안전 정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인식, 교통사고, 신종전염병, 범죄위험에서 두 지역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도농복합시 농촌주민은 군 지역 주민에 비교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내 전반적인 안전(3.32점, 3.51점), 교통사고(3.25점, 3.44점), 신종전염병(3.44점, 3.47점), 범죄위험(3.20점, 3.45점)에 인식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4-54]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단위: 명, %)

구분	전반적	자연 재해	건축물 및 시설물	교통 사고	화재	먹거리	신종 전염병	범죄 위험
도농복합	3.32	3.41	3.55	3.25	3.44	3.64	3.32	3.20
군 읍면	3.51	3.44	3.57	3.44	3.47	3.65	3.94	3.45
t	-9.72***	-1.56	-0.72	-9.75***	-1.86	-0.41	-24.75***	-12.20***

*** p<0.001

[그림 4-59]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신종 바이러스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안전 평가를 성별로 확인한 결과, 도농복합시 농촌주민의 남녀 모두 절반이상(62.4%, 64.9%)이 불안하다고 인식하였으나, 군 지역의 경우, 남성의 42.8%가 '안전하다', 40.4%는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여성의 경우, 전체 중 42.2%가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 '불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안전(41.7%)하다'고 평가하였다. 도농복합시 농촌주민의 신종 바이러스 등에 대한 안전은 남녀 모두 군 지역의 주민에 비해 불안전하다고 인식하였다.

[표 4-55]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안전인식도

(단위: 명, %)

구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불안	896(62.4)	1,187(64.9)	1,875(40.4)	2,338(42.2)
보통	177(12.3)	200(10.9)	781(16.8)	893(16.1)
안전	363(25.3)	441(24.1)	1,986(42.8)	2,307(41.7)
계	1,436(100.0)	1,828(100.0)	4,642(100.0)	5,538(100.0)
x2	2.58		3.54	
만족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35	2.29	2.95	2.92
t	1.43		1.47	

[그림 4-60]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신종 바이러스 등에 대한 안전인식도

[그림 4-61]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신종 바이러스 등에 대한 안전인식도

○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안전 평가를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도농복합시의 경우,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모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신종 바이러스 등에 취약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중 절반이상으로, 응답 비율은 각각 57.0%, 59.1%, 63.0%, 66.3%이었다. 70세 이상의 안전 인식도는 2.25점으로 타 연령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군 지역 주민 중 29세 이하와 30~40대는 절반가량(47.2%, 43.1%)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신종 바이러스 등에 안전하다고 인식하였으나, 50~60대와 70세 이상은 '불안하다(42.9%, 43.4%)'와 '안전하다(41.6%, 41.7%)'의 응답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50~60대와 70세 이상의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안전도는 각각 2.90점과 2.92점으로 29세 이하(3.13점), 30~40대(2.98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두 지역 간 연령대별 안전 인식도는 연령그룹과 상관없이 동일 연령대에서 도농복합시 농촌주민이 군 지역의 주민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4-56]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안전인식도

(단위: 명, %)

구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불안	69 (57.0)	204 (59.1)	848 (63.0)	962 (66.3)	133 (29.9)	642 (36.4)	1,731 (42.9)	1,707 (43.4)
보통	20 (16.5)	51 (14.8)	153 (11.4)	153 (10.5)	102 (22.9)	360 (20.4)	626 (15.5)	586 (14.9)
안전	32 (26.4)	90 (26.1)	346 (25.7)	336 (23.2)	210 (47.2)	760 (43.1)	1,682 (41.6)	1,641 (41.7)
계	121 (100.0)	345 (100.0)	1,347 (100.0)	1,451 (100.0)	445 (100.0)	1,762 (100.0)	4,039 (100.0)	3,934 (100.0)
χ^2	13.00*				70.41***			
만족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54	2.39	2.36	2.25	3.13	2.98	2.90	2.92
t	4.00**				5.22**			

* p〈0.05, ** p〈0.01, *** p〈0.001

[그림 4-62]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신종 바이러스 등에 대한 안전인식도

[그림 4-63]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신종 바이러스 등에 대한 안전인식도

○ 성별별 지역 내 범죄위험에 대한 안전 인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 도농복합시의 농촌주민 중 남성은 절반가량(49.1%)이 범죄로부터 지역사회가 안전하다고 평가한 반면, 여성은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5.4%로 가장 높았으나 30.9%는 '불안전하다'고 응답하였다. 남성(3.72점)은 여성(3.15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죄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의 주민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전체 중 절반이상이 지역사회 내 생활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평가하였으며(56.7%, 53.6%), 다음으로 '보통 수준(27.4%, 27.9%)'이라고 응답하였다. 남성과 여성인 인식하는 안전수준은 남성이 3.49점, 여성 3.42점으로 여성이 상대적으로 범죄로부터 불안전하다고 인식하였다.

[표 4-57]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범죄위험에 대한 안전인식도

(단위: 명, %)

구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불안	370(25.8)	565(30.9)	737(15.9)	1,023(18.5)
보통	361(25.1)	433(23.7)	1,271(27.4)	1,544(27.9)
안전	705(49.1)	830(45.4)	2,634(56.7)	2,971(53.6)
계	1,436(100.0)	1,828(100.0)	4,642(100.0)	5,538(100.0)
x2	10.45**		14.46**	
만족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3.27	3.15	3.49	3.42
t	3.12**		3.74***	

** p<0.01, *** p<0.001

[그림 4-64]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범죄위험에 대한 안전인식도 분포

[그림 4-65]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성별 범죄위험에 대한 안전인식도

○ 연령대별 지역 내 범죄로부터 안전한지를 질문한 결과, 도농복합시에 거주하는 농촌주민의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모두 '안전'하다고 평가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응답 비율은 각각 41.5%, 46.7%, 46.2%, 48.4%이었다. 다음으로, 29세 이하와 30~40대 주민은 지역사회의 범죄에 대한 안전을 '보통(31.4%, 30.7%)'수준으로 인식하였으며, 50~60대와 70세 이상은 '불안하다(29.8%, 29.1%)'고 응답하였다. 군 지역의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모두 절반이상이 지역 내 생활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하였으며(50.6%, 52.6%, 56.1%, 55.7%), 다음으로 안전 수준은 '보통(34.2%, 28.8%, 27.2%, 26.9%)'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범죄로부터 안전 인식 정도는 30~40대가 3.37점으로 타 연령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4-58]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범죄위험에 대한 안전인식도

(단위: 명, %)

구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29세 이하	30~ 40대	50~ 60대	70세 이상	29세 이하	30~ 40대	50~ 60대	70세 이상
불안	33 (27.3)	78 (22.6)	402 (29.8)	422 (29.1)	68 (15.3)	328 (18.6)	678 (16.8)	686 (17.4)
보통	38 (31.4)	106 (30.7)	323 (24.0)	327 (22.5)	152 (34.2)	508 (28.8)	1,097 (27.2)	1,068 (26.9)
안전	50 (41.3)	161 (46.7)	622 (46.2)	702 (48.4)	225 (50.6)	926 (52.6)	2,264 (56.1)	2,190 (55.7)
계	121 (100.0)	345 (100,0)	1,347 (100.0)	1,451 (100.0)	445 (100.0)	1,762 (100.0)	4,039 (100.0)	3,934 (100.0)
x2	17.14**				16.97**			
만족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29세 이하	30~ 40대	50~ 60대	70세 이상	29세 이하	30~ 40대	50~ 60대	70세 이상
	3.21	3.22	3.19	3.21	3.41	3.37	3.47	3.48
t	0.13				5.72**			

** p<0.01

[그림 4-66]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대별 범죄위험에 대한 안전인식도

[그림 4-67]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연령별 범죄위험에 대한 안전인식도

○ 농촌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의 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 환경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역 환경의 질을 파악하였다.[43]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지역 환경의 질을 살펴보면, 미세먼지, 악취, 매연, 오존경보 등 대기환경에 대해 두 지역 농촌주민의 절반이상이 '좋다(58.8%, 64.8%)'고 평가하였다. 반면, 도농복합시 농촌주민의 26.1%는 대기환경이 '좋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하천, 지천, 지하수, 음용수 등 지역 수질환경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농촌주민의 절반 이상이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 비율은 각각 64.2%, 68.2%였다. 살고 있는 지역 내 쓰레기, 농약, 폐기물 등으로 인한 오염 정도를 물어본 결과, 두 지역 모두 절반이상의 주민(57.7%, 62.2%)이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보통(21.9%, 22.9%)'으

43) '2020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하였다.

로 평가하였다. 거주 지역에서 자동차, 철도, 건설소음 등 소음·진동을 체감하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농촌주민 모두 전체 중 60%이상(60.2%, 67.4%)이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도농복합시 농촌주민의 체감 정도는 '나쁨(21.1%)', 군 지역 주민은 '보통(22.4%)'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연경관 및 공원, 녹지 등을 포괄하는 녹지 환경에 대한 두 지역 농촌주민의 평가를 살펴보면, 전체 중 65% 이상이(67.1%, 73.1%) '좋다'고 응답하였다. 농촌주민의 각 영역별 군 지역 주민의 환경체감도에 대해 '좋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도농복합시 농촌주민의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59]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환경체감도(분포)

(단위: 명, %)

구분		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
도농복합	나쁨	852(26.1)	544(16.7)	666(20.4)	690(21.1)	528(16.2)
	보통	494(15.1)	625(19.1)	716(21.9)	608(18.6)	545(16.7)
	좋음	1,918(58.8)	2,095(64.2)	1,882(57.7)	1,966(60.2)	2,191(67.1)
	계	3,265(100.0)	3,264(100.0)	3,264(100.0)	3,264(100.0)	3,264(100.0)
군 읍면	나쁨	1,717(16.9)	1,026(10.1)	1,526(15.0)	1,039(10.2)	696(6.8)
	보통	1,866(18.3)	2,216(21.8)	2,327(22.9)	2,279(22.4)	2,039(20.0)
	좋음	6,597(64.8)	6,938(68.2)	6,327(62.2)	6,882(67.4)	7,445(73.1)
	계	10,180(100.0)	10,180(100.0)	10,180(100.0)	10,180(100.0)	10,180(100.0)
$x2$		138.962***	105.68***	53.53***	265.37***	263.51***

*** $p<0.001$

대기환경

수질환경

토양환경

소음·진동환경

녹지 환경

[그림 4-68]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의 환경체감도

○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농촌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대기, 수질, 토질, 소음·진동, 녹지 환경에 대해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녹지 환경에 대해 두 지역의 농촌주민들의 평가는 그 이외의 환경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이었다. 또한, 군 지역의 주민의 환경체감도는 도농복합시 농촌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4-60]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환경체감도

(단위: 명, %)

구분	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 환경
도농복합	3.44	3.63	3.50	3.52	3.72
군 읍면	3.69	3.81	3.67	3.82	3.97
t	-10.96***	-9.19***	-8.09***	-13.62***	-12.37***

*** p<0.001

[그림 4-69]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환경체감도

6. 경제·일자리

○ 전북 농촌주민의 경제적 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직활동의 어려운 이유, 임금근로자의 경제활동, 소득만족도, 소비생활만족도 등 경제활동 및 실태를 살펴보았다.[44] 전라북도 사회조사가 진행된 2019년을 기준으로 지난 1년 간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취업의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구직활동을 한 도농복합시 농촌주민 344명 중 40.4%는 '일자리 부족'을 취업이 어려운 이유로 보았으며, 도 지역 주민들의 경우, '희망직종과 고용조건이 맞지 않아(27.3%)' 구직의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표 4-61] 구직활동의 어려움

(단위: 명, %)

구분	희망직종과 고용조건 불일치	역량 부족	임금수준 불만족	취업 정보 부족	일자리 부족	어려움 없음	계	x2
도농복합	94 (27,3)	29 (8.4)	29 (8.4)	28 (8.1)	139 (40.4)	16 (4.7)	344 (100.0)	29.40***
군 읍면	385 (33.6)	103 (9.0)	85 (7.4)	98 (8.6)	312 (27.2)	118 (10.3)	1,145 (100.0)	

*** p<0.001

○ 종사상 '임금근로자'인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의 근로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도농복합시 농촌 임금근로자 158명과 군 지역 임금근로자 533명을 대상으로 현재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함께, 업무, 임금, 복리후생, 고용안정성, 근무환경(안전, 위생상태 등),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현재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의 경우, 도농복합시 농촌 임금근로자는 일자리에 대해 '불만족(43.1%)'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군 지역 임금근로자는 '보통(39.6%)'이거나 '만족(37.3%)'한다고 응답하였다. 업무에 대한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농촌 임금근로자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도농복합시는 업무에 대해 '불만족(36.1%)' 또는 '만족(34.8%)'하

44) '2020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하였다.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 지역은 '보통(40.3%)'과 '만족(42.0%)'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업무에 비해 현재 받고 있는 임금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도농복합시 농촌 임금근로자의 절반이상인 51.9%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군 지역은 '불만족(35.3%)'과 '보통(35.1%)'의 응답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현재 일자리에 대한 고용안정성에 대해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농촌 임금근로자 모두 '불만족(48.6%, 38.0%)'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 응답 비율은 도농복합시가 군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농복합시 농촌 임금근로자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한 다소 불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2] 농촌 임금근로자의 근로여건 만족도(분포)

(단위: 명, %)

구분		전반적	업무	임금	복지 후생	고용 안정성	근무 환경	근무 시간
도농복합	불만족	68 (43.0)	57 (36.1)	82 (51.9)	62 (44.0)	71 (48.6)	58 (36.7)	53 (33.5)
	보통	46 (29.1)	46 (29.1)	43 (27.2)	47 (33.3)	39 (26.7)	41 (25.9)	44 (27.8)
	만족	44 (27.8)	55 (34.8)	33 (20.9)	32 (33.7)	36 (24.7)	59 (37.3)	61 (38.6)
	계	158 (100.0)	158 (100.0)	158 (100.0)	141 (100.0)	146 (100.0)	158 (100.0)	158 (100.0)
군 읍면	불만족	123 (23.1)	94 (17.6)	189 (35.5)	187 (36.7)	197 (38.0)	130 (18.8)	101 (18.9)
	보통	211 (39.6)	215 (40.3)	187 (35.1)	203 (39.8)	183 (35.3)	205 (38.5)	211 (39.6)
	만족	199 (37.3)	224 (42.0)	157 (29.5)	120 (23.5)	139 (26.8)	198 (37.1)	221 (41.5)
	계	533 (100.0)	533 (100.0)	533 (100.0)	510 (100.0)	519 (100.0)	533 (100.0)	533 (100.0)
$x2$		24.28***	24.60***	13.92**	2.78	5.91	12.16**	16.44***

** $p<0.01$, *** $p<0.001$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업무만족도

임금만족도

복지후생 만족도

고용안정성 만족도

근무환경 만족도

근로시간 만족도

[그림 4-70]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근로여건 만족도

○ 농촌 임금근로자의 근로여건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도농복합시 농촌 임금근로자의 만족도는 군 지역의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특히, 현재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업무, 임금, 근무환경, 근로시간에서 지역적 차이를 보였다.

[표 4-63] 농촌 임금근로자의 근로여건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전반적	업무	임금	복지 후생	고용 안정성	근무 환경	근로 시간
도농복합	2.87	3.02	2.66	2.71	2.70	3.01	3.06
군 읍면	3.18	3.34	2.96	2.85	2.88	3.20	3.31
t	-3.64***	-3.63**	-3.39**	-1.49	-1.86	-1.99*	-2.71**

* p<0.05, ** p<0.01, *** p<0.001

[그림 4-71] 농촌 임금근로자의 근로여건 만족도

○ 현재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서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본 결과, 도농복합시의 남녀 농촌 임금근로자는 현재 일자리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 비율은 41.9%, 48.3%였다. 남성의 경우, 다음으로 '불만족(29,4%)', '보통(28.7%)'으로 응답하였으나, 두 응답의 비율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군 지역의 남녀 임금근로자의 경우, 남녀 모두 절반가량(49.7%, 48.4%)이 현재 일자리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은 '보통(34.4%, 39.7%)'으로 선택하였다.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모두 남성 임금근로자의 근로여건 만족도는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특히, 군 지역 여성 임금근로자의 만족도는 도농복합시 남녀 농촌 임금근로자와 군 지역 남성 임금근로자에 비교해 높게 나타났다.

[표 4-64] 농촌 임금근로자의 성별 근로여건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불만족	85(29.4)	54(18.2)	189(15.9)	166(11.9)
보통	83(28.7)	99(33.4)	409(34.4)	552(39.7)
만족	121(41.9)	143(48.3)	592(49.7)	674(48.4)
계	289(100.0)	296(100.0)	1,190(100.0)	1,392(100.0)
x2	10.71**		12.35**	
만족도 (5점 척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남성	여성	남성	여성
	3.17	3.39	3.42	4.35
t	-2.80**		-0.90	

** p<0.01

[그림 4-72]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의 성별 근로여건 만족도

[그림 4-73] 성별 근로여건 만족도

○ 전북 농촌사회에서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남녀 성차별이 있는지 농촌주민의 인식 정도를 살펴보았다.[45]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농촌주민 모두 절반가량인 48.1%와 47.3%가 농촌사회에 일반적으로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두 지역 농촌주민의 30% 가량은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표 4-65] 남녀 성차별 인지도

(단위: 명, %)

구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x2
그렇지 않다	978(30.0)	2,757(27.1)	21.84***
보통	715(21.9)	2,612(25.7)	
그렇다	1,571(48.1)	4,811(47.3)	
계	3,264(100.0)	10,180(100.0)	
만족도 (5점 척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t
	3.24	3.23	0.53

*** p<0.001

45) '2020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하였다.

○ 농촌주민이 농촌 노동시장에서 인식하는 성차별 정도가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도농복합시 농촌주민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의 절반가량은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응답 비율은 각각 49.3%, 50.0%, 47.1%이었다. 29세 이하의 경우, '그렇지 않다(38.8%)', '그렇다(36.4%)' 순으로 응답하였으나, 응답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군 지역의 주민의 경우,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모두 남녀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각각 44.9%, 51.4%, 50.0%, 42.9%의 비율을 보였다. 군 지역 주민 중 30~40대가 경험하는 성차별 정도는 3.37점으로 타 연령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66] 연령대별 남녀 성차별 인지도

(단위: 명, %)

구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그렇지 않다	47 (38.8)	104 (30.1)	382 (28.4)	445 (30.7)	103 (23.1)	398 (22.6)	1,066 (26.4)	1,190 (30.2)
보통	30 (24.8)	71 (20.6)	291 (21.6)	323 (22.3)	142 (31.9)	459 (26.0)	955 (23.6)	1,056 (26.8)
그렇다	44 (36.4)	170 (49.3)	674 (50.0)	683 (47.1)	200 (44.9)	905 (51.4)	2,018 (50.0)	1,688 (42.9)
계	121 (100.0)	345 (100.0)	1,347 (100.0)	1,451 (100.0)	445 (100.0)	1,762 (100.0)	4,039 (100.0)	3,934 (100.0)
$x2$	10.39				75.17***			
만족도 (5점 척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93	3.26	3.29	3.22	3.23	3.37	3.27	3.13
t	4.75**				23.35***			

** $p<0.01$, *** $p<0.001$

○ 전북 농촌주민의 경제 여건을 살펴보기 위해 소득만족도와 소비생활 만족도를 확인하였다.[46] 현재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이 있는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소득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도농복합시 농촌주민 2,350명 중 절반가량인 48.9%가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 지역의 7,082명 중 41.0%는 불만족, 35.2%는 보통으로 응답하였다. 두 지역 모두 농촌주민의 소득만족도는 3.00점에 못 미치는 보통 이하였으며, 도농복합시의 소득만족도가 군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4-67] 소득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x2$
불만족	1,149(48.9)	2,905(41.0)	66.56***
보통	623(26.5)	2,495(35.2)	
만족	578(24.6)	1,682(23.8)	
계	2,350(100.0)	7,082(100.0)	
만족도 (5점 척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t
	2.72	2.83	-4.64***

*** p<0.001

[그림 4-74] 소득만족도

46) '2020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하였다.

○ 연령대별 소득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도동복합시 농촌주민 중 연령그룹 모두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세 이상의 소득만족도는 절반이상인 54,3%가 '불만족'으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불만족 응답률이 높은 연령대는 50~60대로, 46.8%로 나타났다. 군 지역 농촌주민의 경우, 50~60대와 70세 이상 모두 전체 중 40% 이상(41.1%, 45.8%)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불만족을 언급하였으며, 타 연령그룹에 비해 불만족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도농복합시 농촌주민 중 70세 이상의 소득만족도는 2.59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29세 이하를 제외하고 보통 이하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군 지역의 경우, 70세 이상은 29세 이하, 30~40대, 50~6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만족 정도(2.68점)를 보였다.

[표 4-68] 연령대별 소득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불만족	16 (34.8)	94 (37.5)	473 (46.8)	566 (54.3)	69 (37.9)	446 (32.5)	1,239 (41.1)	1,151 (45.8)
보통	15 (32.6)	73 (29.1)	277 (27.4)	258 (24.8)	63 (34.6)	515 (37.5)	995 (33.0)	922 (36.7)
만족	15 (32.6)	84 (33.5)	261 (25.8)	218 (20.9)	50 (27.5)	412 (30.0)	782 (25.9)	438 (17.4)
계	46 (100.0)	251 (100.0)	1,011 (100.0)	1,042 (100.0)	182 (100.0)	1,373 (100.0)	3,016 (100.0)	2.511 (100.0)
x2	34.13***				118.72***			
만족도 (5점 척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3.14	2.92	2.78	2.59	2.89	3.01	2.86	2.68
t	13.30***				35.23***			

*** p<0.001

[그림 4-75]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의 연령대별 소득만족도

[그림 4-76] 연령대별 소득만족도

○ 전북 농촌주민이 현재 의식주, 여가 및 취미생활 등을 위한 소비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도농복합시에 거주하는 농촌주민의 절반가량인 47.0%가 현재 소비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군 지역 주민의 소비생활에 대해 전체 중 40.1%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모두 농촌주민은 자신의 소비생활에 대해 보통 이하 수준의 만족을 보였으며, 도농복합시는 군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4-69] 소비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x2
불만족	1,495(47.0)	3,551(36.0)	187.57***
보통	865(27.2)	3,955(40.1)	
만족	822(25.8)	2,348(23.8)	
계	3,182(100.0)	9,854(100.0)	
만족도 (5점 척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t
	2.77	2.89	-6.20***

*** p<0.001

[그림 4-77] 소비만족도

○ 연령대별 현재의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도농복합시 농촌주민의 경우,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모두 현재 자신의 소비생활에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70세 이상은 절반이상인 51.3%가 소비생활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도농복합시 농촌주민의 소비만족 정도는 70세 이상이 2.67점으로 타 연령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9세 이하를 제외한 30~40대, 50~60대, 70세 이상의 소비만족도는 보통 이하 수준이었다. 군 지역 주민의 소비생활 만족도를 살펴보면, 50~60대, 70세 이상을 제외하고 29세 이하와 30~40대는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 수준을 '보통'으로 평가하였으며, 50~60대와 70세 이상 역시 '보통(38.1%, 41.1%)'을 선택했으나 '불만족(36.3%, 39.5%)'과 응답 비

율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군 지역 50~60대와 70세 이상의 소비생활 만족 수준은 각각 2.91점과 2.79점으로,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표 4-70] 연령대별 소비만족도

(단위: 명, %)

구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불만족	26 (24.1)	134 (40.0)	604 (45.9)	731 (51.3)	128 (30.7)	487 (28.8)	1,413 (36.3)	1,523 (39.5)
보통	40 (37.0)	102 (30.4)	353 (26.8)	370 (26.0)	177 (42.4)	712 (42.1)	1,484 (38.1)	1,582 (41.1)
만족	42 (38.9)	99 (29.6)	358 (27.2)	323 (22.7)	112 (26.9)	494 (29.2)	994 (25.5)	748 (19.4)
계	108 (100.0)	335 (100.0)	1,315 (100.0)	1,424 (100.0)	417 (100.0)	1,693 (100.0)	3,891 (100.0)	3,853 (100.0)
x2	42.95***				103.33***			
만족도 (5점 척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3.32	2.92	2.80	2.67	3.06	3.04	2.91	2.79
t	21.58***				38.00***			

*** p<0.001

[그림 4-78]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의 연령대별 소비만족도

[그림 4-79] 연령대별 소비만족도

7. 공동체

○ 공동체터로서 농촌사회의 협력과 통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농촌주민의 지역정체성, 공동체 의식, 다문화가구에 대한 인식을 통해 살펴보았다.[47] 전북 농촌주민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어느 정도 소속감을 느끼는지를 살펴본 결과,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농촌주민의 75% 이상(76.8%, 79.4%)이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도농복합시 농촌주민의 지역정체성은 군 지역의 주민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4-71] 지역정체성

(단위: 명, %)

구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x2$
없다	756(23.2)	2,099(20.6)	9.56**
있다	2,508(76.8)	8,081(79.4)	
계	3,264(100.0)	10,180(100.0)	
만족도 (4점 척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t
	2.93	3.02	-6.42***

** p<0.01, *** p<0.001

[그림 4-80] 지역정체성

47) '2020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하였다.

○ 농촌주민의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정체성이 연령대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도농복합시 농촌주민의 절반이상이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소속감이 없다고 응답한 29세 이하와 30~40대 농촌주민의 비율은 각각 48.8%, 40.9%로 소속감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51.2%, 59.1%)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농촌지역 주민으로서의 지역정체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 주민의 경우,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모두 절반이상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29세 이하 주민의 경우, 소속감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42.0%로 나타났으며, 소속감이 있다고 응답한 주민의 비율과 차이가 없었다. 군 지역 역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지역소속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2] 연령대별 지역정체성

(단위: 명, %)

구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없다	59 (48.8)	141 (40.9)	298 (22.1)	258 (17.8)	187 (42.0)	572 (32.5)	711 (17.6)	629 (16.0)
있다	62 (51.2)	204 (59.1)	1,049 (77.9)	1,193 (82.2)	258 (58.0)	1,190 (67.5)	3,328 (82.4)	3,305 (84.0)
계	121 (100.0)	345 (100.0)	1,347 (100.0)	1,451 (100.0)	445 (100.0)	1,762 (100.0)	4,039 (100.0)	3,934 (100.0)
x2	129.76***				349.54***			
만족도 (4점 척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51	2.66	2.94	3.02	2.60	2.78	3.06	3.13
t	42.83***				155.01***			

*** p<0.001

[그림 4-81]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의 연령대별 지역정체성

[그림 4-82] 연령대별 지역정체성

○ 농촌사회의 공동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촌주민의 지역(동네)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정도를 살펴보았다. 지역 내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지 질문한 결과,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농촌주민의 6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67.4%, 63.9%).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자주 하는지 물어보았을 때,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절반이상인 58.6%와 56.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나,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20% 이상으로 나타났다(25.2%, 22.4%).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잘 도와주는 상호 도움 제공에 대해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농촌주민의 절반이상(58.7%, 57.1%)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나, 도농복합시 농촌주민의 경우 23.1%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 참여 정도를 살펴본 결과, 두 지역 농촌주민 모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55.8%, 52.2%로 나타났으나, 25%이상의 농촌주민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다(27.4%, 26.2%).

[표 4-73] 공동체 의식(분포)

(단위: 명, %)

구분		친밀감	대화	도움	참여
도농복합	그렇지 않다	541(16.6)	823(25.2)	753(23.1)	893(27.4)
	보통	524(16.1)	528(16.2)	594(18.2)	551(16.9)
	그렇다	2,199(67.4)	1,913(58.6)	1,917(58.7)	1,820(55.8)
	계	3,264(100.0)	3,264(100.0)	3,264(100.0)	3,264(100.0)
군 읍면	그렇지 않다	1,538(15.1)	2,276(22.4)	1,969(19.3)	2,664(26.2)
	보통	2,132(20.9)	2,157(21.2)	2,395(23.5)	2,205(21.7)
	그렇다	6,510(63.9)	5,747(56.5)	5,816(57.1)	5,311(52.2)
	계	10,180(100.00	10,180(100.0)	10,180(100.0)	10,180(100.0)
$x2$		37.81***	41.86***	49.62***	34.86***

*** $p<0.001$

○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농촌주민의 동네 사람과의 친밀감, 대화, 상호 도움제공, 공동체 활동 참여 정도를 살펴보았을 때, 5점 만점 중 3점 이상으로, 보통 이상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4] 공동체 의식

(5점 척도)

구분	친밀감	대화	도움	참여
도농복합	3.70	3.48	3.50	3.42
군 읍면	3.67	3.49	3.53	3.38
t	1.35	-0.46	-1.25	1.44

○ 연령대별로 지역(동네) 사람들과의 친밀감 정도를 살펴본 결과, 도농복합시 농촌주민 중 50~60대와 70세 이상은 절반이상이 서로 잘 알고 지낸다고 응답한 반면, 29세 이하는 전체 중 절반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30~40대의 경우, 주민들과 서로 잘 알고 지낸다는 주민의 비율은 37.4%, 그렇지 않다는 38.8%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지역주민과의 친밀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 주민 역시 50~60대와 70세 이상은 절반 이상이 높은 친밀감을 보였으며, 29세 이하는 친밀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으며(41.6%), 30~40대는 친밀하다(32.1%)와 그렇지 않다(37.7%)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군 지역 주민 또한 연령대가 낮을수록 지역 주민들과 잘 알고 지내는 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5] 연령대별 공동체 의식(친밀감)

(단위: 명, %)

구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그렇지 않다	61 (50.4)	134 (38.8)	191 (14.2)	155 (10.7)	185 (41.6)	565 (32.1)	523 (12.9)	265 (6.7)
보통	37 (30.6)	82 (23.8)	221 (16.4)	184 (12.7)	149 (33.5)	533 (30.2)	817 (20.2)	633 (16.1)
그렇다	23 (19.0)	129 (37.4)	935 (69.4)	1,112 (76.6)	111 (24.9)	664 (37.7)	2,699 (66.8)	3,036 (77.2)
계	121 (100.0)	345 (100.0)	1,347 (100.0)	1,451 (100.0)	445 (100.0)	1,762 (100.0)	4,039 (100.0)	3,934 (100.0)
x2	368.28***				1296.898***			
만족도 (5점 만점)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55	2.97	3.75	3.92	2.76	3.05	3.73	3.99
t	141.79***				516.07***			

*** p<0.001

[그림 4-83]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의 연령대별 공동체 의식(친밀감)

[그림 4-84] 연령대별 공동체 의식(친밀감)

○ 연령대별로 지역 주민과 동네 이야기를 자주 하는지 물어본 결과,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모두 50~60대와 70세 이상은 전체 중 절반이상이 대화를 자주한다고 응답하였으나, 29세 이하와 30~40대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 연령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도농복합시 29세 이하 농촌주민의 경우, 전체 중 74.4%가 자주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두 지역 모두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지역 주민과의 대화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6] 연령대별 공동체 의식(대화)

(단위: 명, %)

구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그렇지 않다	90 (74.4)	181 (52.5)	294 (21.8)	258 (17.8)	242 (54.4)	761 (43.2)	803 (19.9)	470 (11.9)
보통	23 (19.0)	66 (19.1)	227 (16.9)	212 (14.6)	134 (30.1)	481 (27.3)	848 (21.0)	694 (17.6)
그렇다	8 (6.6)	98 (28.4)	826 (61.3)	981 (67.6)	69 (15.5)	520 (29.5)	2,388 (59.1)	2,770 (70.4)
계	121 (100.0)	345 (100.0)	1,347 (100.0)	1,451 (100.0)	445 (100.0)	1,762 (100.0)	4,039 (100,0)	3,934 (100.0)
x2	291.83***				1318.71***			
만족도 (5점 만점)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14	2.69	3.56	3.70	2.45	2.81	3.56	3.84
t	151.17***				539.34***			

*** p<0.001

[그림 4-85]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의 연령대별 공동체 의식(대화)

[그림 4-86] 연령대별 공동체 의식(대화)

○ 농촌주민의 지역주민들 간의 상호 도움제공 정도를 살펴보았다.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모두 50~60대와 70세 이상은 전체 중 60%이상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도와준다고 응답하였다. 도농복합시의 경우, 29세 이하와 30~40대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군 지역의 경우 29세 이하는 절반가량인 47.2%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30~40대는 '도와준다(31.6%)'와 '그렇지 않다(35.6%)'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도농복합도시와 군 지역 모두 연령대가 낮을수록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잘 도와주는 기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7] 연령대별 공동체 의식(상호도움제공)

(단위: 명, %)

구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그렇지 않다	73 (60.3)	155 (44.9)	259 (19.2)	266 (18.3)	210 (47.2)	627 (35.6)	671 (16.6)	461 (11.7)
보통	30 (24.8)	86 (24.9)	237 (17.6)	241 (16.6)	149 (33.5)	579 (32.9)	908 (22.5)	759 (19.3)
그렇다	18 (14.9)	104 (30.1)	851 (63.2)	944 (65.1)	86 (19.3)	556 (31.6)	2,460 (60.9)	2,714 (69.0)
계	121 (100.0)	345 (100,0)	1,347 (100.0)	1,451 (100.0)	445 (100.0)	1,762 (100.0)	4,039 (100.0)	3,934 (100.0)
x2	282.81***				1088.33***			
만족도 (5점 만점)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39	2.80	3.61	3.66	2.61	2.93	3.61	3.82
t	111.22***				434.75***			

*** p<0.001

[그림 4-87]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의 연령대별 공동체 의식(상호 도움제공)

[그림 4-88] 연령대별 공동체 의식(상호 도움제공)

○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모두 50~60대(60.8%, 56.9%)와 70세 이상(62.6%, 64.0%) 농촌주민의 절반이상은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달리, 29세 이하(74.4%, 53.9%)와 30~40대(62.7%, 47.9%)는 동네의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두 지역의 29세 이하와 30~40대의 공동체 활동 참여 정도는 보통 이하 수준이었다. 또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동네의 행사와 모임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8] 연령대별 공동체 의식(공동체 참여)

(단위: 명, %)

구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그렇지 않다	90 (74.4)	186 (53.9)	301 (22.3)	316 (21.8)	279 (62.7)	844 (47.9)	889 (22.0)	652 (16.6)
보통	19 (15.7)	78 (22.8)	227 (16.9)	227 (15.6)	116 (26.1)	474 (26.9)	851 (21.1)	764 (19.4)
그렇다	12 (9.9)	81 (23.5)	819 (60.8)	908 (62.6)	50 (11.2)	444 (25.2)	2,299 (56.9)	2,518 (64.0)
계	121 (100.0)	345 (100.0)	1,347 (100.0)	1,451 (100.0)	445 (100.0)	1,762 (100.0)	4,039 (100.0)	3,934 (100.0)
x2	352.03***				1257.78***			
만족도 (5점 만점)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07	2.60	3.56	3.60	2.25	2.67	3.51	3.70
t	139.68***				523.99***			

*** p<0.001

[그림 4-89]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의 연령대별 공동체 의식(공동체 활동 참여)

[그림 4-90] 연령대별 공동체 의식(공동체 활동 참여)

○ 전북 농촌사회의 포용력과 문화 다양성 수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문화가구 인식을 다문화가구에 대한 관심과 다문화가구 증가에 대한 인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평소에 다문화가구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지 물어본 결과, 도농복합시와 도 지역 농촌주민은 공통적으로 '관심이 없다(37.8%, 37.0%)'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도농복합시는 '관심이 있다(32.7%)', 군 지역은 '보통(32.5%)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 농촌주민의 다문화가구 관심 정도가 도농복합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4-79] 다문화가구 관심도

(단위: 명, %)

구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x2
관심 없음	1,141(37.8)	3,565(37.0)	10.44**
보통	890(29.5)	3,126(32.5)	
관심 있음	986(32.7)	2,932(30.5)	
계	3,017(100.0)	9,623(100.0)	
만족도 (5점 척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t
	2.99	2.90	3.87***

*** p<0.001

[그림 4-91] 다문화가구 관심도

○ 평소 농촌주민이 갖고 있는 다문화가구에 대한 관심 정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았을 때, 도농복합시 농촌주민 중 29세 이하와 70세 이상은 '관심이 없다(39.4%, 43.2%)', 30~40대와 50~60대는 '관심이 있다(35.0%, 36.3%)'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군 지역 농촌주민의 경우, 또한 29세 이하와 70세 이상은 '관심 없음(41.8%, 46.1%)'으로 나타났으며, 50~60대는 '관심이 있다(36.2%)'고 응답하였다. 30~40대의 경우, '보통(35.9%)'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지만, 34.7%가 응답한 '관심 있음'과 수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농촌주민 중 다문화가구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집단은 70세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4-80] 연령대별 다문화가구 관심도

(단위: 명, %)

구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관심 없음	39 (39.4)	94 (31.6)	415 (33.3)	593 (43.2)	175 (41.8)	477 (29.4)	1,163 (30.7)	1,760 (46.1)
보통	30 (30.3)	99 (33.3)	379 (30.4)	382 (27.8)	149 (35.6)	584 (35.9)	1,258 (33.3)	1,135 (29.9)
관심 있음	30 (30.3)	104 (35.0)	453 (36.3)	399 (29.0)	95 (22.7)	564 (34.7)	1,362 (36.2)	911 (24.0)
계	99 (100.0)	297 (100.0)	1,247 (100.0)	1,374 (100.0)	419 (100.0)	1,625 (100.0)	3,783 (100.0)	3,796 (100.0)
$x2$	34.70***				276.87***			
만족도 (5점 척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3.21	3.34	3.09	2.83	2.75	3.11	3.07	2.66
t	19.99***				117.83***			

*** $p<0.001$

[그림 4-92]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의 연령대별 다문화가구 관심도

[그림 4-93] 연령대별 다문화가구 관심도

○ 전북 농촌주민의 다문화가구 증가에 대한 의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 도농복합시 농촌주민 중 42.8%가 다문화가구 증가 현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군 지역 주민의 40.2%는 '보통'으로 응답하였다. 두 지역 농촌주민은 보통 이상 수준의 반응을 보였다.

[표 4-81] 다문화가구 증가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x2
부정적	742(25.1)	2,037(21.6)	62.69***
보통	949(32.1)	3,786(40.2)	
긍정적	1,263(42.8)	3,592(38.2)	
계	2,954(100.0)	9.415(100.0)	
만족도 (5점 척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t
	3.32	3.26	2.82**

** p<0.01, *** p<0.001

[그림 4-94] 다문화가구 증가현상에 대한 인식

○ 농촌주민의 연령대별 다문화가구의 증가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도농복합시 농촌주민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은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반면, 29세 이하 농촌주민 중 절반이상인 51.0%는 부정도 긍정도 아닌 '보통'으로 응답하였다. 29세 이하의 다문화가구 증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타 연령그룹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 주민의 경우, 29세 이하, 30~40대, 70세 이상은 다문화가구 증가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나, 50~60대는 '긍정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군 지역 주민 중 70세 이상 주민의 다문화가구 증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상대적으로 29세 이하, 30~40대, 50~6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4-82] 연령대별 다문화가구 증가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부정적	17 (17.3)	51 (17.6)	293 (24.1)	381 (28.2)	89 (21.9)	323 (20.0)	726 (19.6)	899 (24.3)
보통	50 (51.0)	113 (39.0)	376 (30.9)	410 (30.4)	192 (47.3)	712 (44.1)	1,372 (37.1)	1,510 (40.9)
긍정적	31 (31.6)	126 (43.4)	126 (43.4)	558 (41.4)	125 (30.8)	579 (35.9)	1,605 (43.3)	1,283 (34.8)
계	98 (100.0)	290 (100.0)	290 (100.0)	1,349 (100.0)	406 (100.0)	1,614 (100,0)	3,703 (100.0)	3,692 (100.0)
$x2$	36.58***				87.73***			
만족도 (5점 척도)	도농복합시 읍면				군 읍면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9세 이하	30~40대	50~60대	70세 이상
	2.49	3.51	3.36	3.22	3.20	3.27	3.35	3.17
t	11.32***				24.44***			

*** $p<0.001$

[그림 4-95]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의 연령대별 다문화가구 증가에 대한 인식

[그림 4-96] 연령대별 다문화가구 증가에 대한 인식

8. 소결 및 시사점

○ 전라북도 농촌주민의 주관적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과 2020년에 시행된 '전라북도 사회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2019년 전라북도 사회조사'의 조사영역은 '교육', '보건·의료', '주거·교통', '환경', '여가·문화', '안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은 '인구', '가구·가족', '소득·소비', '고용·노사', '복지', '사회참여'를 포함하고 있다. '전라북도 사회조사'는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의 910개 조사구 13,515가구의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9년 사회조사는 2019년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2020년 사회조사는 2020년 8월 19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되었다.

○ 농촌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파악하기 위해 전주시를 제외하고 13개 시군의 읍·면부에 거주하고 있는 조사대상자를 추출하여 2019년은 13,793명, 2020년은 13,444명의 원자료를 재분석하였다. 농촌주민의 주관적인 삶의 질을 살펴보기 위하여 도농복합시(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와 군 지역(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으로 구분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 특성을 분석하였다.

○ 전북 농촌주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9년은 자신의 건강상태, 재정상태, 사회적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2020년은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지역생활 만족도, 행복감을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2019년 전북 농촌주민의 건강상태, 재정상태, 사회적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대해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건강상태와 재정상태 만족도는 사회적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정생활 분야에서 군 지역 농촌주민은 도농복합시 농촌주민에 비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교해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 재정상태, 사회생활에서 남녀 간 차이가 존재했으며, 군 지역의 경우, 남성은 여성과 비교해 자신의 가정생활에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또한 전북 농촌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70세 이상 농촌노인은 자신의 건강, 재정, 사회적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에 대해 타 연령의 농촌주민

보다 만족 수준이 낮았다. 특히 70세 이상 노인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 다소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으며, 도농복합시의 경우, 재정상태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않았다. 2020년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농촌주민은 현재 자신의 삶, 지역사회에서의 삶에 대해 낮은 만족감을 보였으며, 일상에서 낮은 행복감을 보였다. 군 지역의 경우, 남성 농촌주민은 3개 분야 모두 여성보다 삶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삶과 일상에서의 감정에 있어,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70세 이상 농촌주민들은 타 연령에 비해 다소 낮은 만족감을 보였다. 군 지역에 거주하는 29세 이하 농촌주민은 지역사회에서의 삶에 대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일자리, 공동체 등 생활여건에 대한 농촌주민의 주관적인 평가 및 만족을 살펴보았다. 전북 농촌주민의 보건·복지실태를 살펴보면, 전북 농촌주민 절반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운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 관심 없음과 시간 부족으로 응답하였으며, 도농복합시 농촌주민은 관심 없음을 군 지역 농촌주민은 시간 부족을 주로 언급하였다. 그 외 건강과 나이를 이유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모두 70세 이상 농촌주민은 관심이 없어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 지역의 경우, 건강, 나이듦 등을 중요한 이유로 언급하였다. 그 외 연령의 농촌주민에게 시간 부족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전북 농촌의 의료 여건을 살펴본 결과, 농촌주민은 현재 의료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농복합도시 농촌주민의 만족도가 군 지역 농촌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연령대별로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농복합시 30~40대 농촌주민과 군 지역의 29세 이하와 30~40대 농촌주민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출산·육아·임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북 농촌주민의 절반가량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군 지역의 농촌주민은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률이 도농복합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출산·육아·임신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모두 40대 이하는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타 연령에 비해 높았다. 전북 농촌의 출산·육아·임신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지 않은 도농복합시 40대 이하 농촌주민과 군 지역 29세 이하 주민 비율이 타 연령의 농촌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도농복합시 30~40대 농촌주민은 출산·육아·임신 사회복지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군 지역 29세 이하 농촌주민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모두 30~40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 수준을 보였다.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30~40대 농촌주민의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군 지역의 29세 이하 주민은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65세 이상 농촌노인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와 정책욕구를 살펴보면, 농촌노인은 건강, 경제적 소외, 외로움 등을 가장 심각한 노인문제로 인식하였다. 도농복합시 농촌 여성노인과 군 지역 농촌 남성노인은 건강을 중요한 노인문제로 인식하였다. 도농복합시 85세 이상 노인은 건강문제, 경제적 소외뿐만 아니라 외로움을 심각한 노인문제로 응답하였다. 전북 농촌노인이 가장 희망하는 복지서비스는 의료서비스 확대로 나타났다. 그 외, 도농복합도시 농촌노인은 소외노인 지원서비스, 군 지역 농촌노인은 여가복지시설 확충을 언급하였다. 의료서비스 확대를 제외한 노인복지서비스 중, 도농복합시는 74세 이하 노인은 여가복지시설 확충, 75세 이상은 소외노인 지원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군 지역의 경우, 74세 이하 노인은 노인일자리 제공, 75세는 여가복지시설 확충을 희망하였다. 전북 농촌노인은 확충이 필요한 노인복지시설로 노인복지관과 치매노인전문시설을 선택하였다. 노인복지관을 제외한 노인복지시설 중, 군 지역 노인은 치매노인전문시설과 함께 요양병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농촌노인의 연령에 따라 전북 농촌지역에 필요한 노인복지시설의 유형에 차이를 보였다. 도농복합시 75세~85세 미만 농촌노인은 치매노인전문시설, 군 지역 85세 이상 노인은 요양병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다음은, 농촌주민의 평생교육과 여가생활 실태를 통해 이들의 교육 및 문화여건을 살펴보았다. 자기개발, 취미여가 등을 위해 평생교육 경험을 가지고 있는 농촌주민은 주로 공공기관의 평생교육원 강좌를 수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복합시 농촌주민에게 지역문화센터나 백화점문화센터, 군 지역 농촌주민에게 직장이 평생교육을 위한 중요한 공간 중 하나였다. 남성 농촌주민은 직장에서 평생교육을 경험하는 한편, 도농복합시 농촌 여성주민은 지역문화센터 또는 백화점문화센터, 군 지역 농촌 여성주민은 공공기관의 평생교육원의 강좌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농촌주민의 평생

교육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세 이하 농촌주민은 TV 및 인터넷을 통해 자기개발, 취미여가 등을 위한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복합시 50~60대 농촌주민은 공공기관의 평생교육원 또는 지역문화센터·백화점문화센터의 평생교육 강좌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복합시 70세 이상 농촌주민과 군 지역 50세 이상 농촌주민은 주로 공공기관의 평생교육원을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장소로 선택했다.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농촌주민들은 건강 또는 나이, 관심 없음, 시간 없음 등을 주 이유로 응답하였다. 특히, 도농복합시 농촌주민은 관심 없음을 주로 언급하였다. 농촌 남성주민은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주 이유로 건강 또는 나이를 꼽았지만, 도농복합시 여성주민은 관심 없음, 군 지역 여성주민은 시간 없음으로 언급하였다. 연령 또한 농촌주민의 평생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쳤다. 70세 이상 농촌주민은 건강 또는 나이로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 70세 미만 농촌주민은 시간 없음 또는 관심 없음을 언급하였다. 농촌주민이 희망하는 평생교육은 건강, 스포츠·레포츠, 컴퓨터 등 관련 교육으로 나타났다. 여성주민은 건강 관련 교육에 관심이 있었으며, 남성주민은 건강, 스포츠·레포츠, 컴퓨터 관련 교육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9세 이하 주민은 스포츠·레포츠 또는 컴퓨터 관련 교육, 30~40대는 스포츠·레포츠 관련 교육을 희망하였으나, 50대 이상 농촌주민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주민의 절반가량이 문화예술 관람, 여행, 휴식 등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 농촌주민이 여가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도농복합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군 지역 남성주민이 여성보다 여가활동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군 지역 29세 이하 주민의 여가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살펴보기 위해 주거환경, 거주공간, 지역 환경 등을 중심으로 정주기반을 살펴보았다. 농촌지역의 녹지공간에 대한 농촌주민의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편의시설의 접근성의 경우, 도농복합시 농촌주민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군 지역 농촌주민은 만족스럽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농촌지역의 문화여가시설과 관련하여, 도농복합시 농촌주민은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군 지역 농촌주민은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통편리성에 대한 농촌주민의 만족도에 대해 도농복합시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주민이 많았으며, 군 지역은 만족한다고 응답한 주민이 많았다. 도농복합시 농촌주민은 편의시설

접근성, 문화여가시설, 교통편리성에 대해 보통 이하의 만족 수준을 보였다. 편의시설 접근성과 관련하여, 군 지역 농촌주민의 응답 중 만족이 가장 많았으나, 도농복합시는 연령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29세 이하 농촌주민의 편의시설 접근성에 대해 절반이상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으며, 30~40대와 70세 이상은 대다수가 보통 이하라고 응답하였다. 여가문화시설에 대한 만족 정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도농복합시 60대 이하 주민은 절반가량이 불만족스럽다고 언급하였다. 보통 이하의 만족 수준을 보인 농촌주민은 도농복합시의 모든 연령 주민과 군 지역 29세 이하 주민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통편리성의 경우, 도농복합시 29세 이하 주민 절반가량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와 달리, 군 지역 50대 이상 주민은 교통편리성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촌지역 주민의 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모두 대중교통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했으며, 대중교통의 쾌적성, 정시성, 친절성, 편리성 부문에서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만족 수준은 보통 이상이었다. 농촌주민의 거주공간인 집의 질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았다.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모두 농촌주민 절반이상 자신의 주택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북 농촌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환경의 질을 자연재해, 건축물 및 시설물, 교통사고, 화재, 먹거리, 신종 전염병, 범죄위험 등에 대한 안전을 통해 살펴보았다.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농촌주민의 절반이상은 자신의 지역사회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하였다. 전반적인 지역안전 인식과 함께, 자연재해, 건축물 및 시설물, 교통사고, 화재, 먹거리, 범죄위험에 대해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모두 농촌주민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신종 전염병에 대해 도농복합시 농촌주민은 절반이상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군 지역 주민은 안전하다고 응답한 주민과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주민 간 비율이 차이가 크게 없었다.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 군 지역의 농촌주민 중 40대 이하는 신종 바이러스에 안전하다고 응답하였으나 50대 이상은 안전과 함께 불안전하다고 응답하는 그룹으로 나눠졌다. 도농복합시 70세 이상 농촌노인은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 가장 불안해하는 그룹으로 나타났다. 도농복합시 여성의 지역사회 내 범죄위험에 대해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도농복합시 남성주민과 군 지역 주민에 비해 높았으며,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지역사회가 범죄에 취약하다고 응답한 도농복합시 50대 이상 여성의 비율

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안전과 함께, 농촌주민의 환경체감도를 통해 지역 환경의 질을 살펴보았다. 농촌주민은 지역 내 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전북 농촌주민은 농촌의 대기, 수질, 녹지환경에 대해 절반이상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쓰레기, 농약, 폐기물 등에 따른 토양환경과 자동차, 철도 등 소음·진동에 대해 농촌주민의 평가에서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도농복합시 주민이 군지역 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 경제·일자리 부문에서 농촌주민의 경제적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구직활동, 임금근로자의 근로여건, 경제생활의 성차별, 소득만족도, 소비만족도 등을 살펴보았다.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농촌주민의 경우, 취업이 어려운 이유로 도농복합시 농촌주민은 일자리 부족, 군 지역 주민은 희망직종과 고용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전북 농촌지역에서 종사상 임금근로자의 근로여건을 살펴보면, 도농복합시 농촌주민의 절반가량은 현재 일자리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반면, 군 지역 주민은 보통 이상의 만족 수준을 보였다. 도농복합시 농촌주민은 임금, 복지후생, 고용안정성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으며, 군 지역 주민은 고용안정성에 대해 주로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다.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농촌주민의 임금, 복지후생, 고용안정성에 대해 보통 이하의 만족도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근로여건 만족도를 살펴보면, 현재 일자리에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한 도농복합시 남성노인의 응답 비율은 도농복합시 여성주민과 군 지역 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도 역시 낮게 나타났다. 경제활동에서 농촌주민은 남녀 성차별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주민 모두 절반가량이 있다고 응답했다. 도농복합시 29세 이하 농촌주민을 제외하고 도농복합시 30대 이상과 군 지역의 모든 연령 주민의 절반가량은 남녀 성차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 농촌주민의 경제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소득만족도와 소비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소득이 있는 농촌주민은 도농복합시 농촌주민의 절반가량은 현재 소득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군 지역 농촌주민의 대다수는 보통 이하라고 언급하였다. 두 지역 농촌주민 모두 자신의 소득에 대해 만족스러워 하지 않았다. 연령대별로 소득만족도를 살펴보면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50대 이상 농촌주민의 절반가량이 소득에 대한 불만족을 표현하였고, 만족 수준 역시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농촌주민의 소비생활을 살펴보면, 도농복합시 주민의 절반가량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으며, 두 지역의 소비만족 수준은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도농복합시 30대 이상

농촌주민의 소비생활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 이하의 만족 수준을 보였다. 군 지역 70세 이상은 자신의 소비에 대한 만족 수준은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 삶터, 일터, 쉼터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터인 농촌지역의 협력과 통합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농촌주민의 지역정체성, 공동체 의식, 다문화가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농촌주민의 대다수가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았을 때, 도농복합시의 40대 이하와 군 지역 20세 이하 농촌주민의 지역정체성은 상대적으로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소속감 수준은 보통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도농복합시 29세 이하 농촌주민의 지역정체성은 가장 낮았다. 농촌주민의 공동체의식을 살펴보기 위해 지역 주민과의 친밀감, 대화, 상호 도움제공, 공동체 활동 참여로 나눠보았다.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농촌주민 모두 절반이상이 지역 주민과 친밀하며 상호작용을 자주하고, 상호 도움을 제공하고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다. 도농복합시 농촌주민은 지역 주민과 상호 도움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군 지역 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령대별로 공동체 의식을 살펴보면,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농촌주민 모두 40대 이하는 공동체 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사회의 포용력과 문화 다양성 수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다문화가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농촌주민 중 다문화가구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29세 이하와 70세 이상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이들은 보통 이하의 관심도를 보였다.

○ 전북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삶에 대한 만족도,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일자리, 공동체 실태를 통해 살펴보았다. 각 부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이해하는데 있어 지역, 성별, 연령이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에 따른 농촌주민의 삶의 여건이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동부와 읍면부가 혼재되어 있는 도농복합시와 읍면부로 구성된 군 지역으로 구분하여 농촌주민의 생활여건 실태와 정책욕구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농촌주민이 도농복합시 또는 군 지역에 거주함에 따라 삶의 질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경제, 사회문화, 환경적 측면에서 지리적 특성과 성별 및 연령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층적인 환경에서 농촌주민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지역과 계층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개념과 해석이 상이하기 때문에 농촌 주민의 삶의 다양한 특성과 측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부문에서 지역, 성별, 연령에 따른 생활여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을 차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역별, 계층별 상이한 정책적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영역들이 통합·연계되어 균형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 삶의 질에 대한 의미를 고려해 볼 때, 지역 간 삶의 질을 객관적이고 물리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촌주민의 삶에 대한 경험과 평가를 통한 만족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사회조사를 통해 파악한 농촌주민의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 농촌 지역의 미흡한 환경을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자료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객관적, 주관적 지표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개선 정책을 발굴·운영할 필요가 있다.

○ 농촌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과소화의 급속한 진행과 함께,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규칙과 질서가 재구성·확립되며 농촌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새로운 관점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 변화하는 전북 농촌의 구조와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개인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인 농촌지역사회의 질 증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 이 연구에서는 다층적인 환경 내에서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질을 평가하는 개인의 관점에서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농촌지역은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로서 다양한 의미를 지니며 개인의 특성(성별, 연령 등)에 따라 그 의미의 다양성은 증폭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라북도 사회조사에서 분석된 농촌주민의 삶과 공동체의 실태를 통해 지역과 지역사회 내 개인의 다양한 삶에서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이해하고자 한다. 농촌은 농촌주민의 일상이 발생하는 가장 기본적 공간이자 사회적 관계, 중앙·지방정부 및 기초자치단체의 정책, 경제, 환경 등에 의해 구성되는 광의적인 범위의 공간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분석된 농촌지역은 행정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초생활 서비스와 인프라의 차이와 공간의 특성에 따른 지역주민의 수요를 고려하여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으

로 구분하였다. 앞서 살펴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에서 생활서비스와 인프라의 두 지역 간 격차는 삶의 공간의 질을 결정하고 지역주민의 계층에 따라 주어진 생활환경에서 삶의 방식과 의미가 다양해질 수 있다.

○ 전라북도 사회조사에서 살펴본 보건의료·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일자리, 공동체 부문에서 지역적 특성과 지역 내 계층 간 특성 확인을 통해 지역단위 지역주민의 삶의 실태와 욕구를 측정할 수 있었다. 농어촌서비스기준으로 확인된 지역의 객관적 질에서 지역에서 주민들이 경험하는 지역의 특성과 질의 차이는 전라북도 사회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보건의료·복지 부문에서 지역에 의해 구성된 의료여건, 임신·출산·육아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여건, 노인문제 및 노인의 정책욕구에 대해 주민들의 경험과 평가는 지역주민의 계층에 따라 차이가 존재했다.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의료서비스와 인프라는 각 지역의 농촌주민의 만족도의 차이를 가져오며, 또한 성별과 연령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만족도의 다양성이 확장되었다. 농촌주민을 위한 평생교육과 문화여가 프로그램 및 시설, 거주공간·환경 및 지역환경, 취·창업을 위한 지원, 공동체 통합과 연계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어 지역 간 차이를 발생하였다. 인구밀도가 낮은 군 지역의 취약한 서비스와 인프라는 공동체의 질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을 낮추지만, 도시에 집중된 서비스와 인프라로 인해 도농복합시의 농촌지역은 서비스와 인프라의 소외지역으로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질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농촌주민의 경험과 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도농복합시 또는 군 지역 내에서 남성과 여성 간, 연령대 간 개인의 삶의 질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임신·출산·육아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40대 이하 농촌주민의 낮은 만족도, 현재 일자리에 대한 남성의 낮은 만족도 등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주민 간, 각 지역 내 계층에 따라 발생하는 개인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단일화된 지표로 접근할 수 없으며, 다각적이고 지역과 계층이 통합되고 연계된 관점이 요구된다.

제5장

전북 농촌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1. 주요결과 및 논의
2. 개선방안

제5장 전북 농촌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1. 주요결과 및 논의

○ 이 연구는 전북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파악하고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지표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와 주관적인 지표로 전라북도 사회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살펴보는데 있어 지역과 계층에 따른 농촌주민의 삶의 다양성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이해하는데 도시와 농촌의 특성과 수요가 혼재되어 있는 도농복합시와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 특성과 함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삶의 관점과 수요의 차이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 전북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살펴보기 위해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근거로 보건의료·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활동 4개 부문 19개 항목으로 구성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활용하여 4개 부문의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동체의 터인 농촌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촌공동체의 통합 및 연대를 파악하기 위해 농촌주민의 농촌공동체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촌주민이 개인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통해 개인의 다층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우선,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결과를 통해 전북 농촌주민의 삶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보편적인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군 지역 간의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결과의 차이를 보이며,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와 인프라 부족과 부재로 인하여 지역 간의 격차는 서비스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학령기 인구의 감소로 학교의 지속가능성 문제와 고령화에 따른 평생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지역의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여부의 차이에 따라 농촌 교육, 문화·여가분야의 인적, 물적 기반이 지역 간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교육 및 문화여건이 열악하고 취약한 지역의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기존의 공급 및 운영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전북 농촌지역의 정주여건과 관련하여, 농촌 주거 여건과 기초

생활 인프라의 지역적 특성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 농촌다움, 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며, 농업·농촌의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농촌 거주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초생활 인프라의 농촌의 전반적인 부재와 열악함은 농촌주민의 일상생활의 불편과 주거 여건의 낮은 질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북 농촌의 경제·일자리 부문에서 창업 및 사업체 운영, 취업을 위한 지원에 대한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에서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군 지역의 지원서비스의 부족과 부재를 극복할 수 있는 지역 여건에 부합되고 농촌 지역자원을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제·일자리 성장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전라북도 사회조사를 통해 살펴본 농촌주민의 삶의 질이 지역과 계층에 따른 다양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개의 부문에서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정주여건 등에서 발생하는 이질적인 특성은 개인의 삶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지 개인의 계층에 따라 지역 간, 지역 내에서 동일하지 않은 개인의 경험과 평가가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저밀도와 고령화뿐만 아니라, 장기화되고 있는 사회재난의 영향으로 인해 변화하고 있는 농촌사회의 구조적, 질적 변화는 개인의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며, 지역 내 개인의 계층에 따른 다양성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는 지역과 개인 간 격차를 넓히며, 정책 공급프로세스의 스펙트럼은 확대되어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고 균형적으로 지역과 개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와 전라북도 사회조사 결과를 통해 전북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 제고를 위한 정책은 지역단위 삶의 질 진단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정해식 외, 2020). 정책 추진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나, 지역 차원의 삶의 질 정책은 삶의 질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역단위 삶의 질 개선은 기준선을 설정 및 달성이 아니라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이는 지역 내 취약지점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을 할 수 있다. 지역단위의 삶의 질은 지역 유형에 따라 개인의 삶터, 일터, 쉼터, 공동체의 터인 삶의 공간의 질이 구성되고 공간의 요인과 개인의 사회적 위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단위의 삶의 질은 공간 차원과 개인 차원에서 함께 설명되어야 한다.

2. 개선방안

○ 농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지역 단위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물리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농촌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농촌주민이 거주하는 일상공간과 주민의 계층화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슈를 제시한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정책은 삶의 다양한 하위 영역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지역문제 및 지역 간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다.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이슈는 중앙 단위에서보다 지역 단위에서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책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지역 단위의 정책은 보건,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 영역의 사업들이 연계되어 개인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역 특성에 맞게 중앙 및 지방정부 사업들을 연계·조정하여 시행될 필요가 있다.

○ 농촌주민을 위한 지역 단위의 삶의 질 정책이 발굴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측정 지표가 필요하다(정해식 외, 2020). 삶의 질 관련 정책 집행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주민 개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독자적인 지역 단위 정책을 설계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전북 기초자치단체가 농촌지역의 자원을 연계, 통합하여 농촌주민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을 객관적, 주관적인 측면에서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차원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설계, 수행, 환류의 일련의 과정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 단위 삶의 질 정책 프로세스가 형성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전북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와 사회조사는 조사대상자, 시기, 지역 등의 불일치로 전북 농촌 주민의 동일한 현상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인 평가의 근거로 사용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역 단위 삶의 질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 다음은, 전북 농촌지역의 중요과목 진료 가능한 의료여건의 열악함 또는 의료기관의 부재로 인해 낮아지는 서비스의 질과 서비스 접근성 대한 농촌중심의 의료·건강안전망 체계 확대가 필요하다. 건강실천에 소홀한 농촌주민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심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보건·의료정책과 의료 취약지역·계층을 위

한 의료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의료 취약지역의 경우, 농촌주민의 건강행태와 보건의료 인프라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예방 차원과 치료·관리 차원이 모두 고려된 통합적인 보건의료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전북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와 과소화는 농촌 인구구조의 변화를 의미하며, 주민의 생애주기별 보건의료 정책욕구 또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 농촌지역 인구 중 노인인구가 절반가량 또는 절반이상을 차지하면서 고령인구의 일상생활상 심신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고령 농업인의 건강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 전북의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교육 및 생활돌봄에 대한 수요가 변화하면서 지역 내 관련 시설의 용도와 교육·돌봄 서비스의 변화가 필요하다. 교육·문화와 생활돌봄의 이용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에서 감소하는 유소년인구와 증가하는 고령인구를 위한 보육·돌봄과 교육·문화 여건 개선을 위하여 공동체 내에서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는 학교를 활용하여 아동에서 노인까지 생애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공급과 지역 인적·물적 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주민이 상호 돌봄자-피돌봄자, 교수-학생이 되는 관계의 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지역 공동체의 리더, 혁신주체로서 성장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기반 마련 가능한 정책이 발굴되어야 한다. 취약계층의 교육·돌봄을 위해 농촌의 주산업인 농업을 중심으로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농업 등과 같은 지역 단위의 전북형 통합돌봄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조원지 외, 2020).

○ 사회적, 법적 지위가 미약한 여성노인, 여성농업인, 청년, 다문화가구를 위한 전북 농촌형 사회안전망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계층별 차별 완화 또는 해소를 위한 교육과 정책들이 운용되고 있으나, 농촌지역의 성인지 감수성, 다문화 감수성 등이 다소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어 이들이 지역사회의 주체가 아닌 주변인으로 인식, 활동할 수 있다. 수동적 위치가 아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인식 교육과 이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 인구 밀도가 낮아지고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인 전북 농촌지역의 경우, 주민의 이동권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농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경우, 교통 취약계층이 경험할 수 있는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접근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농촌형 교통모델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권 보장 및 확대가 필요하다(충청남도·충남연구원, 2021).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전북 농촌지역에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의 생활서비스 및 인프라 접근을 위한 대중교통의 수요가 커지며, 이들의 이동권과 함께 교통안전 확보가 필요하다(충청남도·충남연구원, 2021). 이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 확대와 함께 다양한 혁신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교통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기후위기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더욱더 저하시키기도 하지만 새로운 취약계층과 이슈의 발생을 야기할 수 있다. 사회재난에 따른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낮아지는 문화·교육의 접근성과 함께, 자연재해로 인한 위협적이고 어려운 작업환경에서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 등을 보장,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는 농업생산과 농업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지만, 전북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 모두 환경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주체가 되었다. 기후위기는 농업생산에 영향을 미치며 농가소득의 변화로 농촌주민의 경제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환경문제는 개인의 먹거리, 식수, 주거, 인권 등 삶 전반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먹거리 공급을 위협하고 먹거리 빈곤계층을 발생시키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먹거리 안전과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주민의 일상을 전환할 수 있는 삶의 질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농촌 주민의 일과 삶의 터전의 안전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생, 공동체, 생태 등 가치를 둔 정책이다.

○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질 정책은 중앙-지방-지역 순의 하달식 정책전달체계이다. 도시민의 이주동기 다양성, 세대별·계층별 이질성, 문화의 다양성 등은 전북 농촌지역 내 인적자원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이슈를 결정하고, 지역 내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사업이 발굴, 추진될 수 있는 정책 순환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 농촌사회에서 농촌주민을 위한 농업 또는 취미·여가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부문의 역량을 가진 주민들이 모여 서로 교수-학습자가 되어 상호 도움과 교육을 제공하며 또 다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체계가 필요하다(조원지 외, 2021).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REFERENCE

권영덕, 박재현 & 정오락. (2013). 경남의 농촌지역 삶의 질 실태와 추진과제. 정책포커스, 1-61.

김규원, 신형진 & 권기욱. (2013). 대구사회조사를 활용한 지역정책 개발방안 연구. 대구경북연구원.

김미영, 장보람 & 임상봉. (2013).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81-192.

김민석 & 김태완. (2020). 2020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상민 & 김현호 (2019). '더 나은 삶의 질 지수'분석 및 대응전략수립: 사회적 관계망 및 공동체 부문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상민, 김현호 & 이성원 (2020). 삶의 질과 사회적 연결망: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공공정책부문 효과분석. 지방행정연구, 34(1), 227-268.

김성희 & 장순희. (2013). 도·농간 삶의 질 인식격차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논집, 13, 88-102.

김용복 & 최명. (1993). 정보화와 정치적 삶의 질.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5(2), 57-75.

김윤영, 현혜순 & 방활란. (2020). 농촌지역 중노년층 주민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질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5), 317-325.

김은설, 김지현, 이재희, 김혜진 & 안석. (2018). 도농복합지역 육아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정현. (2019). 노년기 삶의 질에 관한 연구: 결혼 상태와 질과 친구이웃관계의 상호작용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4(3), 39-58.

김창진 & 허훈. (2018). 삶의 질과 소득의 관계에서 사회자본의 매개효과. GRI 연구논총, 20(4), 227-264.

마상진 & 최경환. (2002). 농촌주민의 삶의 질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대식 & 마상진. (2007).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지수화 방안 연구. 농촌경제, 30(4), 31-55.

손승호. (2015).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경제공간 변화와 유형 분류.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8(1), 45-59.

송미령, 성주인, 심재헌 & 서형주. (2021). 2020 지역발전지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신도철. (1981). 한국인의 삶의 질 대연구: 주관적 지표에 의한 분석. 정경문화, 5, 26-47.
신수정. (2019). 농촌 지역 노인의 활동참여, 인지, 삶의 질, 우울의 상관관계 연구: 예비연구. 재활복지공학회논문지, 13(2), 134-142.
안석, 박대식 & 김경인. (2017). 농촌노인의 의료·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및 정책과제: 기능장애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양성옥. (2019). 사회서비스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가?: 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와 삶의 질 간 종단연구. 사회과학연구, 30(3), 3-24.
오세일, 고태경 & 전승봉. (2019). 청년세대를 위한 통합적 삶의 질 연구. 사회과학연구, 27(2), 88-120.
이지은 & 이재완. (2014).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주관적 의식 분석: Q방법론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1), 515-541.
임근식. (2012). 지역주민의 삶의 질 인식과 영향요인과 관련 연구: 강원도 시군을 중심으로.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10(1), 47-89.
장봉규. (1996). 제2장 삶의 질-개념과 측정. 사회과학연구, 14(1), 25-39.
전라북도. (2019). 2019 전라북도 사회조사. 전라북도
정해식, 정홍원 & 김성아. (2020). 지역단위 삶의 질 진단과 정책혁신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조석주 & 이재기. (2000). 시·군통합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행정비용절감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5(1), 113-142.
조원지, 정호중 & 이병훈. (2020). 전라북도 사회적농업 활성화 방안. 전북연구원.
조원지, 배균기 & 이병훈. (2021).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 운영 방안. 전북연구원.
질 밸런타인. (2014). 공간에 비친 사회, 사회를 읽는 공간. 한울.
최민호, 강영웅 & 이승종. (2019). 기초자치단체 삶의 질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 커뮤니티웰빙 모형의 적용. 지방정부연구, 23(3), 329-356.
최예나. (2016). 전라북도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30(3), 291-312.
통계청. (2004).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통계청. (2021) 2020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한국인의 삶의 질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금회 & 손웅비. (2021). 구조방정식 모델을 활용한 마을단위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탐색적 연구: 제2차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의 원자료를 기반으로. 한국지적정보학회지, 23(1), 130-144.

황금회, 이상훈, 이병호, 유영성, 반미영, 손웅비 & 이은환. (2018). 경기도 삶의 질 Brief 2018: 삶의 질 통계모형 추정을 중심으로. 경기연구원.

Andrews, F. M., & Withe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ns' Perception of Life Quality. Plenum Press.

Atkinson, T. (1978). Public Perceptions of Quality of Life in Canada. York University.

Bauer, R. (1996). Social Indicators, The MIT Press.

Campbell A. (1972). Aspiration, satifaction and fulfillment, In A. Campbell and P. Converse(eds.), The Human Meaning of Social Change. Russel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s-Recent Patterns and Trends, Mcgraw Hill.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Russel Sage Foundation.

Covey, D., Merrill, A., & Merrill, R. (1994). First things first. A Fireside Book.

Ferrans, C. E., & Powers, M. J. (1985). Quality of Life Index: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properties. Advances in Nursing Science, 8(1), 15-24.

Inkeles, A. (1993). Industrialization, modernization and the quality of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34, 1-23.

Lawton, M. P. (1991). A multidimensional view of quality of life in frail elders. In J. E. Birren, J. E. Lubben, J. C. Rowe, &D. E. Deutchman (Eds.), The concept and measurement of quality of life in the frail elderly (pp. 3-27). Academic Press.

Marans, R. W., & Dillman, D. A. (1980). Perceptions of Life of Quality in Rural America. Survey Research Center,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The University of Michigan.

McCall, D. (1975).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 229-248.

Milbrath, L. W. (1979). Policy relevant quality of life research.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444, 32-45.

Milbrath, L. (1982). A conceptualization and research strategy for the study of ecological aspects of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 135-158.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Schnieder, M. (1976). The quality of life and social indicators research.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6, 291-305.

Schuessler, K. F., & Fisher, G. A. (1985). Quality of life research and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1, 129-149.

기본연구 2022-04

전북 농촌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발 행 인 | 권 혁 남
발 행 일 | 2022년 1월 31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374-2 9352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jthink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

93520
9 788966 123742
ISBN 978-89-6612-374-2